

불교 최초의 경전 숫타니파타

본 파일은 유튜브 '불교 평생교육원'에서 금강경과 반야심경 해설의 기본 자료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수행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무료로 배포하오니 저희 '불교 평생교육원'의 많은 이용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나무관세음보살

혹시 제게 연락하실 일이 있다면 010-2615-2646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제1장 뱀(蛇品)

- 뱀이 허물을 벗듯

(1)

뱀의 독이 몸에 퍼지는 것을 약으로 다스리듯, 치미는 화를 삭이는 수행자(修行者)는, 이 세상(此岸)도 저 세상(彼岸)도 다 버린다. 마치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 버리는 것처럼.

(2)

연못에 핀 연꽃을 물속에 들어가 꺾듯이, 애욕을 말끔히 끊어 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마치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 버리는 것처럼.

(3)

넘쳐흐르는 애착의 물줄기를 남김없이 말려 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마치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 버리는 것처럼.

(4)

거센 흐름이 연약한 갈대의 독을 무너뜨리듯이, 교만한 마음을 남김없이 없애 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마치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 버리는 것처럼.

(5)

무화과나무 숲속에서 꽃을 찾아도 얻을 수 없듯이, 모든 존재를 항상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은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마치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 버리는 것처럼.

(6)

안으로 성냄이 없고, 밖으로는 세상의 영고성쇠(榮枯盛衰)를 초월한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마치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 버리는 것처럼.

(7)

생각(想念)을 불살라 남김이 없고, 마음이 잘 다듬어진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마치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 버리는 것처럼.

(8)

달려갈지라도 너무 빠르거나 느리지 않고, 망상(妄想)을 아주 초월한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마치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 버리는 것처럼.

(9)

달려갈지라도 너무 빠르거나 느리지 않고, '이 세상 모든 것은 허망하다'고 아는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마치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 버리는 것처럼.

(10)

달려갈지라도 너무 빠르거나 느리지 않고, '모든 것은 허망하다'고 알아 탐욕에서 떠난 수행자

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마치 뱀이 묶은 허물을 벗어 버리는 것처럼.

(11)

달려갈지라도 너무 빠르거나 느리지 않고, '모든 것은 허망하다'고 알아 애욕에서 떠난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마치 뱀이 묶은 허물을 벗어 버리는 것처럼.

(12)

달려갈지라도 너무 빠르거나 느리지 않고, '모든 것은 허망하다'고 알아 미움에서 떠난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마치 뱀이 묶은 허물을 벗어 버리는 것처럼.

(13)

달려갈지라도 너무 빠르거나 느리지 않고, '모든 것은 허망하다'고 알아 헤맴(迷妄)에서 떠난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마치 뱀이 묶은 허물을 벗어 버리는 것처럼.

(14)

나쁜 버릇이 조금도 없고, 악이 뿌리를 뽑아 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마치 뱀이 묶은 허물을 벗어 버리는 것처럼.

(15)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날 인연이 되는, 즉 번뇌에서 생기는 것을 조금도 갖지 않은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마치 뱀이 묶은 허물을 벗어 버리는 것처럼.

(16)

사람을 생존에 얽어매는 애착을 조금도 갖지 않은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마치 뱀이 묶은 허물을 벗어 버리는 것처럼.

(17)

다섯 가지 덮임(五蓋)을 버리고, 번뇌 없고 의혹을 넘어 괴로움이 없는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마치 뱀이 묶은 허물을 벗어 버리는 것처럼.

- 소치는 다니야

(18)

소 치는 다니야가 말했다. "나는 이미 밥도 지었고, 우유도 짜 놓았습니다. 마히이 강변에서 처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내 움막은 지붕이 덮이고 방에는 불이 켜졌습니다. 그러니 신(神)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19)

스승은 대답했다. "나는 성내지 않고 마음의 완강한 미혹(迷惑)을 벗어 버렸다. 마히이 강변에서 하룻밤을 쉬리라. 내 움막(곧 자신)은 드러나고 탐욕의 불은 꺼져 버렸다. 그러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20)

소치는 다니야가 말했다. "모기나 쇠파리도 없고, 소들은 늪에 우거진 풀을 뜯어 먹으며, 비가와도 견디어낼 것입니다. 그러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21)

스승은 대답했다. "내 뗏목은 이미 잘 만들어져 있다. 거센 흐름에도 끄떡없이 건너 벌써 피안(彼岸)에 이르렀으니, 이제는 더 뗏목이 소용없노라. 그러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22)

소치는 다니야가 말했다. "내 아내는 온순하고 음란하지 않습니다. 오래 함께 살아도 항상 내 마음에 듭니다. 그녀에게 그 어떤 나쁜 점이 있다는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23)

스승은 대답했다. "내 마음은 내게 순종하고 해탈해 있다. 오랜 수양으로 잘 다스려졌다. 내게는 그 어떤 나쁜 점도 있지 않다. 그러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24)

소치는 다니야가 말했다. "나는 놀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아이들은 모두 다 건강합니다. 그들에게 그 어떤 나쁜 점이 있다는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25)

스승은 대답했다. "나는 그 누구의 고용인도 아니다. 스스로 얻은 것에 의해 온 누리를 걷노라. 남에게 고용될 이유가 없다. 그러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26)

소치는 다니야가 말했다. "아직 길들지 않은 송아지도 있고, 젖을 먹는 어린 소도 있습니다. 새끼 뱀 어미 소도 있고, 발정난 암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암소의 짝인 황소도 있습니다. 그러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27)

스승은 대답했다. "아직 길들지 않은 어린 소도 없고, 젖 먹는 송아지도 없다. 새끼 뱀 어미 소도 없으며, 발정난 암소도 없다. 그리고 암소의 짝인 황소도 없다. 그러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28)

소치는 다니야가 말했다. "소를 매놓을 말뚝은 땅에 박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자> 풀로 만든 새 밧줄은 잘 꼬여 있으니, 송아지도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29)

스승은 대답했다. "황소처럼 고삐를 끊고, 코끼리처럼 냄새나는 엉퀴를 짓밟았으니, 나는 다시 모태(母胎)에 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30)

갑자기 검은 구름이 비가 되어 뿌리더니 골짜기와 언덕에 물이 넘쳤다. 신께서 뿌리는 빗소리를 듣고 다니야는 이렇게 말했다.

(31)

"우리는 거룩한 스승을 만나 얻은 바가 참으로 큼니다. 눈이 있는 이여, 우리는 당신께 귀의(歸依)하오니 스승이 되어 주소서. 위대한 성자시여."

(32)

아내도 저도 순종하면서 행복한 분(부처님) 곁에서 청정한 행(淸淨行)을 닦겠나이다. 그러면 생사가 없는 피안(彼岸)에 이르러 괴로움을 없애게 될 것입니다."

(33)

악마 파아피만이 말했다. "자녀가 있는 이는 자녀로 인해 기뻐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로 인해 기뻐한다. 사람이 집착하는 근본은 바로 기쁨이다. 집착할 데가 없는 사람은 기뻐할 것도 없으리라."

(34)

스승은 대답했다. "자녀가 있는 이는 자녀로 근심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 때문에 걱정한다. 참으로 사람이 집착하는 근본은 근심이니라. 집착이 없는 이는 근심할 것도 없느니라."

-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35)

모든 생물에 대해서 폭력을 쓰지 말고, 모든 생물을 그 어느 것이나 괴롭히지 말며, 또 자녀를 갖고자 하지도 마라. 하물며 친구이라. 물소의 뿔처럼 혼자서 걸어가라.

(36)

서로 사귄 사람에게는 사랑과 그리움이 생긴다. 사랑과 그리움에는 괴로움이 따른다. 연정에 서 우환이 생기는 것임을 알고, 물소의 뿔처럼 혼자서 걸어가라.

(37)

친구를 동정한 나머지 마음이 얽매이면 손해를 본다. 가까이 사귀면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물소의 뿔처럼 혼자서 걸어가라.

(38)

자식이나 아내에 대한 애착은 마치 가지가 무성한 대나무가 서로 엉켜 있는 것과 같다. 죽순

이 다른 것에 달라붙지 않도록, 물소의 빨처럼 혼자서 걸어가라.

(39)

숲속에서 묶여 있지 않는 사슴이 먹이를 찾아 여기저기 다니듯이, 지혜로운 이는 독립과 자유를 찾아, 물소의 빨처럼 혼자서 걸어가라.

(40)

동반자(同伴者)들 속에 끼면, 쉬거나 가거나 섰거나 또는 여행하는 데도 항상 간섭을 받게 된다. 남이 원치 않는 독립과 자유를 찾아, 물소의 빨처럼 혼자서 걸어가라.

(41)

동반자들 속에 끼면 유희와 환락이 있다. 또 자녀들에 대한 애정은 매우 크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은 싫지만, 물소의 빨처럼 혼자서 걸어가라.

(42)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남을 해치려는 생각 없이 무엇이나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온갖 고난을 이겨 두려움 없이, 물소의 빨처럼 혼자서 걸어가라.

(43)

출가한 몸으로 아직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집에 사는 재가자(在家者)도 그러하다. 남의 자녀에게 집념하지 말고, 물소의 빨처럼 혼자서 걸어가라.

(44)

앞이 떨어진 코오빌라아라 나무처럼, 재가자의 표적을 없애 버리고 집안의 굴레를 벗어나, 용기 있는 이는 물소의 빨처럼 혼자서 걸어가라.

(45)

만일 그대가 현명하고, 일에 협조하고, 예의 바르고, 총명한 동반자를 얻는다면 어떠한 난관도 극복하리니, 기쁜 마음으로 생각을 가다듬고 그와 함께 걸어가라.

(46)

그러나 만일 그대가 현명하고, 일에 협조하고, 예의 바르고, 총명한 동반자를 얻지 못하면 마치 왕이 정복한 나라를 버리고 가듯, 물소의 빨처럼 혼자서 걸어가라.

(47)

우리는 참으로 친구를 얻는 행복을 기린다. 자기보다 뛰어나거나 동등한 친구와는 가까이 친해야 한다. 이러한 친구를 만나지 못할 때에는 허물을 짓지 말고, 물소의 빨처럼 혼자서 걸어가라.

(48)

금공(金工)이 잘 만들어낸 두 개의 황금 팔찌가 한 팔에서 서로 부딪치는 소리를 듣고, 물소의

빨처럼 혼자서 걸어가라.

(49)

이와 같이,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잔소리와 말다툼이 일어나리라.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잘 살펴, 물소의 빨처럼 혼자서 걸어가라.

(50)

욕망은 실로 그 빛깔이 곱고 감미로우며 즐겁게 하고,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마음을 산산이 흩어 놓는다. 욕망의 대상에는 이러한 우환이 있다는 것을 알고, 물소의 빨처럼 혼자서 걸어가라.

(51)

이것이 내게는 재앙이고 종기이고 화이며, 병이고 화살이고 공포다. 이렇듯 모든 욕망의 대상에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물소의 빨처럼 혼자서 걸어가라.

(52)

추위와 더위, 굶주림, 갈증, 바람 그리고 뜨거운 햇볕과 쇠파리와 뱀, 이러한 모든 것을 이겨내고, 물소의 빨처럼 혼자서 걸어가라.

(53)

마치 어깨가 떡 떨어진 코끼리가 그 무리를 떠나 마음대로 숲속을 거닐 듯이, 물소의 빨처럼 혼자서 걸어가라.

(54)

모임(集會)을 즐기는 이에게는 잠시 동안의 해탈(解脫)을 거를이 없다. 태양의 후예(부처님)가 한 말씀을 명심하여, 물소의 빨처럼 혼자서 걸어가라.

(55)

서로 다투는 철학적 견해를 초월하고 깨달음에 이르는 결론에 도달하여 도(道)를 얻은 사람은 '나는 지혜를 얻었으니, 이제는 남의 지도를 받을 필요가 없다'하고, 물소의 빨처럼 혼자서 걸어가라.

(56)

탐내지 말고 속이지 말며, 갈망하지 말고 남의 덕을 가리지도 말며, 혼탁과 미혹을 버리고, 세상의 온갖 애착에서 벗어나, 물소의 빨처럼 혼자서 걸어가라.

(57)

의롭지 못한 것을 보고 그릇되고 굽은 것에 사로잡힌 나쁜 벗을 멀리 하라. 탐욕에 빠져 게으른 사람에게 가까이 하지 말고, 물소의 빨처럼 혼자서 걸어가라.

(58)

널리 배워 진리를 아는, 고매하고 총명한 친구와 사귀라. 온갖 이로운 일을 알고 의혹을 떠나, 물소의 빨처럼 혼자서 걸어가라.

(59)

세상의 유희나 오락이나 쾌락에 만족하지 말고 관심도 가지지 마라. 꾸밈없이 진실을 말하면서, 물소의 빨처럼 혼자서 걸어가라.

(60)

처자도 부모도 재산도 곡식도, 친척이나 모든 욕망까지도 다 버리고, 물소의 빨처럼 혼자서 걸어가라.

(61)

‘이것은 집착이구나. 이곳에는 즐거움도 상쾌한 맛도 적고 괴로움뿐이다. 이것은 고기를 낚는 낚시이다’라고 깨닫고, 현자(賢者)는 물소의 빨처럼 혼자서 걸어가라.

(62)

물속의 고기가 그물을 찢는 것처럼, 또는 불이 다 탄 곳에는 다시 불붙지 않는 것처럼, 모든 번뇌의 매듭을 끊어 버리고, 물소의 빨처럼 혼자서 걸어가라.

(63)

우러러 보거나 해매지 말고, 모든 감각(感官)을 막아 마음을 지켜 번뇌가 일어나는 일 없이, 번뇌의 불에 타지도 말고, 물소의 빨처럼 혼자서 걸어가라.

(64)

앞이 저버린 파아리чат타 나무처럼, 재가자(在家者)의 모든 표적을 버리고 출가하여 가사를 걸치고, 물소의 빨처럼 혼자서 걸어가라.

(65)

모든 맛에 탐착하지 말고, 욕구하거나 남을 양육하지 마라. 문전마다 밥을 빌어 가정에 매이지 말고, 물소의 빨처럼 혼자서 걸어가라.

(66)

마음의 다섯 가지 덮개를 벗겨 버리고, 모든 수번뇌(隨煩惱)를 잘라 버려 의지하지 않으며, 애욕의 허물을 끊어 버리고, 물소의 빨처럼 혼자서 걸어가라.

(67)

전에 경험했던 즐거움과 괴로움을 버리고, 또 쾌락과 우수를 버리고 맑은 고요와 안식을 얻어, 물소의 빨처럼 혼자서 걸어가라.

(68)

최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 정진하고, 마음의 해이를 물리치고 행동하는 데에 게으르

지 말며, 힘차게 활동하여 몸의 힘과 지혜의 힘을 갖추고, 물소의 빨처럼 혼자서 걸어가라.

(69)

홀로 앉아 선정(禪定)을 버리지 말고, 모든 일에 늘 이치와 법도에 맞도록 행동하며, 살아가는데 있어 우환을 똑똑히 알아, 물소의 빨처럼 혼자서 걸어가라.

(70)

애착을 없애기 위해 게으르지 말고, 병어리도 되지 말고, 학식이 있고 마음을 안정시켜 이치(理法)를 확실히 알며 자제하고 노력해서, 물소의 빨처럼 혼자서 걸어가라.

(71)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물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같이, 물소의 빨처럼 혼자서 걸어가라.

(72)

이빨이 억세어 못짐승의 왕이 된 사자가 다른 짐승을 제압하듯이, 종벽한 곳에 살기를 힘쓰라. 물소의 빨처럼 혼자서 걸어가라.

(73)

자비와 고요와 동정과 해탈과 기쁨을 때에 따라 익히고, 모든 세간(世間)을 저버림이 없이, 물소의 빨처럼 혼자서 걸어가라.

(74)

탐욕과 혐오와 해냄을 버리고, 매듭을 끊어 목숨을 잃어도 두려워 말고, 물소의 빨처럼 혼자서 걸어가라.

(75)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벼를 사귀고 또한 남에게 봉사한다. 오늘 당장의 이익을 생각지 않는 벼는 보기 드물다. 자신의 이익만을 아는 사람은 추하게 보인다. 물소의 빨처럼 혼자서 걸어가라.

-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린다

(76)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어느 때 거룩하신 스승(부처님)께서는 마가다나라 남산에 있는 <한포기 떠(芽)>라고 하는 바라문 촌에 계시었다. 그때 밭을 갈고 있던 바라문 바아라드바아자는 씨를 뿌리는 데에 오백 자루의 팽이를 소에 땀다. 스승께서는 오전 중에 속옷을 입고 바리때와 겹옷(重衣)을 걸치고, 밭을 갈고 있는 바라문 바아라드바아자에게로 가셨다. 때 마침 그는 음식을 나누어 주고 있기에 스승은 한쪽에 가서 계시었다. 바라문 바아라드바아자는 음식을 받기 위해 서 있는 스승을 보고 말했다.

"사문(沙門 = 도를 닦는 사람)이여, 나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린 후에 먹습니다. 사문이여, 당신도 밭을 가십시오. 그리고 씨를 뿌리십시오, 갈고 뿌린 다음에 잡수

십시오."

스승은 대답하였다.

"바라문이며,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갈고 뿌린 다음에 먹습니다."

바라문이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 고오타마의 멍에나 호미, 호미 날, 작대기나 소를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 고오타마는 어째서 `바라문이며,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갈고 뿌린 다음에 먹습니다.'라고 하십니까?"

이 때 밭을 갈던 바라문 바아라드바아자는 시(詩)로써 스승에게 여쭙었다.

"당신은 농부라고 자칭하시지만, 우리는 밭을 가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당신이 밭을 간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들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77)

스승은 대답했다.

"믿음은 종자요, 고행은 비이며, 지혜는 내 멍에와 호미, 부끄러움은 팽이자루, 의지는 잡아매는 새끼, 생각은 내 호미 날과 작대기입니다."

(78)

몸을 근신하고 말을 조심하며, 음식을 절제하여 과하지 않습니다. 나는 진실을 김매는 것으로 삼고 있습니다. 유화(柔和)가 내 멍에를 떼어 놓습니다.

(79)

노력은 내 황소이어서 나를 안온의 경지로 실어다줍니다. 물러남이 없이 앞으로 나아가 그곳에 이르면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80)

이 밭갈이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단 이슬(甘露)의 과보를 가져 오는 것입니다. 이런 농사를 지으면, 온갖 고뇌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81)

이 때 밭을 가는 바라문 바아라드바아자는 커다란 청동(靑銅)바리에 우유죽을 하나 가득 담아 스승에게 올렸다. "고오타마께서는 우유죽을 드십시오. 당신은 진실로 밭가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당신 고오타마께서는 단 이슬의 과보를 가져다주는 농사를 짓기 때문입니다."

"시를 읊어 얻은 것을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바라문이며, 이것은 바르게 보는 사람들(눈을 뜬 사람들)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시를 읊어 생긴 것을 눈을 뜬 사람들(諸佛)은 받지 않았습니다. 바라문이며, 법에 따르는 이것이 눈을 뜬 사람들의 생활 방법입니다."

(82)

완전한 사람인 큰 선인(大仙人), 번뇌의 더러움을 다 없애고, 나쁜 행위를 소멸해 버린 사람에게서는 다른 음식을 드리십시오. 그것은 필경 공덕을 바라는 이의 복 밭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고오타마시여, 이 우유죽을 저는 누구에게 드려야 합니까?"

"바라문이며, 신, 악마, 범천(梵天)들이 있는 세계에서 신, 인간, 사문, 바라문을 포함한 못 중생 가운데서 완전한 사람(如來)과 그의 제자를 빼놓고는, 아무도 이 우유죽을 먹고 소화시킬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라문이며, 이 우유죽일랑 산의 풀이 적은 곳에 버리십시오."

그리하여 밭을 가는 바라문 바아라드바아자는 그 우유죽을 생물이 없는 물속에 쏟아 버렸다. 그런데 그 우유죽은 물속에 버려지자마자 부글부글 소리를 내면서 많은 거품을 내뿜는 것이었다. 마치 온종일 피약별에 쪼여 뜨거워진 호미 날을 물속에 넣을 때 부글부글 소리를 내면서 많은 거품이 이는 것과 같았다. 이 때 바라문 바아라드바아자는 모골이 송연하여 두려워 떨면서 스승 곁에 다가섰다. 그리고 스승의 두 발에 머리를 조아리며 여쭙었다.

"놀라운 일입니다, 고오타마시여. 놀라운 일입니다. 고오타마시여, 마치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주듯이, 덮인 것을 벗겨 주듯이, 길 잃은 이에게 길을 가리켜 주듯이, 혹은 `눈이 있는 자는 빛(色)을 보리라'하여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 주듯이, 고오타마 당신은 여러 가지 방편으로 진리를 밝혀 주셨습니다. 저는 고오타마 당신께 귀의하고, 진리와 도를 닦는 스님들의 모임에 귀의합니다. 저는 고오타마 곁에 출가하여 완전한 계율(具足戒)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밭을 가는 바라문 바아라드바아자는 부처님 곁에 출가하여 완전한 계를 받았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바아라드바아자는 홀로 사람들을 멀리하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마침내 더 없이 청정한 행의 궁극을(- 많은 선남자들은 바로 그것을 얻기 위해 집을 나와 집 없는 상태가 된 것인데) 현세에서 스스로 깨달아 증명하고 구현하며 살았다. `태어나는 일은 끝났다. 청정한 행은 이미 완성됐다. 할일을 다 마쳤다. 이제 또 다시 이런 생존을 받지는 않는다.'라고 깨달았다. 그리하여 바아라드바아자 장로는 성인(聖人)의 한 사람이 되었다.

- 대장장이 아들 춘다

(83)

대장장이 아들 춘다가 말했다.

"위대하고 지혜로운 성인, 눈을 뜬 어른, 진리의 주인, 애착을 떠난 분, 인류의 최상자(最上者), 뛰어난 마부에게 저는 물어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되는 수행자가 있습니까? 일러 주십시오."

(84)

스승(부처님)은 대답했다.

"춘다여, 네 가지 수행자가 있고, 다섯 번째는 없느니라. 지금 그 물음에 답하리라. <도로써 이긴 이(勝者)> <도를 말하는 이> <도에 사는 이> 그리고 <도를 더럽히는 자>이니라."

(85)

대장장이 춘다는 말했다.

"눈을 뜬 사람은 누구를 가리켜 <도로써 이긴 이>라 부르십니까? 그리고 <도를 생각하는 사람>은 어찌하여 다른 이와 견줄 수 없습니까? 또 묻겠습니다만 <도에 의해 산다>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를 더럽히는 자>라는 것도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86)

"의혹을 넘어서고 고뇌를 떠나 열반을 즐기며, 탐욕을 버리고 신(神)들을 포함한 세계를 이끄는 사람, 이런 사람을 <도로써 이긴 이>라고 눈을 뜬 사람들은 말한다.

(87)

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가는 것으로 알고, 법을 설하고 판별하는 사람, 의혹을 버리고 동요하지 않는 성인을 수행자들 중에서 둘째로 <도를 말하는 이>라 부른다.

(88)

잘 설명된 법의 말씀인 도에 살아 스스로 억제하고, 깊이 생각해서 잘못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수행자들 중에서 셋째로 <도에 사는 사람>이라 부른다.

(89)

맹세한 계율을 잘 지키는 체하지만, 고집 세고 가문을 더럽히며, 오만하고 거짓이 있으며, 자체력이 없고 말 많고 그러면서도 잘난 체하는 사람을 가리켜 <도 를 더럽히는 자>라고 한다.

(90)

학식이 있고 총명한 재가(在家)의 성스런 신도는`그들 네 종류의 수행자는 다 이와 같다'고 알아, 그들을 통찰하여 그와 같이 보더라도 그 신도의 믿음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는 어째서 더럽혀진 것과 더럽혀지지 않은 것, 깨끗한 이와 깨끗하지 않은 자를 똑같이 볼 수 있을 것인가?"

- 파멸의 문

(91)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어느 때 거룩하신 스승(부처님)은 사아밧티이(舍衛城)의 제타 숲, 고독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 주는 장자의 동산(祇樹給孤獨園 = 祇園精舍)에 계시었다. 그때 용모가 아름다운 한 신이 밤중이 지났을 무렵, 제타 숲을 두루 비추면서 스승께 가까이 왔다. 그러더니 스승께 절하고 한쪽에 서서 시로써 호소하는 것이었다.

"저희는 파멸하는 사람에 대해서 고오타마께 여쭙어 보겠습니다. 파멸에 이르는 문은 어떤 것입니까? 스승께 그것을 묻고자 이렇게 찾아 왔습니다."

(92)

스승은 대답했다.

"번영하는 사람도 알아보기 쉽고, 파멸도 알아보기 쉽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번영하고,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망한다."

(93)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첫째 파멸입니다. 스승님, 둘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94)

"나쁜 사람들을 사랑하고 착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며, 나쁜 사람이 하는 일을 즐기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95)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둘째 파멸입니다. 스승님, 셋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96)

"잠자는 버릇이 있고, 교제의 버릇이 있고, 분발해서 정진하지 않고 게으르며, 걸핏하면 화 잘 내는 것으로 이름난 사람이 있다.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97)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셋째 파멸입니다. 스승님, 넷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98)

"자기는 풍족하게 살고 있으면서 늙어 쇠약한 부모는 돌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99)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넷째 파멸입니다. 스승님, 다섯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100)

"바라문이나 사문, 혹은 다른 결식하는 이를 거짓말로 속인다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101)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섯째 파멸입니다. 스승님, 여섯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102)

"엄청나게 많은 재물과 황금과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이 혼자서 맛있는 것을 먹는다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103)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섯째 파멸입니다. 스승님, 일곱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104)

"혈통을 뽐내고 재산과 가문을 자랑하면서 자기네 친척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105)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일곱째 파멸입니다. 스승님, 여덟째 것을 말씀해 주

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106)

"여자에게 미치고 술과 도박에 빠져 버는 족족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107)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덟째 파멸입니다. 스승님, 아홉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108)

"자기 아내로 만족하지 않고, 매춘부와 놀아나고, 남의 아내와 어울린다.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109)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홉째 파멸입니다. 스승님, 열 번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110)

"한창때를 지난 남자가 튼발 열매처럼 불룩한 유방을 가진 젊은 여인을 유인하여 그녀를 질투하는 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111)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열 번째 파멸입니다. 스승님, 열한 번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112)

"술과 고기 맛에 빠져 재물을 헤프게 쓰는 여자나 남자에게, 집안 일의 실권을 맡긴다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113)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열한 번째 파멸입니다. 스승님, 열두 번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114)

"크샤트리야(武士)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 권세는 작은데 욕망만 커서, 이 세상에서 왕위를 얻고자 한다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115)

세상에는 이러한 파멸이 있다는 것을 잘 살피서, 성현들은 진리를 보고 행복한 세계에 이른다."

- 천한 사람

(116)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어느 때 거룩하신 스승은 사아밧티이의 제타 숲, 고독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장자의 동산에 계시었다. 그 때 스승께서는 오전에 내의를 입고 바리때와 겹옷을 걸치고 밥을 빌러 사아밧티이에 들어가셨다.

그때 불을 섬기는 바라문 바아라드바아자의 집에는 성화(聖火)가 켜지고 제물이 올려져 있었다. 스승은 사아밧티이 거리에서 탁발(托鉢)하면서 그의 집에 가까이 가셨다.

불을 섬기는 바라문 바아라드바아자는 스승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스승께 말했다.

"까까중아, 거기 서라. 가짜 사문아, 거기 서라. 천한 놈아, 거기 서라."

이렇게 당한 스승께서는 불을 섬기는 바라문 바아라드바아자에게 말씀하셨다.

"바라문이여, 도대체 당신은 천한 사람을 알고나 있소? 또 천한 사람을 만드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소?"

"고오타마여, 나는 사람을 천하게 하는 조건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쪼록 저에게 천한 사람을 만드는 조건을 알 수 있도록 그 이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바라문이여, 그러면 주의해서 잘 들으시오. 내 말하리다."

"네,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불을 섬기는 바라문 바아라드바아자는 스승께 대답했다. 스승은 말씀하셨다.

(116)

"화를 잘 내고 원한을 품으며, 간사하고 악독해서 남의 미덕을 덮어 버리고, 그릇된 소견으로 음모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17)

한 번 태어나는 것이거나 두 번 태어나는 것이거나, 이 세상에 있는 생물을 해치고 동정심이 없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18)

시골과 도시를 파괴하고 포위하여, 독재자로서 널리 알려진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19)

마음에 있거나 숲에 있거나 남의 것을 주지도 않는데 훔치려는 생각으로 이를 취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20)

사실은 빛이 있어 돌려 달라고 독촉을 받으면, '당신에게 갚을 빛은 없다.'고 발뺌을 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21)

얼마 안 되는 물건을 탐내어 행인을 살해하고 그 물건을 약탈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22)

증인으로 불려 나갔을 때 자신이나 남을 위해, 또는 재물을 위해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23)

때로는 폭력을 가지고, 혹은 서로 사랑하여 친척이나 친구의 아내와 어울리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24)

자기는 재물이 풍족하면서도 늙고 쇠약한 부모를 섬기지 않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25)

부모 형제자매, 혹은 의붓어머니를 때리거나 욕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26)

상대가 이익 되는 일을 물었을 때, 불리하게 가르쳐주거나 숨긴 일을 말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27)

나쁜 일을 하면서, 아무도 자기가 한 일을 모르기를 바라며 숨기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28)

남의 집에 갔을 때는 융숭한 대접을 받았으면서, 그쪽에서 손님으로 왔을 때는 예의로써 보답하지 않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29)

바라문이나 사문 또는 결식(乞食)하는 사람에게 거짓말로 속이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30)

식사 때가 되었는데도 바라문이나 사문에게 욕하며 먹을 것을 주지 않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31)

이 세상에서 어리석음에 덮여 변변찮은 물건을 탐하고 사실이 아닌 일을 말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32)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경멸하며, 스스로의 교만 때문에 비굴해진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33)

남을 괴롭히고 욕심이 많으며, 나쁜 욕망이 있어 인색하고, 덕도 없으면서 존경을 받으려 하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34)

깨달은 사람을 비방하고 혹은 출가나 재가의 제자들을 헐뜯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35)

사실은 존경받지 못할 사람이 존경받을 사람이라 자부하고, 범천(梵天)을 포함한 세계의 도적인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천한 사람ियो. 내가 당신에게 말한 이러한 사람들은 참으로 천한 사람인 것이오.

(136)

날 때부터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오. 태어나면서 바라문이 되는 것도 아니오. 행위에 의해서 천한 사람도 되고 바라문도 되는 것이오.

(137)

나는 다음에 실례를 들겠으니 이것으로 내 말을 알아들으시오. 찬다아라 족의 아들이며, 개백정 마아탕가로 세상에 알려진 사람이 있었소.

(138)

그 마아탕가는 얻기 어려운 최상의 명예를 얻었소. 많은 왕족과 바라문들이 그를 섬기려고 모여 들었소.

(139)

그는 신들의 길, 더러운 먼지를 떨어 버린 대도(大道)를 올라가 탐욕을 버리고 범천의 세계에 가게 되었소. 천한 태생인 그가 범천의 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소.

(140)

베에다 독송자의 집에 태어나 베에다의 글귀에 친숙한 바라문들도, 때로는 나쁜 행위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소.

(141)

이와 같이 되면, 현세에서 비난을 받고 내세에는 나쁜 곳에 태어나오. 신분이 높은 태생도 그들이 나쁜 곳에 태어나는 것을, 그리고 비난 받는 것을 막을 수는 없소.

(142)

날 때부터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오. 날 때부터 바라문이 되는 것도 아니오. 그 행위로 말미암아 천한 사람도 되고 바라문도 되는 것이오."

- 평안한 경지에 이르러 해야 할 일

(143)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에 불을 섬기는 바라문 바아라드바아자는 스승께 사죄었다.
"훌륭한 말씀입니다. 고오타마시여. 훌륭한 말씀입니다. 고오타마시여. 마치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주듯이, 덮인 것을 벗겨 주듯이, 길 잃은 자에게 길을 가리켜 주듯이, 혹은 `눈이 있는 사람들은 빛을 볼 것이다'하고 어둔 밤에 등불을 비춰 주듯이, 당신 고오타마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밝히셨습니다. 저는 당신 고오타마께 귀의합니다. 그리고 진리와 수행승의 모임에 귀의합니다. 고오타마께서는 오늘부터 제 목숨이 다할 때까지 저를 귀의한 재속(在俗) 신자로서 받아 주십시오."

(143)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안한 경지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능력 있고, 정직하고 바르며, 말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 체하지 말아야 한다.

(144)

만족할 줄을 알고, 기르기 쉽고, 잡일을 줄이고, 생활도 또한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총명하여 마음이 성내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

(145)

다른 식자들로부터 비난을 살 만한 비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생물은 다 행복해라. 태평해라. 안락해라.

(146)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겁에 떨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큰 것이건 중간치건, 짧고 가는 것이건, 또는 조잡하고 거대한 것이건.

(147)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또는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거나 모든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해라.

(148)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경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골려 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149)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아끼듯이, 모든 살아 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내라.

(150)

또한 온 세계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를 행하라. 위아래로, 또는 옆으로 장애와 원함과 적의가 없는 자비를 행하라.

(151)

서 있을 때나 걸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는 한,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숭고한 경지라 부른다.

(152)

온갖 샅된 소견에 팔리지 말고, 계를 지키고 지견(知見)을 갖추어 모든 욕망에 대한 탐착을 버린 사람은 결코 다시는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 설산(雪山)의 야차

(153)

칠악야차(七岳夜叉)가 말했다.

"오늘은 보름, 포살(布薩) 날이다. 눈부신 밤이 가까워졌다. 자, 우리들은 세상에서도 뛰어난 스승 고오타마를 뵈러 가자."

(154)

설산야차가 말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은 모든 살아 있는 것에 대해 안립(安立)되어 있는 것일까? 그리고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의 생각은 자제할 수 있는 것일까?"

(155)

칠악야차는 대답했다.

"그런 분의 마음은 모든 살아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정돈되어 있다. 그리고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그의 생각은 잘 자제될 수 있다."

(156)

설산야차가 말했다.

"그는 주지 않는 것은 갖지 않을까? 그는 살아 있는 것을 죽이지 않으려고 자제하고 있는 것일까? 그는 게으름에서 떠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는 정신통일을 그만 두지 않을 것인가?"

(157)

칠악야차는 대답했다.

"그는 주지 않는 것은 갖지 않는다. 그는 산 것을 죽이지 않으려고 자제하고 있다. 그는 게으름에서 떠나 있다. 눈을 뜬 사람(부처님)은 정신통일을 그만두지 않는다."

(158)

설산야차가 말했다.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까? 거친 욕설을 하지 않을까? 이간질을 하지 않을까? 쓸데없는 말

을 하지 않을까?"

(159)

칠악야차는 대답했다.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는 거친 욕설을 하지 않는다. 그는 이간질을 하지 않는다. 그는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

(160)

설산야차가 말했다.

"그는 욕망의 향락에 빠지지 않을까? 그의 마음은 혼탁하지 않을까? 헤맴을 초월했을까? 그리고 모든 사물을 똑똑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을까?"

(161)

칠악야차는 대답했다.

"그는 욕망의 향락에 빠지지 않는다. 그의 마음은 혼탁하지 않다. 모든 헤매임을 초월했다. 그리고 모든 사물을 똑똑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

(162)

설산야차가 말했다.

"그는 밝은 지혜를 갖추고 있을까? 그의 행동은 청정할까? 그는 온갖 번뇌의 때를 소멸해 버렸을까? 그는 이제 다시 태어나는 일은 없을까?"

(163)

칠악야차는 대답했다.

"그는 밝은 지혜를 갖추었다. 그의 행동은 청정하다. 그는 온갖 번뇌의 때를 소멸해 버렸다. 그리고 그는 이제 다시는 세상에 태어나는 일이 없다."

(163b)

"성인의 마음은 행동과 말에 잘 나타나 있다. 밝은 지혜와 청정한 행을 갖추고 있는 그를 네가 찬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성인의 마음은 행동과 말에 잘 나타나 있다. 밝은 지혜와 청정한 행을 갖추고 있는 그를 네가 따라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164)

칠악야차가 말했다.

"성인의 마음은 행동과 말에 잘 나타나 있다. 자, 우리는 밝은 지혜와 청정한 행을 갖추고 있는 고오타마를 보러 가자."

(165)

설산야차가 말했다.

"그 성인은 영양(羚羊)과 같은 정강이를 가졌고, 여위고 가늘어 총명하고 소식(小食)해서 탐내지 않으며, 숲속에서 조용히 사색하고 있다. 오너라. 우리는 고오타마를 뵈러 가자.

(166)

온갖 욕망을 돌아보지 않고, 마치 사자처럼, 코끼리처럼 홀로 가는 그에게 가서 우리는 물어 보자. 죽음의 멍에에서 벗어나는 길을."

(167)

두 야차가 같이 말했다.

"열어 보이는 분, 풀어서 밝히는 분, 모든 사물의 궁극에 통달하고 원망과 공포를 넘어서 눈뜬 분, 고오타마에게 우리는 물어 보자."

(168)

설산야차가 말했다.

"무엇이 있을 때 세계는 생깁니까? 무엇에 대해 사랑하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집착해 있으며, 또 무엇 때문에 해를 입고 있습니까?"

(169)

스승은 대답했다.

"설산에 사는 자여, 여섯 가지 것이 있을 때 세계는 생기고, 여섯 가지 것에 대해서 사랑하게 되고, 세계는 여섯 가지 것에 집착하고 있으며, 또 세계는 그 여섯 가지 것에 해를 입고 있는 나라."

(170)

"그것으로써 세계가 해를 입는다는 집착이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

(171)

"세상에는 다섯 가지 욕망의 대상이 있고, 의지(意)의 대상이 여섯 번째라고 한다. 그런 것에 대한 탐욕에서 벗어난다면 곧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172)

이와 같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길을 너희에게 사실대로 밝히겠다. 이 일을 난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이렇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173)

"이 세상에서 누가 거센 흐름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큰 바다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의지할 것도, 붙잡을 것도 없는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누가 가라앉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74)

"항상 계(戒)를 몸에 지니고, 지혜가 있고 마음을 가다듬어 안으로 살피고 염원(念願)이 있는 사람만이 건너기 어려운 거센 흐름을 능히 건널 수 있다.

(175)

애욕에 대한 생각에서 떠나 모든 매듭을 초월하고, 환락의 마음을 멀해 버린 사람, 그는 깊은 바다에 가라앉지 않는다."

(176)

설산야차가 말했다.

"깊은 지혜가 있고 미묘한 뜻을 보며, 아무것도 앎고 욕망의 생존에 집착하지 않으며, 모든 일에서 해탈하여 천상의 길을 가는 저 위대한 선인(仙人)을 보라

(177)

세상에서 이름 높고 미묘한 뜻을 보며, 지혜를 가르쳐 주고 욕망에 집착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알고 총명하며, 거룩한 길을 가고 있는 저 위대한 선인을 보라.

(178)

오늘 우리는 좋은 태양을 보고, 아름다운 새벽을 만나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다. 거센 흐름을 건너 번뇌의 때가 묻지 않은, 깨달은 사람을 우리는 만났기 때문에.

(179)

천이나 되는 저의 야차 무리들은 신통력이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모두 당신께 귀의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위없는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180)

저희들은 마을에서 마을로, 산에서 산으로 돌아다니겠습니다. 깨달은 이와 진리의 뛰어난 까닭을 예배하면서."

— 신앙이 으뜸가는 재산이다

(181)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어느 때 거룩하신 스승께서는 아알라비 나라 아알라바카 야차의 처소에 머물고 계셨다. 그 때 아알라바카 야차는 스승께 와서 말했다.

"사문이여, 나가 주시오."

"좋다, 친구여."

하고, 스승은 나가셨다.

또 야차는 말했다.

"사문이여, 들어오시오."

"좋다, 친구여."

하고, 스승은 들어가셨다.

또 다시 아알라바카 야차는 말했다.

"사문이여, 나가 주시오."

"좋다, 친구여."

하고 스승은 다시 나가셨다.

또 야차는 말했다.

"사문이여, 들어오시오."

"좋다, 친구여."

하고, 스승은 또 들어가셨다.

세 번째 또 아알라바카 야차는 스승에게 말했다.

"사문이여, 나가주시오."

"좋다, 친구여."

하고, 스승은 나가셨다.

또 야차는 말했다.

"사문이여, 들어오시오."

"좋다, 친구여."

하고, 스승은 들어가셨다.

네 번째 또 아알라바카 야차는 말했다.

"사문이여, 나가 주시오."

이때 스승은 대답했다.

"그러나 나는 더 나가지 않겠다. 네 할 일이나 해라."

"사문이여, 제가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제게 해답을 못한다면, 당신의 마음을 산란케 하고 당신의 심장을 찢은 뒤 두 다리를 잡아 갠지스 강 건너로 내던지겠소."

스승은 대답했다.

"친구여, 신, 악마, 범천을 포함한 세계에서, 그리고 사문, 바라문, 신, 인간을 망라한 산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산란케 하고 내 심장을 찢고 두 다리를 잡아 갠지스 강 건너로 내던질 만한 자를 나는 아직 보지 못했다. 친구여, 그대가 물어 보고 싶은 것이 있거든 무엇이든 물어 보라."

아알라바카 야차는 스승에게 다음의 시로써 말을 걸었다.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으뜸가는 재산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선행(善行)이 안락을 가져 옵니까? 참으로 맛 중에서 가장 맛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최상의 생활입니까?"

(182)

"이 세상에서는 신앙(信仰)이 사람에게 으뜸가는 재산이다. 덕행이 두터우면 안락을 가져 온다. 진실이 맛 중의 맛이며, 지혜롭게 사는 것이 최상의 생활이라 할 수 있다."

(183)

"사람은 어떻게 해서 거센 흐름을 건넵니까? 어떻게 해서 바다를 건넵니까? 어떻게 해서 고통을 초월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완전히 청정해질 수 있습니까?"

(184)

"사람은 신앙으로써 거센 흐름을 건너고, 정진으로 바다를 건넌다. 근면으로써 고통을 초월하고, 지혜로써 완전히 청정해진다."

(185)

"사람은 어떻게 해서 지혜를 얻습니까? 어떻게 해서 재물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서 명성을 떨칩니까? 어떻게 해서 친교를 맺습니까? 또 어찌 하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갔을 때 걱정이 없겠습니까?"

(186)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안락을 얻는 이치(理法)를 믿고 정진하고 총명하다면, 가르침을 받으려는 열망에 의해서 지혜를 얻는다.

(187)

정당하게 일을 하고 참을성 있게 노력하는 자는 재물을 얻는다. 성실을 다하면 명성을 떨치고 무엇인가를 줌으로써 친교를 맺는다.

(188)

신앙을 갖고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성실, 진리, 견고, 보시 이 네 가지 덕이 있으면, 그는 내세에 가서도 걱정이 없다.

(189)

만일 이 세상에 성실, 자제, 보시, 인내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널리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물어 보라."

(190)

"무엇 때문에 다시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널리 물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내세에 이익 되는 일을 깨달았는데.

(191)

아아, 깨달으신 분께서 아알라비에 살러 오신 것은, 저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저는 보시하면 어찌서 위대한 과보가 얻어지는 가를 알았습니다.

(192)

저는 시골에서 시골로, 도시에서 도시로 돌아다니겠습니다. 깨달으신 분과 진리의 뛰어남에 예배하면서."

— 부정하고 악취를 풍기는 몸뚱이

(193)

걸거나 서며, 혹은 앉고 눕거나 몸을 구부리고 또는 편다. 이것이 신체의 동작이다.

(194)

신체는 뼈와 힘줄로 연결되어 있고, 내피(內皮)와 살과 살갓으로 덮여져 있어, 있는 그대로 볼 수는 없다.

(195)

신체 내부는 내장과 위로 가득 차 있고, 간장, 방광, 심장, 폐장, 신장, 비장이 있다.

(196)

콧물, 점액, 진물, 지방, 피, 관절액, 담즙, 기름이 있다. 또 그 아홉 구멍에서는, 항상 더러운 것이 흘러나온다. 눈에서는 눈곱, 귀에서는 귀지.

(198)

코에서는 콧물, 입에서는 담즙을 내거나 가래를 뱉는다. 온 몸에서는 땀과 때를 배설한다.

(199)

또 그 머리는 빈곳(空洞)이 있고 뇌수로 차 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명(無名)에 이끌려서 그것을 깨끗한 것으로 안다.

(200)

또 죽어서 몸이 쓰러졌을 때에는 부어서 검푸르게 되고, 무덤에 버려져 친척도 그것을 돌보지 않는다.

(201)

개나 여우, 늑대, 벌레들이 파먹고, 까마귀나 독수리 같은 것이 쪼아 먹는다.

(202)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수행자는, 깨달은 사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완전히 이해한다. 왜냐하면, 그는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203)

‘저 죽은 시체도 살아 있는 이 몸뚱이와 같은 것이 있다. 살아 있는 이 몸뚱이도 죽은 저 시체처럼 될 것이다’고 안팎으로 몸에 대한 욕망에서 떠나야 한다.

(204)

이 세상에서 애욕을 떠난 지혜로운 수행자는, 죽지 않고 평안하고 멸하지 않는 열반의 경지에 도달했다.

(205)

인간의 이 몸뚱이는 부정하고 악취를 풍기어, 꽃이나 향으로 보호되고 있다. 온갖 오물이 가득 차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206)

이런 몸뚱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을 훌륭한 것으로 알고, 또 남을 업신여긴다면 그는 소경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 성인(聖人)

(207)

친한 데서 두려움이 생기고, 집안 살림살이에서 더러운 먼지가 낀다. 친함도 없고 살림살이도 없다면, 이것이 바로 성인의 깨달음이다.

(208)

이미 돌아난 번뇌의 싹을 잘라 버리고, 새로 심지 않고 지금 생긴 번뇌를 기르지 않는다면, 이 홀로 가는 사람을 성인이라 부른다. 저 위대한 선인(仙人)은 평안의 경지를 본 것이다.

(209)

번뇌가 일어나는 근본을 살피어 그 씨를 헤아려 알고, 그것에 집착하는 마음을 기르지 않는다면, 그는 참으로 생(生)을 멸해 구경(究竟)을 본 성인이 고, 망상을 버려 미궁에 빠진 자의 무리 속에 끼지 않는다.

(210)

모든 집착이 일어나는 곳을 알아 아무 것도 바라지 않고, 탐욕을 떠나 욕심이 없는 성인은 무엇을 하려고 구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피안(彼岸)에 다달았기 때문에.

(211)

모든 것을 이기고 온갖 것을 알며, 지극히 총명하고 여러 가지 사물에 더럽히지 않으며, 모든 것을 버리고 애착을 끊어 해탈한 사람, 어진 이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212)

지혜로운 힘이 있고, 계율과 맹세를 잘 지키고, 마음이 잘 집중되어 있고, 선정(禪定)을 즐기며, 생각이 깊고, 집착에서 벗어나 거칠지 않고, 번뇌의 때가 묻지 않은 사람, 어진 이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213)

홀로 걷고 게으르지 않은 성인,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고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은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은 연꽃처럼, 남에게 이끌리지 않고 남을 이끄는 사람, 어진 이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214)

남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 하거나 욕을 하더라도 수영장에 서 있는 기둥처럼 태연하고, 애욕을 떠나 모든 감각(感官)을 잘 가라앉힌 사람, 어진 이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215)

베 짜는 북처럼 똑바로 스스로 편안히 서서 모든 악한 행위를 싫어하고,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어진 이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216)

자제하여 악을 행하지 않고, 젊을 때나 중년이 되어서도 성인은 자신을 억제한다. 그는 남을 괴롭히지 않고, 남한테서 괴로움을 받지도 않는다. 어진 이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217)

남이 주는 것으로 생활하고 새 음식이거나 먹던 음식이거나 또는 남은 찌꺼기를 받더라도, 먹을 것을 준 사람을 칭찬하지도 않고 화를 내어 욕을 하지도 않는다면, 어진 이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218)

성의 접촉을 끊고, 어떠한 젊은 여자에게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며, 교만하지도 태만하지도 않은, 그래서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 어진 이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219)

세상을 잘 알고, 최고의 진리를 보고, 거센 흐름과 바다를 건넌 사람, 속박을 끊고 의존하지 않으며, 번뇌의 때가 묻지 않은 사람, 어진 이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220)

출가한 이와 집에 있는 이는 주소와 생활양식이 같지 않다. 집에 있는 이는 처자를 부양하지만, 계를 잘 지키는 이(출가자)는 무엇을 보아도 내 것이라는 집착이 없다. 집에 있는 이는 남의 목숨을 해치고 절제하기 어렵지만, 성인은 자제하고 항상 남의 목숨을 보호한다.

(221)

마치, 하늘을 나는 목이 푸른 공작새가 아무리 애를 써도 백조를 따를 수 없는 것처럼, 집에 있는 이는 세속을 떠나 숲속에서 명상하는 성인이나 수행자에게 미치지 못한다.

제2장 소품(小品)

－ 보배는 눈 뜬 사람 안에 있다

(222)

여기 모인 모든 귀신들은 지상의 것이건 공중에 있는 것이건 다들 기뻐하라.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내 말을 들으라.

(223)

귀신들이여, 귀를 기울이라. 밤낮으로 재물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함부로 하지 말고 그들을 지키라.

(224)

이 세상과 내세의 그 어떤 부(富)라 할지라도, 천상의 뛰어난 보배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완전한 사람(如來)에게 건줄 만한 것은 없다. 이 훌륭한 보배는 눈 뜬 사람(부처님)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 행복해라.

(225)

마음의 통일을 얻은 스승이 도달한 번뇌의 소멸, 이욕(離欲), 불사(不死), 뛰어난 것, 그 이치(理法)와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훌륭한 보배는 이치 속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해라.

(226)

가장 뛰어난 부처가 찬탄해 마지않는 청정한 마음의 안정을, 사람들은 <빈틈없는 마음의 안정>이라고 한다. 이 마음의 안정과 대등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뛰어난 보배는 그 이치 속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해라.

(227)

착한 사람들이 칭찬하는 여덟 가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네 쌍의 사람이다. 그들은 행복한 사람(부처님)의 신도이며 보시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베푸는 사람은 커다란 과보를 얻는다. 이 뛰어난 보배는 모임(승단)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해라.

(228)

굳은 결심으로 부지런히 일하고, 고오타마의 가르침에 따라 욕심이 없으며, 죽음이 없는 데에 들어가고, 도달해야 할 경지에 이르며, 보상 없이 얻어 평안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이 뛰어난 보배는 모임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해라

(229)

마치 성문 밖에 선 기둥이 땅속에 박혀 있으면,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모든 성스러운 진리를 관찰하는 착한 사람은 이와 같은 것이라고 나는 말한다. 이 뛰어난 보배는 모임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해라.

(230)

깊은 지혜를 가진 사람(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든 거룩한 진리를 똑똑히 아는 사람들은, 아무리 커다란 잘못에 빠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덟 번째 생존을 받지 않는다. 이 뛰어난 보배는 모임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해라.

(231)

자신을 실재(實在)라고 보는 견해와 의혹, 표면적인 계율, 맹세, 이 세 가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는 지견(知見)을 성취하는 동시에 그것들은 버려진다. 그는 네 가지 악한 곳을 떠나, 다시 여섯 가지 큰 죄를 범하지는 않는다. 이 뛰어난 보배는 모임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해라.

(232)

또 그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조그마한 나쁜 짓을 했다면, 그는 그것을 감추지 못한다. 궁극의 경지를 본 사람은 감출 수가 없다. 이 뛰어난 보배는 모임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해라.

(233)

초여름 더위가 숲속의 가지에 꽃을 피우듯이, 그에 비할 수 있는 평안에 이르는 묘법(妙法)을 눈뜬 사람이 가르치셨다. 이익이 되는 최상의 일들을 위해서. 이 뛰어난 보배는 눈뜬 사람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 행복해라.

(234)

뛰어난 것을 알고, 뛰어난 것을 주고, 뛰어난 것을 가져 오는 위없는 이가 으뜸가는 법을 설했다. 이 뛰어난 보배는 눈 뜬 사람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 행복하라.

(235)

목은 업은 이미 다 했고, 새로운 것은 생기지 않는다. 그 마음은 미래의 생존에 집착하지 않고, 종자를 없애고 그 성장을 원치 않는 어진 이들은 등불처럼 멸한다. 이 뛰어난 보배는 모임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 행복해라.

(236)

여기 모인 귀신들은 지상의 것이건 공중의 것이건, 신과 인간이 섬기는 이같이 완성된 눈 뜬 사람을 예배하자 행복해라.

(237)

여기 모인 귀신들은 지상의 것이건 공중의 것이건, 신과 인간이 섬기는 이같이 완성된 진리를 예배하자 행복해라.

(238)

여기 모인 귀신들은 지상의 것이건 공중의 것이건, 신과 인간이 섬기는 이같이 완성된 모임(승가)을 예배하자 행복해라.

- 비린 것

(239)

"수수, 덩굴라카, 치이나카 쿵, 잎열매, 구근(球根), 냉쿨열매를 선한 사람한테서 바르게 얻어 먹으면서 욕심 부리지 않고 거짓말을 안 한다.

(240)

맛 있게 잘 지어진 밥을 남한테 얻어서 입맛을 다시며 먹는 사람은 비린 것을 먹는다. 캣사파여.

(241)

범천의 친척(바라문)인 당신은 잘 요리된 새고기와 함께 쌀밥을 맛있게 먹으면서도 `나는 비린 것을 허락 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캣사파여, 나는 그 의미를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말한 비린 것이란 어떤 것인가를."

(242)

"산 것을 죽이는 일, 때리고 자르고 묶는 일, 흠치고 거짓말 하는 일, 사기와 속이는 일, 그릇된 것을 배우는 일, 남의 아내와 가까이 하는 일, 이것이 바로 비린 것이지 육식(肉食)이 그렇지 않다.

(243)

이 세상에서 욕망을 억제하지 않고, 맛있는 것을 탐내고, 부정한 생활에 어울리며, 허무론(虛無論)을 가지고 바르지 못한 행을 하는 완고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이것이 비린 것이지 육식이 그렇지 않다.

(244)

난폭하고 잔혹하며, 험담을 하고 친구를 배신하고 무자비하며, 몹시 오만하고 인색해서 아무 것도 남에게 주지 않는 사람들, 이것이 비린 것이지 육식이 그렇지 않다.

(245)

성내고 교만하고 고집스럽고, 반항심, 속임수, 질투, 허풍, 극단적인 오만, 불량배와 섞이는 일, 이것이 비린 것이지 육식이 그렇지 않다.

(246)

악질이라 빚을 갚지 않고, 밀고를 하고, 재판정에서는 위증을 하며, 정의를 가장하고 사악(邪惡)을 범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몹쓸 사람들, 이것이 비린 것이지 육식이 그렇지 않다.

(247)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생을 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도리어 그들을 해치려하고, 성미가 나빠 욕심 많고 난폭하며 무례한 사람들, 이것이 비린 것이지 육식이 그렇지 않다.

(248)

이것들(생물)에 대해 탐내고 배반하고 부당한 행동을 하고, 항상 나쁜 짓을 하려고 애쓰고, 죽어서는 암흑에 이르며, 머리를 거꾸로 치박고 지옥(地獄)에 떨어지는 사람들, 이것이 비린 것이지 육식이 그렇지 않다.

(249)

생선이나 고기를 먹지 않는 것도, 단식, 나체, 삭발, 결발(結髮), 먼지, 거친 사슴 가죽을 입는 것도, 화신(火神)을 섬기는 것도, 또는 불사(不死)를 얻기 위한 고행, 신주(神呪), 공양, 제사나 계절에 따른 고행도 모두 다 의혹을 넘어서지 않으면 그 사람을 청정하게 할 수 없다.

(250)

통로(여섯 개의 기관 = 6根)를 지키고 기관을 억제하며 행하라. 이치(理法) 안에서 편안히 서서 바르고 솔직한 것을 즐기고, 집착을 떠나 모든 고통을 버린 어진 이는 보고 듣는 것으로 더럽혀지지 않는다."

(251)

이와 같은 이야기를 거룩하신 스승 (과거 캣사파 부처님)께서는 되풀이해 말씀하셨다. 베에다의 신주(神呪)에 통달한 사람(바라문)은 그것을 알았다. 비린 것을 떠나 아무것에도 걸림이 없는, 그리고 뒤따르기 힘든 성인(부처님)은 여러 가지 시구로써 그것을 말씀하셨다.

(252)

눈 뜬 사람이 훌륭하게 가르치신 - 비린 것을 떠나 모든 고통을 제거한 - 말씀을 듣고, 그 바라문은 겸허한 마음으로 완전한 사람(如來)에게 예배하고, 그 자리에서 출가할 것을 원했다.

- 참된 친구와 우정

(253)

부끄러움을 모르거나 싫어하여 '나는 그대의 친구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능히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지 않는 사람은 '내 친구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254)

여러 친구들에게 실천되지 않을 말만을 그럴듯하게 하는 자는 '말뿐이지 실제로 행동하지 않을 자'임을 현자는 잘 알고 있다.

(255)

언제나 우정이 깨어질까 염려하는 마음에서 아첨하면서도 항상 친구의 결점만을 보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다. 아이가 어머니 품에 의지하듯이 그 사람에게 의지하며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사이가 벌어지는 일이 없는 사람이 참된 친구이다.

(256)

좋은 결과를 바라는 사람은 짐을 힘에 알맞게 적당히 지고, 기쁨을 낳고 찬양을 받으며 안락을 가져오는 원인을 닦는다.

(257)

멀어지고 떠나는 맛과 평안해지는 맛을 알고 법열을 맛보는 사람은 고뇌에서 떠나고 악에서 벗어나 있다.

- 최상의 행복

(258)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어느 날 거룩한 스승은 사아뱃티이의 제타 숲, 고독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장자의 동산에 계시었다. 그 때 용모가 단정한 한 신이 밤중이 지나 제타 숲을 두루 비추면서 스승께로 왔다. 그리고 예배한 후 한 쪽에 서서 시로써 여쭙었다.

"많은 신과 사람들은 행복을 바라면서 행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으뜸가는 행복을 말씀해 주십시오."

(259)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어진 이와 가깝게 지내며,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존경할

것, 이것이 위없는 행복이다.

(260)

자기에게 알맞은 곳에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았고, 스스로는 바른 서원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위없는 행복이다.

(261)

박학과 기술과 훈련을 쌓고, 그 위에 언변이 능숙한 것, 이것이 위없는 행복이다.

(262)

부모를 섬기는 것, 처자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 일에 질서가 있어 혼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위없는 행복이다.

(263)

보시와 이치에 맞는 행위와 친척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과, 비난을 받지 않는 행위, 이것이 위없는 행복이다.

(264)

악을 싫어해 멀리하고, 술을 절제하고, 덕행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위없는 행복이다.

(265)

존경과 겸손과 만족과 감사와, 때로는 가르침을 듣는 것, 이것이 위없는 행복이다.

(266)

인내하는 것, 온순한 것, 수행자들을 만나는 것, 때로는 이치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 이것이 위없는 행복이다.

(267)

수양과 깨끗한 행위와 거룩한 진리를 보는 것, 안정을 입증하는 것, 이것이 위없는 행복이다.

(268)

세상일에 부딪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걱정과 티가 없이 안온한 것, 이것이 위없는 행복이다.

(269)

이러한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이 닥쳐도 패하지 않는다. 어느 곳에서나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이 그들에 게는 위없는 행복이다.

— 탐욕과 혐오는 자신에게서 생긴다.

(269)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어느 날 거룩한 스승께서는 가야아의 탕키타 석상(石床)에 있는 수우

칠로오마 야차의 집에 계시었다. 그 때 두 야차가 스승이 계신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다. 카라 야차가 수우칠로오마 야차에게 말했다.

"그는 사문이다."

그러나 수우칠로오마 야차는 이렇게 말했다.

"그가 진정한 사문인지, 엉터리 사문인지를 내가 알 때까지는 그를 사문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수우칠로오마 야차는 스승께 가까이 갔다.

그러나 스승은 몸을 피하셨다. 그는 스승께 여쭙었다.

"사문이여, 당신은 나를 두려워하고 있군요."

"벗이여, 나는 너를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너와 부딪치는 것은 좋지 않다."

"사문이여, 당신에게 묻겠소, 만약 내 질문에 대답을 못하면, 당신의 마음을 산란케 하고 당신의 심장을 찢은 뒤, 다리를 붙들어 갠지스 강 건너로 내던지겠소."

"벗이여, 신, 악마, 범천을 포함한 세계에서 사문, 바라문, 신, 인간을 망라한 모든 산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산란케 하고 내 심장을 찢으며, 내 두 발을 잡아 갠지스 강 건너로 내던질 만한 자를 나는 아직 보지 못했다. 벗이여, 네가 묻고 싶은 것이 있거든 무엇이든 물어보라." 수우칠로오마 야차는 다음의 시로써 스승에게 물었다.

(270)

"탐욕과 혐오는 어떤 원인에서 생기는 것인가? 좋고 싫은 것, 소름끼치는 일은 어디서 생기는 것인가? 또 온갖 망상은 어디서 일어나 방심케 하는가? 마치 어린이들이 까마귀를 놓아 버린 것처럼."

(271)

"탐욕과 혐오는 자신에게서 생긴다. 좋고 싫은 것과 소름끼치는 일도 자신으로부터 생긴다. 온갖 망상도 자신에게서 생겨 방심케 된다. 마치 어린이들이 까마귀를 놓아 버린 것처럼. 그것들은 애착에서 일어나고 자신으로부터 나타난다. 마치 바니얀(榕) 나무의 어린싹이 가지에서 생기듯이. 널리 모든 욕망에 집착해 있는 것은 덩쿨이 숲속에 뻗어 있는 것과 같다."

(272)

야차여, 들어라. 번뇌가 어떤 원인으로 일어나는 것인지 아는 사람들은 번뇌를 버릴 수 있다. 그들은 건너기 어렵고, 아직 아무도 건넌 사람이 없는 이 거센 흐름을 건너서 다시는 더 몸을 받는 일이 없다."

— 쌀겨를 키질하듯

(274)

이치에 맞는 행동, 깨끗한 행동, 이것을 더 없는 보배라고 한다. 가령 집을 떠나 출가(出家)의 몸이 되었을지라도.

(275)

만약 거친 말씨를 쓰고 남을 괴롭히기 좋아하며 짐승 같다면, 그 사람의 생활은 더욱더 악해지고 더러워질 것이다.

(276)

논쟁을 즐기고 우매한 성미로 덮여 있는 수행자는, 눈 뜬 사람의 설법을 알아듣지 못한다.

(277)

그는 무명(無明)에 이끌려 수양을 쌓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번뇌가 지옥으로 가는 길임을 알지 못한다.

(278)

참으로 이러한 수행자는 고난의 장소에 태어나고, 모태에서 다른 모태로, 암흑에서 암흑으로 전생(轉生)하며, 죽은 후에도 고통을 받게 된다.

(279)

마치 똥구덩이가 세월이 지나면 똥으로 가득 차듯이, 부정한 사람은 참으로 깨끗이 하기 어렵다.

(280)

수행자들이여, 이와 같은 출가 수행자들은, 사실은 집에 기대고 있는 사람이고, 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며, 그릇된 생각과 행동을 하고 나쁜 곳에 있는 사람인 줄 알아라.

(281)

그대들은 화합해서 그런 사람을 물리치라. 찔거처럼 그를 키질하여 쓰레기처럼 날려 버려라.

(282)

그리고 사실은 사문이 아니면서 사문인 체하는 (쌀겨)들도 불어 버려라. 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그릇된 행동을 하며 나쁜 곳에 있는 그들을 불어 버려라.

(283)

스스로 깨끗한 이가 되고, 서로 동정심을 가지고 청정한 사람들과 함께 살도록 하라. 그곳에서 서로 사이좋게 총명하게, 그리고 고뇌를 없애도록 하라.

- 바라문에게 어울리는 일

(284)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어느 날 거룩한 스승께서는 사아밧티이의 제타 숲, 고독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베푸는 장자의 동산에 계시었다. 그 때 코오살라 나라에 사는 큰 부자인 바라문들이 - 그들은 늙어 쇠약해 있었지만 - 스승이 계신 곳에 가까이 와서 인사를 하였다.

서로 기억에 남을 만한 즐거운 인사를 나누더니 한편에 가서 앉았다.

큰 부호인 바라문들은 스승께 여쭙었다.

"고오타마시여, 대체 현재의 바라문들은 옛날 바라문들이 지켜 내려온 바라문의 법을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바라문이여, 지금의 바라문들은 예전 바라문들이 지켰던 바라문의 법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오타마시여, 별 지장이 없으시다면, 옛날 바라문들이 지켜 온 바라문의 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바라문들이여, 명심해 잘 들으시오. 내가 말을 해드리리다."

"듣겠습니다.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스승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옛 선인(仙人)은 자신을 억제하는 고행자였소. 그들은 오욕(五欲)의 대상을 버리고 자기의 참된 의(義)를 행하였소."

(285)

바라문들에게는 가축도 없었고, 황금도 곡식도 없었소. 그러나 그들은 베에다의 독송을 재보(財寶)로 삼고 곡식으로 삼아, 브라흐만의 창고를 지켰던 것이요.

(286)

그들을 위해 문간에 마련하여 놓은 음식을, 신도들은 바라문들에게 주려고 생각했소.

(287)

여러 가지로 아름답게 물들인 의복과 침상과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방과 나라 사람들은 모두들 바라문에게 경례했소.

(288)

바라문들은 법의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거나 눌러 이겨도 안 되었소. 그들이 문간에 서 있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었소.

(289)

옛날의 바라문들은 사십 팔년 동안 동정(童貞)의 청정행을 가졌소. 지(知)와 행(行)을 구했던 것이요.

(290)

바라문들은 다른 종족의 여자를 얻지 않았소. 또 그들은 아내를 사지도 않았소. 그저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살고 화목해 즐거워하였소.

(291)

함께 살면서 즐기고 있었지만, 바라문들은 아내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기를 제하고는, 월경(月經) 때문에 멀리해야 할 때에는 결코 성의 교섭을 갖지 않았소.

(292)

그들은 불음(不淫)의 행과 계율, 정직, 온순, 고행, 유회와 남을 해치지 않고 참는 것을 칭찬했소.

(293)

그들 중에서 용맹하고 으뜸가는 바라문들은 성의 교섭을 꿈꾸는 일도 없었소.

(294)

이 세상에 있는 일부 유식자들은 그들의 행동을 본받아 가며 불음과 계율과 인내를 찬탄했소.

(295)

쌀과 침구와 의복 , 제호(버터), 기름을 범답게 모아 그것으로 제사를 지냈소. 그들은 제사를 지낼 때에 결코 소를 잡지 않았소.

(296)

부모 형제 또는 다른 친척들과 마찬가지로 소는 우리들의 선량한 벗이요. 소한테서는 약이 생기요.

(297)

소에서 생긴 약은 식료품이 되어, 우리에게 기운을 주고 피부를 윤택하게 하며, 또 즐거움을 주요. 소에게 이러한 이익이 있음을 알아 그들은 소를 죽이지 않았던 것이요.

(298)

바라문들은 손발이 부드럽고 몸이 크며 용모가 단정하고 명성이 있으며, 자기 의무에 충실하여 할 일은 하고, 해서 안 될 일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소. 그들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 세상 사람들은 안락하고 번영했소.

(299)

그런데 그들에게 뒤바뀐 견해가 일어났던 것이요. 점점 왕자 같은 영화와 곱게 단장하고 화려하게 입은 부인들을 보게 됨에 따라.

(300)

또는 준마(駿馬)가 이끄는 홀륭함 수레, 아름다운 옷, 여러 가지로 설계되어 그 부분마다 잘 지어진 주택을 보고.

(301)

바라문들은 소의 무리가 번창하고 미녀들에 둘러 싸여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히고 말았소.

(302)

그래서 그들은 베에다의 신기로운 주문을 편찬하고, 저 감자왕(甘蔗王)에게 가서 말했소. '당신은 재산도 곡식도 풍성합니다. 제사를 지내십시오, 당신의 재산은 많습니다. 제사를 지내십시오, 당신의 재산은 많습니다.'

(303)

그래서 수레와 군사의 주인인 왕은 바라문들의 권유로 - 말에 대한 제사, 인간에 대한 제사, 투창(擲棒)에 대한 제사, 소오마에 대한 제사, 아무에게나 공양하는 제사 - 이러한 제사를 지

내고, 재물을 바라문들에게 주었소.

(304)

소 , 침구 , 의복, 아름답게 꾸민 여인과 준마를 단 좋은 수레며, 아름답게 수놓인 옷들.

(305)

쓸모 있게 잘 설계된 훌륭한 주택에, 여러 가지 식량을 가득 채워 바라문에게 주었소.

(306)

이리하여 그들은 재물을 얻었는데, 이번에는 또 그것을 저장하고 싶은 생각이 났던 것이요. 그들은 욕심에 사로잡혀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했소. 그래 그들은 또 베에다의 주문을 편찬하여 다시 감자왕을 찾아 갔었소.

(307)

‘물과 땅과 황금과 재물과 곡식이 생명 있는 사람들의 필수품이듯이, 소도 사람들의 필수품입니다. 제사를 지내십시오, 당신의 재산은 많습니다. 제사를 지내십시오, 당신의 재산은 많습니다.’

(308)

수레와 군사의 주인인 왕은 바라문들의 권유로 수백 수천 마리의 소를 제물로 잡게 되었소.

(309)

발이나 뿔, 그 밖에 무엇으로든지 해를 끼치지 않는 소는 양처럼 유순하고, 항아리가 넘치도록 젖을 짤 수 있었소. 그런데 왕은 뿔을 잡고 칼로 찢어서 소를 죽이게 했던 것이요.

(310)

칼로 소를 찢르자, 신들과 조상의 신령과 제석천, 아수라, 나찰들은 ‘불법한 일이다.’고 소리쳤소.

(311)

예전에는 탐욕과 굶주림과 늡음의 세 가지 병밖에는 없었소. 그런데 많은 가축들을 제사 지내기 위해 죽인 까닭에 아흔 여덟 가지나 되는 병이 생긴 것이요.

(312)

이와 같이 살생의 몽둥이를 부당하게 내려친다는 것은, 그 옛날부터 시작되어 지금에 이르렀다고 하오.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소를 죽였던 것이요. 제사를 지내던 사람은 이치를 거스르고 있었던 것이요.

(313)

이와 같이 예부터 내려온 이 좋지 못한 풍습은 지혜로운 이의 비난을 받아 왔소.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볼 때마다 제사지내는 이를 비난하게 되오.

(314)

이렇게 해서 법이 무너질 때, 노예(슈우드라)와 서민(바이샤)의 양자가 분열하고, 여러 왕족들이 흩어지고 아내는 지아비를 경멸하게 되었소.

(315)

왕족이나 법친의 친족(바라문) 또는 종성(種姓)의 제도에 의해 지켜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생(生)에 대한 말씀을 버리고 욕망에 사로잡히고 만 것이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큰 부자인 바라문들은 스승께 여쭙었다.

"훌륭한 말씀입니다. 고오타마시여. 훌륭한 말씀입니다, 고오타마시여. 마치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주듯이, 덮인 것을 벗겨 주듯이, 길 잃은 자에게 길을 보여 주듯이, 또는 `눈 있는 사람은 빛을 볼 것이다.'하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 주듯이, 당신 고오타마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당신께 귀의합니다. 그리고 진리와 수행승의 모임에 귀의합니다. 당신 고오타마께서는 오늘부터 목숨이 다할 때까지 귀의한 재속신자로서 저희들을 받아 주십시오."

— 튼튼한 배와 같이

(316)

누가 만일 남한테서 배워 이치를 알게 되었다면, 그 사람 섬기기를 마치 신들이 인드라신(帝釋天) 섬기듯 해야 한다. 학식이 풍부한 사람은 존경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진심으로 기뻐하며 진리를 보인다.

(317)

어진 이는 이것을 이해해서 듣고, 이치에 따라 가르침을 실천하고, 이러한 사람을 가까이하여 게으르지 않는다면 식자, 분별할 줄 아는 이, 총명한 이가 된다.

(318)

아직도 사물을 이해 못하고 질투심이 있는 소인이나 어리석은 이를 가까이 섬긴다면, 여기서는 이치를 알지 못하고 의심을 버리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른다.

(319)

마치 사람이 물이 많고 물결이 센 강에 빠지면, 그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과 같다. 그런 이가 어찌 남을 건네 줄 수 있겠는가?

(320)

그와 마찬가지로, 진리도 모르고 학식 많은 사람에게서 의(義)를 듣지 않으면, 스스로도 모르고 의심도 풀 수 없다. 그가 어찌 남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는가.

(321)

튼튼한 배를 타고 거기 노와 키가 있다면, 저을 줄 아는 경험자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태워서 건네 줄 수 있다.

(322)

배다에 통달하고 자신을 수양하고 많은 것을 배워 동요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가르침을 듣고 따르려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323)

그러므로 정말 지식이 있고 학식이 많은 성실한 사람과 가까이 하라. 사물을 알고 실천하면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안락을 얻으리라.

- 훌륭하게 설했던 진리에 따라 살라

(324)

어떠한 도덕이 있고, 어떠한 행동을 하며, 어떠한 행위를 부지런히 해야만, 바르게 서고 또 으뜸가는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325)

손위의 사람을 공경하고 시기하지 말며, 스승을 만나 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를 얻어서 설법을 지성으로 들어라.

(326)

고집을 버리고 겸허한 태도로 때를 맞추어 스승을 찾아 가라. 사물과 진리와 자제(自制)와 청정한 행동을 마음에 두고 이를 설명하라.

(327)

진리를 즐기고 진리를 기뻐하며, 진리에 머무르고 진리의 길을 알며, 진리를 비방하는 말을 입에 담지 마라. 훌륭하게 설했던 진리에 따라 생활하라.

(328)

웃음, 농담, 울음, 혐오, 거짓말, 사기, 탐욕, 오만, 격분, 난폭, 더러움, 탐닉을 버리고 교만을 떠나 자신을 안정시켜 행동하라.

(329)

훌륭한 설법은 들어서 이해하면 알맹이(精)가 된다. 듣고 안 것은 정신의 안정을 닦으면 알맹이가 된다. 사람이 성급하거나 게으르면 지혜도 학식도 늘지 않는다.

(330)

성인이 말씀하신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말과 생각과 행동이 가장 뛰어나다. 그들은 평안과 윤회와 명상 속에 머무르면서 학식과 지혜의 진수(眞髓)에 이른 것이다.

- 일어나 앉아라.

(331)

일어나라. 앉아라. 잠을 자서 너희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화살에 맞아 고통 받는 이에

게 잠이 웬 말인가?

(332)

일어나라. 앉아라. 평안을 얻기 위해 일념으로 배워라. 그대들이 게을러서 그 힘에 굴복한 것을 <죽음의 왕>이 알고, 그대들을 해매지 못하도록 하라.

(333)

신과 인간은 애착에 얽매어 무엇인가를 갖고자 한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낸 자는 지옥에 떨어져 슬피하기 때문이다.

(334)

게으름은 때와 같은 것, 때는 게으름 때문에 생긴다. 애써 닦음으로써, 또한 밝은 지혜로써 자기에게 박힌 화살을 뽑으라.

- 라아홀라 존자

(335)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라아홀라야, 늘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너는 어진 이(賢者)를 가볍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니냐? 모든 사람을 위해 햇불을 비춰주는 사람을 너는 존경하고 있느냐?"

(336)

라아홀라는 대답했다. "늘 함께 살고 있다고 해서 어진 이를 가볍게 보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햇불을 비춰 주는 사람을 저는 항상 존경합니다." (이상 序詩)

(337)

"사랑스럽고 즐거움이 되는 오욕의 대상 버리고, 믿음으로 집을 떠나 괴로움 없애는 사람이 되라.

(338)

선한 친구와 사귀어라. 인가(人家)를 떠나 깊숙하고 고요한 곳에서 거처하여라. 그리고 음식의 양을 아는 사람이 되어라.

(339)

옷과 얻은 음식과 병자를 위한 물건과 거처, 이런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다시는 세속에 돌아가지 마라.

(340)

게을이를 지키고 다섯 감각(5官)을 지켜 네 육신을 살피라. 참으로 세상을 지겹게 생각하라.

(341)

애욕 때문에 깨끗이 보이는 겉모양을 떠나 생각해라. 육신은 부정한 것이라고 마음에 새겨두

고, 마음을 하나로 집중시켜라.

(342)

마음에 자취(相)를 두지 마라. 마음에 도사린 오만을 버려라. 오만을 없앤 너는 마음 편안한 나날을 보내리라."

(343)

참으로 거룩한 스승은 라아홀라 존자에게 이와 같은 시로써 되풀이해 가르치셨다.

- 더위에 지친 사람이 물을 찾듯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거룩한 스승께서는 아알라비이에 있는 악가알라바 영수(靈樹) 밑에 계시었다. 그때는 방기이사 존자의 스승인 니그로오다캅파라는 장로가 그 나무 밑에서 죽은 지 얼마 안 되어서였다. 방기이사 존자는 홀로 앉아 명상에 잠겨 있다가 이런 생각을 하였다. '우리 스승은 정말로 돌아가신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 살아 계시까?' 방기이사 존자는 저녁 때가 되자 명상에서 깨어나 스승(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갔다. 거룩하신 스승께 절한뒤 한쪽에 가서 앉았다. 그는 스승께 여쭙었다.

"거룩하신 스승이시여, 제가 홀로 앉아 명상에 잠겨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스승은 정말로 돌아가신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 살아 계시는 것일까?' 하고요."

방기이사 존자는 일어서서 옷을 왼쪽 어깨에 걸치고 스승께 합장하더니, 다음 같은 시로써 사되었다.

"현세에서 모든 의혹을 끊고 위없는 지혜를 가지신 스승께 묻겠습니다. 세상에 알려지고 명망 높고 마음이 평안에 돌아간 수행자가 악가알라바에서 돌아가셨습니까.

(344)

스승님이여, 당신께서는 그 바라문에게 (니그로오다캅파)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오로지 진리만을 보신 분이시여, 그는 당신을 예배하고 해탈을 구하려 애를 써 정진했습니다.

(345)

석가님이여, 멀리 보시는 분이여, 저희들은 당신의 제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희 귀는 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저희 스승이십니다. 당신은 가장 뛰어난 분이십니다.

(346)

저희의 의혹을 풀어 주십시오. 이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혜 많은 분이시여, 그가 아주 죽었는지 아닌지를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천 개의 눈을 가진 제석천(帝釋天)이 신들에게 말하듯이. 널리 보시는 분이시여!

(347)

이 세상에 속박인 것은 해매는 길이고, 무지와 의심으로 인해서 있는 것이지만, 완전한 사람(如來)을 만나면 그런 것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것은 인간을 위한 으뜸가는 눈이기 때문입니다.

(348)

바람이 구름을 걷어 버리듯이, 사람(부처님)이 번뇌의 티끌을 털어버리지 않는다면, 온 세상은 뒤덮이어 암흑이 될 것입니다. 빛을 가진 사람들도 빛을 내지 못할 것입니다.

(349)

어진 이들은 세상을 비추는 분입니다. 어진 이여, 저는 당신을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당신이야말로, 사실로 보는 분으로 알고 이렇게 찾아 온 것입니다. 대중 속에서 저희들을 위해 니그로오다캅파에 대한 일을 밝혀 주십시오.

(350)

원컨대 선하고 미묘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백조가 목을 늘이고 천천히 우는 것처럼, 잘 다듬어진 원만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명심해서 들으리다.

(351)

생사를 남김없이 버리고, 악을 없애 버린 부처님께 청하여 가르침을 들읍시다. 범부들은 알고 싶고 말하고 싶은 것을 다할 수 없지만, 모든 완전한 사람은 마음먹은 대로 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52)

이 완전한 예언이 올바른 지자(智者)인 당신으로 인해 잘 보전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최후의 합장을 드립니다. 스스로는 알면서 말씀하지 않음으로써 저희를 방황케 하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분이시여!

(353)

이것저것 거룩한 이치를 알고 계시면서 저희를 방황케 하지 마십시오. 정진에 뛰어나신 분이여! 한여름 더위에 지친 사람이 물을 찾듯이, 저는 당신의 말씀을 갈구합니다. 말씀의 비를 내려 주십시오.

(354)

캅파아야나가 청정한 행으로써 이루려 했던 목적은 헛된 것이었습니까? 혹은 해탈한 사람처럼 소멸된 것입니까? 아니면, 생존의 근원을 남겨둔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스승은 대답했다.

(355)

"그는 이 세상 명칭과 형태에 대한 애착을 끊어버린 것이다. 오랫동안 빠져 있던 검은 악마의 흐름을 끊어 버린 것이다." 다섯 사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356)

"일곱 번째 선인(仙人)이여, 당신의 말씀을 듣고 저는 기뻐합니다. 제 물음은 헛되지 않았습니 다. 당신께서는 저를 속이지 않을 것입니다.

(357)

눈 뜬 사람의 제자인 니그로오다캅파는 말한 대로 실행하여, 사람을 속이는 죽음의 악마가 펼친 질긴 그물을 찢어 버렸습니다.

(358)

스승이시여, 캅파아야나는 집착의 뿌리를 보았습니다. 아아, 캅파아야나는 가장 건너기 어려운 사마(死魔)의 영역을 넘어선 것입니다.

— 수행자의 올바른 생활

(359)

"지혜가 많고, 강을 건너 피안(彼岸)에 이르러 완전한 열반을 얻고, 마음이 안락한 성인께 여쭙니다. 출가하여 여러 가지 욕망을 없앤 수행자는,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바르게 편력할 수 있습니까?"

(360)

스승은 말씀하셨다.

"길조의 점, 천지이변의 점, 해몽, 관상 보는 일을 완전히 버리고, 길흉의 판단을 버린 수행자는, 세상에서 바르게 편력할 것이다.

(361)

수행자가 생존을 초월하고 이치를 깨달아, 인간계와 천상의 모든 향락에 대한 탐욕을 버린다면, 그는 세상에서 바르게 편력할 것이다.

(362)

수행자가 두 가지 말을 버리고, 분노와 인색을 버리고 순역(順逆)의 생각을 떠난다면, 그는 세상에서 바르게 편력할 것이다.

(363)

좋아하는 것이나 좋아하지 않는 것이나 다 버리고, 아무것에도 집착하거나 매이지 않고 온갖 속박에서 벗어난다면, 그는 세상에서 바르게 편력할 것이다.

(364)

그가 생존을 이루고 있는 요소 가운데서 견고한 실체를 보지 못하고, 모든 집착에 대한 탐욕을 삼가며, 얽매임이 없어 아무것에도 이끌리지 않는다면, 그는 세상에서 바르게 편력할 것이다.

(365)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거역하지 않고, 바르게 법을 알아 열반의 경지를 구한다면, 그는 세상에서 바르게 편력할 것이다.

(366)

수행자가 `그는 나를 숭배한다'하면서 거만해 하지 않고, 욕을 먹더라도 마음에 두지 않으며, 남에게서 음식을 얻었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으면, 그는 세상을 바르게 편력할 것이다.

(367)

수행자가 탐욕과 생존의 희망을 버리고, 다른 생물을 자르거나 묶지 않고, 의혹을 넘어서 번뇌의 화살을 뽑아 버린다면, 그는 세상에서 바르게 편력할 것이다.

(368)

수행자가 자기 분수에 알맞은 것을 알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해치지 않고 사실 그대로 이치를 안다면, 그는 세상에서 바르게 편력할 것이다.

(369)

그에게 있어서 어떤 잠재적인 집념도 없이 악한 뿌리가 뿌리째 뽑히고, 바라는 것도 구하는 것도 없다면, 그는 바르게 세상을 편력할 것이다.

(370)

번뇌의 때는 이미 가시고, 거만한 생각을 쉬고 모든 탐욕의 길을 넘어 스스로 억제하고 평안에 이르러 마음에 안정이 온다면, 그는 바르게 세상을 편력할 것이다.

(371)

신심이 있고 학식이 있는 어진 이가 궁극의 경지에 이르는 결정된 길을 보고, 여러 당파 사이에 있으면서도 당파에 맹종하지 않으며, 탐욕과 혐오와 분노를 삼간다면, 그는 바르게 세상을 편력할 것이다.

(372)

청정한 행으로써 번뇌를 이긴 승리자이며, 덮여 있는 것을 벗겨 모든 사물을 지배하고, 피안에 이르러 흔들리지 않고, 생존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잘 인식한다면, 그는 바르게 세상을 편력할 것이다.

(373)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고, 지극히 깨끗한 지혜가 있어 모든 변화하는 현상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으면, 그는 바르게 세상을 편력할 것이다.

(374)

궁극의 경지를 알고, 이치를 깨달아 번뇌의 때를 씻는 것을 보고, 모든 생존을 구성하는 요소를 멀해 버린 까닭에, 그는 세상을 바르게 편력할 것이다."

(375)

"거룩하신 스승이시여,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생활하고 스스로 자제하는 수행자는 온갖 속박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는 바르게 세상을 편력할 것입니다."

- 수행자의 품행 재가자의 품행

(376)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어느 날 거룩한 스승께서는 사아밧티이의 제타 숲, 고독한 사람에게 음식을 베푸는 장자의 동산에 계시었다. 그 때 담미카라는 재가(在家) 신도가 오백 명의 신도들과 함께 스승께로 와서 예배한 뒤 한쪽에 앉았다. 담미카는 시로써 부처님께 여쭙었다. "지혜가 넓은 고오타마시여, 당신께 묻습니다. 가르침을 받으려는 사람은 출가하는 것과 집에서 믿는 것과 어느 쪽이 더 좋은 것입니까?"

(377)

당신께서는 신들을 포함한 이 세계의 귀취(歸趣)와 궁극의 목적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미묘한 일을 보는 데는 당신을 따를 이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뛰어난 눈 뜬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378)

당신께서는 널리 깨달으시고, 살아 있는 모든 것을 가없이 여겨, 지식과 이치를 말씀하십니다. 널리 보시는 분이시여, 당신께서는 세상에 덮인 것을 벗겨 주시고, 티 없이 온 세상을 비추십니다.

(379)

에라아바나라고 부르는 코끼리 왕은 당신이 승자임을 듣고 당신께로 왔었습니다. 그도 당신의 말씀을 듣고는 '참, 좋구나!' 하면서 기뻐 돌아갔습니다.

(380)

비사문 천왕인 쿠베라도 가르침을 듣고자 당신께 왔었습니다. 어지신 분이여, 그가 물었을 때도 당신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도 또한 당신 말씀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381)

아아지이비카 교도이건 자이나 교도이건 논쟁을 즐기는 어떤 이교도일지라도, 모두 지혜로써는 당신을 당할 수 없습니다. 마치, 서 있는 사람이 달리는 사람을 따를 수 없는 것같이.

(382)

논쟁을 즐기는 어떠한 바라문이라도, 그가 노년 또는 중년이나 청년인 바라문일지라도, 혹은 '나야말로 논객(論客)이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까지도, 다들 당신의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383)

스승이시여, 당신께서 말씀하신 이치는 미묘하고 또 한 안락을 가져 옵니다. 원컨대 저희들에게도 설해 주십시오. 위없이 눈 뜬 분이시여.

(384)

출가 수행자들과 재가 신도들은 눈 뜬 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 모였습니다. 티 없는 사람(눈 뜬 사람)이 깨닫고 가르치는 법을 듣기 위해서. 마치, 신들이 인드라 신의 말을 듣는 것처럼

럼."

(385)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수행자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번뇌를 없애는 이치를 그대들에게 말하겠노라. 그대들은 모두 그것을 잘 지키라. 뜻을 보는 지혜로운 이는 출가한 사람에게서 그 행동을 배우고 행하라.

(386)

수행자는 때가 아닌데 돌아다니지 마라. 정해진 시각에 탁발을 하러 마을에 가라. 때가 아닌데 다니면 집착에 얽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눈뜬 사람들은 때가 아닌데 나다니지 않는다.

(387)

모든 빛 ,소리 ,냄새 ,맛 , 촉감은 사람을 도취시킨다. 이런 것에 대한 욕망을 삼가고, 정해진 시각에 아침밥을 얻으러 마을에 들어가라.

(388)

그리고 수행자는 정해진 때에 얻은 밥을 가지고 홀로 그늘에 앉아라. 자신을 자제하고 안으로 돌이켜, 마음이 밖으로 쏠리게 해서 안 된다.

(389)

만일,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나 다른 수행자들과 함께 이야기 할일이 있거든, 그 사람에게 훌륭한 진리를 보여 주어라. 이간하는 말이나 남을 비방해서는 안 된다.

(390)

사실 어떤 사람들은 비방하는 말에 반발한다. 것처럼 웅졸한 사람을 우리는 칭찬하지 않는다. 논쟁의 집착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 그들을 속박하므로 방심하게 된다.

(391)

지혜가 뛰어난 사람(부처님)의 제자는 행복한 사람(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음식과 거처와 침구와 가사(袈裟)의 때를 세탁할 물을 조심해서 사용하라.

(392)

그러므로 수행자는 음식을 씻고 침구와 가사를 세탁할 물에 집착해 더럽히는 일이 없다. 마치 연꽃잎에 구르는 물방울처럼.

(393)

다음은 재가자가 해야 할 일을 말하리라. 이와 같이 실행하는 사람은 좋은 가르침을 듣는 사람이다. 순수한 출가 수행자에 대한 규정은, 소유의 번거로움이 있는 사람이 지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394)

산 것을 몸소 죽여서는 안 된다. 또 남을 시켜 죽여서도 안 된다. 그리고 죽이는 것을 보고 목인해도 안 된다. 난폭한 것을 두려워하는 모든 생물에 대해서 난폭을 거두어야 한다.

(395)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주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또 어디에 있든, 그것을 갖지 마라. 남을 시켜 가지거나 남이 가지는 것을 목인하지도 마라. 주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가져서는 안 된다.

(396)

슬기로운 사람은 음행(淫行)을 회피하라. 타오르는 불구덩이를 피하듯. 만일 불음(不淫)을 닦을 수가 없더라도, 남의 아내를 범해서는 안 된다.

(397)

집회의 장소에 있든 단체에 있든 간에, 누구도 남에게 거짓말을 해서 안 된다. 남에게 거짓말을 시켜도 안 된다. 또 남이 거짓말 하는 것을 목인해도 안 된다. 모든 허망한 말을 하지 않는다.

(398)

또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이 불음주의 가르침을 기뻐하는 재가자는 남에게 술을 마시게 해도 안 된다. 남이 술 마시는 것을 목인해서도 안 된다. 이것은 마침내 사람을 취하게 하고 미치게 하는 것임을 알라.

(399)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취함으로써 나쁜 짓을 하고, 또한 남들로 하여금 게으르게 하고 나쁜 짓을 하게 한다. 이 불행의 원인을 회피하라. 그것은 사람을 취하게 하고 미치게 하며 어둡게 하는 것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를 즐기는 것이다.

(400)

첫째, 살아 있는 것은 해치지 마라. 둘째,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마라. 셋째, 거짓말을 하지 마라. 넷째, 술을 마시지 마라. 다섯째, 부정한 짓인 음행을 떠나라. 여섯째, 밤에는 음식을 먹지 마라.

(401)

일곱째, 화환을 걸치지 마라. 향수를 쓰지 마라. 여덟째, 땅위에 펼친 자리 위에서만 자라. 이것이야말로 여덟 부분으로 된 우포오사타(齋戒)이다. 괴로움을 없애 버린 부처가 가르친 바이니라.

(402)

그리고 각각 보름 동안 제14일, 15일, 제8일에 우포오사타를 닦으라. 또 특별한 달에는 여덟 부분으로 된 원만한 우포오사타를 청정한 마음으로 행하라.

(403)

우포오사타를 행한 식자(識者)는 청정하게 가라앉은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이튿날 아침 일찍 수행자에게 음식을 베풀어 주어라.

(404)

법답게 얻은 재물을 가지고 부모를 섬기라. 올바른 장사를 하라. 이와 같이 열심히 살고 있는 재가자는 죽은 후에 <저절로 빛이 난다>는 신들 곁에 태어나리라.

제3장 대품(大品)

- 출가는 넓은 들판으로 나가는 것

(405)

눈이 있는 사람(부처님)은 어찌서 출가를 했는지, 그는 무엇을 생각한 끝에 출가를 기뻐했는지, 그의 출가에 대해서 나는 이야기하리라.

(406)

‘집에서 사는 것은 비좁고 번거로우며, 먼지가 쌓이는 곳이다. 그러나 출가는 널찍한 들판이며 번거로움이 없다’고 생각해 출가한 것이다.

(407)

출가한 다음에는 몸으로 짓는 나쁜 행위를 멈추었다. 말로서 짓는 악행(惡行)도 버리고, 아주 깨끗한 생활을 하였다.

(408)

눈 뜬 사람은 마가다 나라의 서울, 산으로 둘러싸인 왕사성(王舍城)으로 갔다. 뛰어난 모습을 가진 그는 탁발하기 위해 그곳으로 간 것이다.

(409)

마가다 왕 빘비사아라는, 높은 다락 위에서 그를 보았다. 뛰어난 모습을 가진 그를 보고 신하들에게 말했다.

(410)

"그대들은 저 사람을 보아라. 아름답고 건장하고 깨끗할 뿐 아니라, 행동도 얌전하게 앞만을 본다.

(411)

그는 눈을 아래로 뜨고 정신을 차리고 있다. 저 사람은 천한 집 출신이 아닌 것 같다. 사신들이여, 뛰어가 그를 따르라. 저 수행자는 어디로 가는가."

(412)

왕의 사신들은 그의 뒤를 따라 갔다. "저 수행자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는 어디에 사는 것

일까?"하면서.

(413)

그는 모든 감각을 억제하여 잘 지키고 바르게 깨닫고 조심하면서 집집마다 음식을 빌어 잠깐 동안에 바리때를 채웠다.

(414)

거룩한 분은 탁발을 끝내고 그 도시 밖으로 나와 판다바산으로 향했다. 아마 그는 그 곳에 살고 있는 모양이다.

(415)

고오타마가 자기의 처소에 가까이 이른 것을 보자 사신들은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 그리고 한 신하는 왕궁으로 돌아가 왕에게 아뢰었다.

(416)

"대왕이시여, 그 수행자는 판다바산 앞쪽에 있는 굴속에 호랑이나 황소처럼, 그리고 사자처럼 앉아 있습니다."

(417)

사신의 말을 듣자 빔비사아라 왕은 화려한 수레를 타고 판다바산으로 길을 재촉했다.

(418)

왕은 수레로 갈수 있는 곳까지 달려간 뒤 수레에서 내려 걸어 올라가 그 곁에 앉았다.

(419)

왕은 기뻐하면서 인사를 나눈 후 이렇게 말했다.

(420)

"당신은 젊음이 넘친 인생의 봄입니다. 용모도 수려하고 귀한 왕족 태생인 것 같습니다.

(421)

코끼리 떼를 앞세운 날쌔 군대를 정비해서 나는 당신께 선물로 드리겠으니 그것을 받으십시오. 나는 당신의 태생을 알고 싶으니 말해 주십시오."

(422)

"왕이여, 저쪽 히마라야 중턱에 한 민족이 있습니다. 예부터 코오살라 나라의 주민으로 부(富)와 용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423)

성은 <태양의 후예>라 하고, 종족은 <석가족>이라 합니다. 왕이여, 나는 그런 집에서 출가했습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424)

모든 욕망에는 우환이 있고, 출가는 안온하다고 알아 힘써 정진합니다. 내 마음은 이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 보라, 이 마음과 몸의 깨끗함을!

(425)

네란자라아강 기슭에서 평안을 얻기 위해 힘써 닦고 명상하는 나에게,

(426)

악마 나무치는 위로의 말을 건네며 다가왔다. "당신은 야위었고 안색이 나쁩니다. 당신은 죽음에 임박해 있습니다.

(427)

당신이 죽지 않고 살 가망은 천에 하나입니다. 당신은 살아야 합니다. 생명이 있어야만 모든 착한 일도 할 수 있으므로.

(428)

당신이 베에다를 배우는 사람으로서 청정한 행을 하고 성화(聖火)에 제물을 올리는 고행을 쌓는다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429)

애써 정진하는 길은 가기 힘들고 행하기 힘들며 도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같은 시를 읊으면서 악마는 눈뜬 분 곁에 섰다.

(430)

악마가 이렇게 말하자,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게으름뱅이의 친척이여, 악한 자여, 그대는 세상의 선업(善業)을 구해서 여기에 왔지만,

(431)

내게는, 세상의 선업을 찾아야 할 필요는 털끝만치도 없다. 악마는 선업의 공덕을 구하는 자에게 가서 말하라.

(432)

내게는 믿음이 있고, 노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 이처럼 전심하는 나에게 너는 어찌하여 생명의 보전을 묻는가?

(433)

애쓰는 데서 일어나는 이 바람은 강물도 마르게 할 것이다. 오로지 수도에만 정진하는 내 몸의 피가 어찌 마르지 않겠는가.

(434)

몸의 피가 마르면 쓸개도 가래침도 마를 것이다. 살이 빠지면 마음은 더욱더 밝아지리라. 내 생각과 지혜와 순일한 마음은 더욱더 편안하게 될 것이다.

(435)

나는 이토록 편안히 살고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내 마음은 모든 욕망을 돌아 볼 수가 없다. 보라, 이 마음과 몸의 깨끗함을!

(436)

너의 첫째 군대는 욕망이고, 둘째 군대는 혐오이며, 셋째 군대는 기갈, 넷째 군대는 애착이다.

(437)

다섯째 군대는 권태와 수면, 여섯째 군대는 공포, 일곱째 군대는 의혹, 여덟째 군대는 길치레와 고집이다.

(438)

잘못 얻은 이득과 명성과 존경과 명예와 또한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경멸하는 것.

(439)

나무치여, 이것들은 너의 병력(兵力)이다. 검은 악마의 공격군인 것이다. 용감한 사람이 아니면 그를 이겨낼 수가 없다. 용자는 이겨서 즐거움을 얻는다.

(440)

내가 문자풀을 입에 물 것 같은가? (적에게 항복 할 것 같은가) 이 세상의 생은 달갑지 않다. 나는 패해서 사는 것보다는 싸워서 죽는 편이 오히려 낫겠다.

(441)

어떤 수행자(비구)나 바라문들은 너의 군대에게 패해 버리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덕 있는 사람들의 갈 길조차 알지 못한다.

(442)

병력이 사방을 포위하고 악마가 코끼리를 탄 것을 보았으니, 나는 그들을 맞아 싸우리라. 나로 하여금 이곳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라.

(443)

신들도 세상 사람도 너의 병력을 꺾을 수 없지만, 나는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깨뜨린다. 마치 굵지 않은 흙 단지를 돌로 깨뜨려 버리듯이

(444)

스스로 사유(思惟)를 자제하고 신념을 굳게 하고 이 나라 저 나라로 편력할 것이다. 여러 제자들을 거느리고.

(445)

그들은 내 가르침을 실행하면서 게으르지 않게 노력하고 있다. 그곳에 가면 근심할 것이 없고, 욕망이 없는 경지에 그들은 도달하리라."

(446)

악마는 말했다.

"우리들은 칠년 동안이나 그(부처님)를 한발 한발 따라 다녔다. 그러나 항상 조심하고 있는 정각자(正覺者)에게는 뛰어든 틈이 없었다.

(447)

까마귀가 기름 빛깔을 한 바위의 돌레를 맴돌며 '이곳에서 말랑말랑한 것을 얻을 수 없을까? 맛있는 먹이가 없을까?' 하며 날아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로.

(448)

그곳에서 맛있는 것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까마귀는 날아 가버렸다. 바위에 가까이 가본 그 까마귀처럼, 우리는 지쳐서 고오타마를 떠나간다."

(449)

근심에 잠긴 악마의 옆구리에서 비파(琵琶)가 툭 떨어졌다. 그만 그 야차는 기운 없이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 훌륭하게 말해진 것

(450)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어느 날 거룩한 스승 부처님께서 사아밧티이의 제타 숲, 고독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 주는 장자의 동산에 계시었다. 그때 스승은 여러 사문들을 불렀다. "사문들이여."

"거룩하신 스승이시여."하고, 사문들은 스승께 대답했다.

스승께서는 말씀하시었다.

"사문들이여, 네 가지 특징을 갖춘 말씀은 훌륭하게 설해져 조금도 잘못되지 않았다. 모든 지자(智者)들이 보아도 결점이 없어 비난 받지 않을 것이다. 그 네 가지란 무엇인가? 사문들이여, 여기서 사문이 훌륭하게 설한 것만을 말하고, 잘못 설해진 것을 말하지 않으며, 법만을 말하고 비법을 말하지 않으며, 좋은 것만 말하고 좋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으며, 진실만을 말하고 거짓된 것을 말하지 않는다고 하자. 사문들이여, 이 네 가지 특징이 갖추어져 있는 말은 훌륭하게 설해진 말이고 잘못 설해진 것이 아니다. 모든 지자들이 보아도 결점이 없어 비난 받지 않을 것이다."

이같이 말씀하신 후, 행복한 사람인 스승께서는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착한 사람들은 가장 좋은 말씀을 한다. 이것이 첫째다. 법을 말하고 비법을 말하지 마라. 이것이 둘째다. 좋은 말을 하고 좋지 않은 말을 하지 마라. 이것이 셋째다.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마라. 이것이 넷째다."

이 때 방기이사 장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한쪽 어깨에 걸치고 스승이 계신 곳을 향해 합

장하고 말했다.

"문득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행복한 분이시여."

"어디 말해보라. 방기이사여."라고, 스승은 말씀하셨다. 방기이사 장로는 스승 앞에서 알맞은 시로써 스승을 찬탄했다.

(451)

"`자기를 괴롭히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는 말만을 하여라.'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잘 설해진 말씀입니다.

(452)

`좋은 말만을 하여라.' 이것은 기꺼이 환영받을 말입니다. 느낌이 나쁜 말을 쓰지 말고 남의 맘에 드는 말만을 하는 것입니다.

(453)

진실은 참으로 불멸(不滅)의 말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법칙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진실에, 사물에, 또는 이치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454)

평안에 이르기 위해서,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부처님이 설하신 말씀은 여러 말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것입니다."

- 출생을 묻지 말고 행위를 물으라.

(455)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코오살라 나라 순다리카아 강변에 살고 계셨다. 마침 그때 바라문인 순다리카, 바아라드바아자는 순다리카아 강변에서 성화(聖火)를 받들어 불에 공양하고 있었다. 그런데 바라문인 그는 불에 공양이 끝나자 자리에서 일어나 사방을 두루 살피면서 말했다.

"이 공양의 나머지를 누구에게 줄까?"

그는 머지않은 곳에 거룩한 스승이 나무 아래서 머리까지 옷을 둘러쓰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왼손에는 공양의 나머지를 들고, 바른 손에는 물병을 들고 스승께로 갔다. 스승은 그의 발소리를 듣고 머리에 돌렸던 것을 벗었다. 순다리카, 바아라드바아자는, `이분은 머리를 깎고 계신다. 이분은 삭발한 분이다'하며, 되돌아가려고 했다. 그러다가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설사 머리를 깎았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바라문일 수도 있다. 가까이 가서 그의 출신을 물어 보리라.' 그는 스승께 가까이 가서 물었다.

"당신의 출신은 무엇입니까?"

스승은 바라문인 순다리카, 바아라드바아자에게 시로써 말씀하셨다.

"나는 바라문도 아니고 왕자도 아니요. 나는 바이샤족 사람도 아니고, 다른 아무 것도 아니요. 모든 범부의 성(姓)을 잘 알고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생각하면서 세상을 두루 다니요.

(456)

나는 중의(重衣)를 걸치고 집이 없으며, 수염과 머리를 깎고 마음을 편안히 하고, 세상 사람들

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거닐고 있소. 바라문이여, 당신이 내게 성을 묻는 것은 당치 않소."

(457)

"여보시오, 바라문이 바라문을 만났을 때에는 `당신은 바라문이 아닙니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 자신이 바라문이거든 바라문이 아닌 내게 대답하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세 구절 스물 넷자로 된 저 사아비트리이 찬가(讚歌)를 묻겠소."

(458)

"이 세상에서 선인(仙人)이나 왕족, 바라문이나 일반인들은 무엇 때문에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까?"

스승께서 대답하셨다.

"궁극에 이른 베에다에 통달한 사람이 제사 때 어떤 세속인의 헌공(獻供)을 받는다면, 그 사람의 제사는 성취한 것이요."

(459)

바라문이 말했다.

"나는 베에다에 뛰어난 사람을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대한 나의 헌공은 성취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해 다른 사람이 남은 제물을 먹었습니다."

(460)

스승께서 말했다.

"그러므로 바라문이여, 당신은 의로운 사람으로 의를 구해 왔으니 가까이 와서 물으시오. 아마도 이곳에서 평안하고 성념의 연기가 사라져, 괴로움과 욕심이 없는 총명한 사람을 만날 것이요."

(461)

"고오타마시여, 저는 제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또, 제사를 지내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똑똑히 알지를 못합니다.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무엇에 바치는 헌공이 효과가 있는가를."`그럼 바라문이여, 귀를 기울이시오. 나는 당신에게 법을 설하리다.

(462)

출생을 묻지 말고 행위를 물으시오. 불은 온갖 쉼에서 일어나는 것, 천한 집에 태어난 사람이라도, 성인으로 도심(道心)이 굳고, 부끄러워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행동을 삼가면 고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463)

진실을 가지고 자제하고 모든 감각을 억제하며, 베에다의 깊은 뜻을 통달하고 청정한 행을 닦는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양을 바치시오. 복과 덕을 구하는 바라문은 그들을 공양해야 합니다.

(464)

모든 욕망을 버리고 집 없이 걸으며, 자기 분수를 잘 알아 억제하고, 베틀의 복처럼 곧은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양을 바치시오. 복덕을 구하는 바라문은 그들을 공양하시오.

(465)

탐욕을 떠나 모든 감각을 조용히 지키고, 달이 라아후의 장애에서 빠져 나가듯이 걸림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양을 바치시오. 복덕을 구하는 바라문은 그들을 공양하시오.

(466)

집착하는 일 없이 항상 마음을 다스려 내 것이라고 고집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을 거니는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양을 바치시오. 복덕을 구하는 바라문은 그들을 공양해야 합니다.

(467)

모든 욕망을 버리고 욕심을 이겨 생사의 끝을 알고 평안에 돌아가, 맑고 시원한 호수처럼 완전한 사람(如來)은 공양을 받을 만합니다.

(468)

완전한 사람(如來)은 평등한 자(과거에 눈이 열린 사람들, 여러 부처님들)와 같고, 평등하지 않은 사람과는 멀리 떨어져 있소. 그는 끝없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서 때가 묻지 않소. 완전한 사람은 공양을 받을 만합니다.

(469)

거짓과 교만과 탐욕을 떠나 내 것이라고 집착하거나 욕망과 성냄이 없어, 마음 고요히 근심의 때를 버린 바라문인 완전한 사람은 공양을 받을 만합니다.

(470)

마음의 집착을 이미 끊고 아무것에도 붙들리지 않으며,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서나 걸림이 없는 완전한 사람은 공양을 받을 만합니다.

(471)

마음을 한결같이 안정하여 거센 흐름을 건너고, 가장 뛰어난 지혜로써 법을 알고, 번뇌의 때를 소멸해 최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완전한 사람은 공양을 받을 만합니다.

(472)

생존의 더러움과 거친 말씨도 없어져 버렸소. 그는 베에다에 통한 사람이고, 모든 일에 대해 해탈하였소. 완전한 사람은 공양을 받을 만합니다.

(473)

집착을 넘어 집착이 없고, 교만한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교만한 마음이 없으며, 밭이나 땅과 함께 괴로움을 잘 알고 있는 완전한 사람은 공양을 받을 만합니다.

(474)

욕망에 끌리지 않고 멀리 떠나는 것을 보고, 남들이 가르치는 다른 견해를 초월하여 아무것에도 걸리지 않은 완전한 사람은 공양을 받을 만합니다.

(475)

이것저것 모든 사물을 깨달아 이미 그것이 제거되고 존재하지 않소. 평안에 돌아가 집착을 버리고 해탈한 완전한 사람은 공양을 받을 만합니다.

(476)

번뇌의 속박과 이 세상의 생존을 멸해 버린 궁극의 경지를 보고, 애욕의 길을 남김없이 끊고 청정해서, 결점과 티가 없이 투명한 완전한 사람은 공양을 받을 만합니다.

(477)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고 인정하지 않으며, 마음이 안정되고 신체가 곧아, 스스로 편히 머물러 동요하지 않으며, 마음이 거칠지 않고 의혹이 없는 완전한 사람은 공양을 받을 만합니다.

(478)

해매(迷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장애는 아무것도 없고, 온갖 것에 대해 지견(知見)이 있으며, 최후의 몸을 가지고 위없는 깨달음을 얻은- 이것만으로도 사람은 깨끗해진다.- 완전한 사람은 공양을 받을 만합니다.'

(479)

`당신과 같은 베에다에 뛰어난 사람을 만났으니, 저의 제물은 참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범천(梵天)께서 증인이 되어 살펴 주십시오. 스승이시여, 원컨대 저에게서 받아 주십시오. 스승이시여, 저의 공양을 받아 주십시오."

(480)

"시를 읊어 얻은 것을 나는 먹을 수 없소. 바라문이여, 이것은 바르게 보는 사람들 (눈뜬 사람들, 모든 부처님들)의 법이 아니오. 시를 읊어 얻은 것을 눈뜬 사람들은 물리치오. 바라문이여, 이것이 바로 눈 뜬 사람들의 생활 규범이오.

(481)

완전한 사람인 위대한 선인(仙人), 번뇌의 때와 악행(惡行)을 소멸한 사람에게는 다른 음식을 바치시오. 그것이야말로 공덕을 바라는 이의 복 받이기 때문이오."

(482)

"스승이시여, 저 같은 사람은 보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제사 때 찾아가 공양을 드릴 사람을, 저는 당신의 가르침을 받아 알고 싶습니다."

(483)

"걱정을 떠나 마음에 흐름이 없고, 모든 욕망을 벗어나 근심을 없앤 사람.

(484)

한계의 끝(변뇌)을 눌러 생사를 다 알고, 성인의 덕성을 몸에 갖춘 그러한 성인이 제사를 위해 왔을 때,

(485)

그에게 눈썹을 찌푸리지 말고 함장하여 예배하시오. 음식을 가지고 그를 공양하시오. 이러한 보시는 뜻을 이루게 되고 그 과보를 가져 오는 것이오."

(486)

"눈을 뜬 당신은 공양을 받기에 마땅합니다. 당신은 으뜸가는 복 받고 온 세상의 보시를 받으실 분입니다. 당신께 드린 물건은 커다란 과보를 가져 올 것입니다."

바라문인 순다리카 바아라드바아자는 스승께 말씀드렸다.

"훌륭하십니다, 고오타마시여. 훌륭하십니다, 고오타마시여. 마치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주듯이, 가려진 것을 벗겨 주듯이, 방향을 잃은 자에게 길을 가리켜 주듯이, 그리고 `눈 있는 이는 빛을 보리라' 하면서 암흑 속에서 등불을 비쳐 주듯이, 고오타마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을 보여 주셨습니다. 저는 고오타마 당신께 귀의합니다. 그리고 법과 수행승의 모임에 귀의합니다. 저는 고오타마께 출가하고 완전한 계율(具足戒)을 받겠습니다."

그리하여 바라문 순다리카 바아라드바아자는 스승께 출가하고 완전한 계율을 받았다. 그러더니 얼마 후에 이 장로 순다리카 바아라드바아자는 홀로 멀리 떠나 게으르지 않고 애써 정진 끝에 더없이 청정한 행의 궁극-모든 선남자들이 바로 그것을 얻기 위해 집을 떠나 집 없는 상태에 들어가는 것인데-을 이 세상에서 스스로 깨닫고, 이를 증명하고 구현하며 세월을 보냈다.

`태어나는 일은 끝났다. 청정한 행은 이미 완성되었다. 할 일을 다 마쳤다. 이제 두 번 다시 이런 생을 받지는 않는다.'고 깨달았다. 그래서 순다리카 바아라드바아자 장로는 성인의 한 사람이 되었다.

- 자기를 다스리는 이에게 공양하라

(487)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어느 날 거룩하신 스승께서는 왕사성의 독수리 봉(鷲峰)에 계시었다. 그 때 마아가 청년은 스승이 계신 곳으로 가서 인사를 드렸다. 기쁘고 기억할 만한 인사를 나눈 뒤 한옆에 앉더니 스승께 말했다.

"고오타마시여, 저는 참으로 베푸는 사람이며, 관대하여 구하는 바에 응하며, 법에 따라 재물을 구합니다. 그리고는 법에 의해서 얻은 재물을 한 사람에게도 주고, 두 사람에게도 주고,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여섯 사람, 일곱, 여덟, 아홉, 열 사람, 스무 사람, 설흔, 마흔, 원 사람에게도 주고, 백 사람에게도 주며, 더 많은 사람에게도 나누어 줍니다.

고오타마시여, 내가 이렇게 주고 이와 같이 바친다면 얼마나 많은 복덕을 얻겠습니까?"

"젊은이여, 그대가 참으로 주고 그와 같이 바친다면, 많은 복덕을 얻게 되리라. 젊은이여, 누구든지 참으로 주는 시주이거나, 관대하여 구하는 바에 응하며, 법에 따라 재산을 얻어 그 재산으로 하여금 한 사람내지는 백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은 많은 복덕을 얻게 되리라."

마아가 청년은 시로써 여쭙었다. 마아가 청년이 말했다.

(487)

"가사를 입고 집 없이 다니는 너그러우신 스승 고오타마께 저는 묻겠습니다.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데 따르는 재가(在家)의 시주, 복덕을 구하고 복덕을 위해 공양을 바치고, 이 세상에서 남에게 음식을 주는 사람이, 제사를 지낼 때에는 누구에게 바치는 제물이 가장 깨끗합니까?"

(488)

스승은 대답하셨다.

"마아가여, 시물(施物)을 구하는 데에 따르는 재가의 시주, 복덕을 구하고 복덕을 위해 공양을 바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남에게 음식을 베푸는 것으로써 받을 사람들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한다."

(489)

마아가 청년은 말했다.

"시물을 구하는 데 따르는 재가의 시주, 복덕을 구하고 복덕을 위해 공양을 바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남에게 음식을 베풀 때에, 마땅히 보시를 받을 사람을 제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스승이시여."

(490)

"참으로 집착 없이 세상을 걸어가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자기를 다스리는 완전한 사람, 그들에게 때때로 공양을 바쳐라. 복덕을 구하는 바라문은 그들을 공양하라.

(491)

모든 결박을 끊고 자제하고 해탈하여 괴로움과 욕심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양을 바쳐라. 복덕을 구하는 바라문은 그들을 공양하라.

(492)

모든 결박에서 벗어나 자제하고 해탈하여 괴로움과 욕심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양을 바쳐라. 복덕을 구하는 바라문은 그들을 공양하라.

(493)

탐욕과 혐오와 미망(迷妄)을 버리고 번뇌의 더러움에서 벗어나 청정한 행을 닦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양을 바쳐라. 복덕을 구하는 바라문은 그들을 공양하라.

(494)

거짓도 없고 교만도 없고, 탐욕을 떠나 내 것이라고 집착하지도 않고, 욕망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양을 바쳐라. 복덕을 구하는 바라문은 그들을 공양하라.

(495)

참으로 온갖 애착에 붙잡히지 않고, 이미 거센 흐름을 건너 내 것이라는 집착이 없이 다니는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양을 바쳐라. 복덕을 구하는 바라문은 그들을 공양하라.

(496)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어떠한 세상에 있어서도 갖가지 생존에 대한 애착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양을 바쳐라. 복덕을 구하는 바라문은 그들을 공양하라.

(497)

모든 욕망을 버리고 집 없이 다니며 자신을 억제하고 베틀의 복처럼 똑 바른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양을 바쳐라. 복덕을 구하는 바라문은 그들을 공양하라.

(498)

탐욕을 떠나 모든 감관을 안정시켜 달이 월식에서 벗어나듯이 붙들리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양을 바쳐라. 복덕을 구하는 바라문은 그들을 공양하라.

(499)

평안에 돌아가고 탐욕을 떠나 성내지 않으며, 이 세상에서 생존의 모든 요소를 버리고, 갈 길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양을 바쳐라. 복덕을 구하는 바라문은 그들을 공양하라.

(500)

생과 사를 남김없이 버리고 모든 의혹을 넘어 선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양을 바쳐라. 복덕을 구하는 바라문은 그들을 공양하라.

(501)

자기를 델타(洲 =의지처)로 하여 세상을 다니고 아무 것도 가진 것 없이 모든 일로부터 해탈한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양을 바쳐라. 복덕을 구하는 바라문은 그들을 공양하라.

(502)

‘이것이 마지막 생존이고 다시는 생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 세상에서 똑똑히 알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양을 바쳐라. 복덕을 구하는 바라문은 그들을 공양하라.

(503)

베에다를 잘 알고, 고요한 마음을 즐기며, 생각이 깊고, 깨달음을 얻어 많은 사람을 귀의시킨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양을 바쳐라. 복덕을 구하는 바라문은 그들을 공양하라."

(504)

"참으로 제 질문은 헛되지 않았습니니다. 참으로 보시 받을 사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스승이시여, 당신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이 세상에서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당신께서는 이 이치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505)

마아가 청년이 다시 말했다.

"보시를 받고자 하는 데에 응하는 제가의 시주, 복덕을 구하고 복덕을 위해 공양을 바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남에게 음식을 줄 때, 완전한 제사가 어떤 것인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스승님."

(506)

거룩한 스승은 대답하셨다.

"마아가여, 제사를 지내라.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마음을 깨끗이 하여라. 제사 지낼 사람이 전심할 일은 오로지 제사뿐이다. 그는 여기에 편안히 머물러 사악(邪惡)을 버린다."

(507)

그는 탐욕에서 떠나 사악(邪惡)을 누르고 한량없는 자비심을 일으켜 밤낮으로 게으르지 않아서 그 마음이 사방에 가득 차게 한다."

(508)

"누가 깨끗해지고 해탈하는 것입니까? 누가 붙들려 얽매일 것입니까? 무엇으로 인해 사람은 스스로 범천계(梵天界)에 이릅니까? 성인이시여, 몰라서 묻는 것이니 일러 주십시오. 스승이시여, 저는 지금 범천을 눈앞에 보았습니다. 진실로 당신은 범천과 같은 분이십니다. 빛을 지닌 이시여, 어떻게 하면 범천계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509)

스승은 대답하셨다.

"마아가여,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완전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람은 보시 받는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 보시에 응하는 사람이 이처럼 바르게 제사를 지낸다면 범천계에 태어날 것이다."

(510)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마아가 청년은 스승께 아뢰었다.

"훌륭하십니다, 고오타마시여.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고오타마시여, 마치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듯이, 덮인 것을 벗겨 주듯이, 길 잃은 사람에게 길을 가리켜 주듯이, 그리고 눈 있는 사람은 빛을 볼 것이다'하며 암흑 속에서 등불을 비쳐 주듯이, 고오타마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고오타마께 귀의합니다. 그리고 진리와 수행승의 모임에 귀의합니다. 오늘부터 목숨이 다할 때까지 스승 고오타마께서는 저를 집에 있는 신도로서 받아 주십시오."

— 편력의 행자 사비야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어느 날 거룩하신 스승께서는 왕사성 죽림원(竹林園)에 있는 다람쥐 사육장에 머물고 계시었다. 그 때 편력 중인 수행자 사비야에게 옛 혈연자(血緣者)인 한 신(神)이 말했다.

"사비야여, 사문이건 바라문이건 그대가 질문을 했을 때 분명히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 그대는 그 밑에서 깨끗한 행을 닦아라."

편력의 수행자 사비야는 그 신에게서 그와 같은 말을 배워 가지고 다음의 여섯 스승을 찾아가 물었다. 즉, 푸우라나 캣사파, 막카리 고오사아라, 아지타 케에사캄바리, 파쿠타 캣차아야나, 베랏티 족의 아들인 산자야, 나아타 족의 아들 니칸타 등인데, 그들은 사문이나 바라문으로서 많은 무리들을 이끄는 단체의 스승이었다. 명성을 떨치고, 교파(敎派)의 교조이며, 많은 사람 들로부터 선인(善人)이라고 숭배를 받고 있었다. 그들은 편력의 수행자 사비야에게서 질문을 받았지만, 만족하게 답변을 하지 못했다. 그 뿐 아니라, 화를 내고 혐오와 근심의 빛을 감추지 못했으며, 도리어 사비야에게 반문을 했다. 그래서 사비야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많은 무리를 이끄는 단체의 스승이며, 명성이 있고, 교파의 교조로서 많은 사람 들로부터 숭배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내게서 질문을 받고도 만족스런 대답을 못했다. 뿐만 아니라, 화를 내고 혐오와 근심의 빛을 감추지 못했으며, 내게 도리어 반문을 했다. 나는 그만 집으로 돌아가 세속적인 욕망이나 누릴까 보다.' 그러다가 사비야는 다시 이렇게 생각했다. '여기 계신 사문 고오타마도 많은 무리를 거느린 단체의 스승이시며, 명성이 있고, 교파의 교조로서 많은 사람 들로부터 선인이라 숭배를 받고 있다. 고오타마를 찾아가 물어 봐야겠다.' 그러면서 사비야는 이런 생각도 했다. '여기 있는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연만해서 아주 늙은이 들이지만, 상좌에 있고 경험을 쌓았으며 출가한 지가 꽤 오래 되었다. 그런데도 내게 해답을 못해 주었는데, 어찌 사문 고오타마가 내 물음에 똑똑히 답해줄 수 있을까? 사문 고오타마는 아직 젊고 출가한지도 오래 되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사비야는 또 이렇게 생각했다. '사문을 젊다고 해서 우습게보거나 경멸해서는 안 된다. 그는 젊지만 사문이다. 그에게는 큰神通(神通)과 위력이 있다. 나는 고오타마에게 가서 물어 보리라.' 그리하여 사비야는 왕사성을 향해 길을 떠났다. 죽림원 다람쥐 사육장에 계시는 거룩한 스승을 뵈었다. 기쁘고 기억에 남을 만한 인사를 나눈 뒤 한 곁에 앉았다. 사비야는 스승께 시로써 여쭙었다. "의혹이 있어 질문하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저를 위해 그 의혹을 풀어 주십시오. 제가 물으면 차례대로 법에 따라 분명히 대답해 주십시오."

(511)

스승께서는 대답하셨다.

"당신은 질문을 하려고 멀리서 왔소. 당신을 위해 그것을 풀어 주리다. 당신이 물으며 차례대로 법에 따라서 분명하게 대답해 주겠소.

(512)

사비야여, 무엇이든 마음에 있는 것을 물어 보시오. 나는 낱낱이 물음에 대답해 드리리다."

(513)

이 때 사비야는 생각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정말 희한한 일이다. 내가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에게서는 들을 기회조차 얻지 못했는데, 사문 고오타마께서는 그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는 기뻐하면서 스승께 여쭙었다.

사비야가 물었다.

"무엇을 얻은 사람을 수행승이라 부릅니까? 무엇에 의해 온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신을 억제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어찌서 눈 뜬 사람이라 부릅니까? 스승이시여, 이것을 제게 설명해 주십시오."

(514)

스승은 대답했다.

"사비야여, 스스로 도를 닦아 완전한 평안에 이르고, 의혹을 뛰어 넘으며, 생존과 쇠멸(衰滅)을 버리고 청정한 행에 머물러 이 세상에 거듭 태어나지 않는 사람, 그를 수행승이라 합니다.

(515)

모든 일에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혀 이 세상 아무것에도 해를 끼치지 않으며, 흐름을 건너 더럽히지 않고 욕정이 일어나지 않는 사문, 그를 온유한 사람이라 합니다.

(516)

온 세상에서 안팎으로 모든 감관을 수양하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싫어 멀리하며, 죽을 때를 기다리며 수양하는 사람, 그는 자기를 억제한 사람입니다.

(517)

모든 우주시기(宇宙時期)와 윤회와 목숨이 있는 자의 생과 사, 그 두 가지를 사유 분별하여 티끌을 털어 버리고, 깨끗하게 생을 멸해 버린 사람, 그를 눈뜬 사람이라 합니다."

(518)

그 때 사비야는 스승의 말씀을 듣고 몹시 기뻐하면서 환희한 마음으로 다시 스승께 물었다. 사비야가 여쭙었다.

"무엇을 얻은 사람을 바라문이라 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사문이라 합니까? 왜 목욕하는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어째서 용(龍)이라고 부릅니까? 스승이시여, 제 물음에 대답해 주십시오."

(519)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사비야여, 모든 악을 물리치고 때 묻지 않고, 마음을 잘 가라앉혀 스스로 안정하며, 윤회를 넘어서 완전한 자가 되어 걸림이 없는 사람, 그를 <바라문>이라 합니다.

(520)

평안에 돌아가 선과 악을 버리고 때 묻지 않으며,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알고 생과 사를 초월한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사문>입니다.

(521)

온 세상에서 안팎으로 모든 죄악을 씻어 버리고, 시간의 지배를 받는 신과 인간 속에 살면서도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 그를 <목욕하는 사람>이라 부릅니다.

(522)

세상에 있으면서 어떠한 죄악도 짓지 않고 온갖 매듭의 얽힘을 풀어 버리고 모든 것에서 해탈한 사람, 이런 사람을 <용>이라 합니다."

(523)

그 때 편력의 행자 사비야는 스승의 말씀을 듣고 몹시 기뻐하면서 환희한 마음으로 또다시 스승께 물었다.

사비야는 여쭙었다.

"모든 눈 뜬 사람(부처님)은 누구를 밭의 승자(勝者)라 부릅니까? 무엇을 가지고 출중하다 합니까? 어째서 현자(賢者)입니까? 어떻게 해서 성인이라 불릅니까? 스승이시여, 제 물음에 대답해 주십시오."

(524)

스승께서 대답하셨다.

"사비야여, 하늘의 밭, 사람의 밭, 범천의 밭 등, 모든 밭을 분별하고 모든 밭의 근본인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그 때문에 <밭의 승자>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525)

하늘의 광(藏), 사람의 광, 범천의 광 등, 모든 광을 분별하고 모든 광의 근본인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그 때문에 <출중한 사람>이라 불립니다."

(526)

내외(內外) 양면에서 흰 것을 분별하여 청정한 지혜가 있고, 흑과 백(善惡法)을 초월한 사람, 이런 사람은 바로 그 때문에 <현자>라 불립니다."

(527)

온 세상에서 안팎으로 정사(正邪)의 법을 알고, 인간과 신의 숭배를 받아 집착의 그물을 벗어난 사람, 그는 <성인>입니다."

(528)

그 때 편력의 행자(行者) 사비야는 스승의 말씀 듣고 기뻐하며 환희한 마음으로 다시 스승께 질문했다.

사비야가 여쭙었다.

"무엇을 얻은 이를 베에다에 통달한 사람이라 부릅니까?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경책(警策)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태생이 좋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스승이시여, 저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529)

스승께서 대답하셨다.

"사비야여, 사문이나 바라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베에다를 잘 분별해서 모든 감수(感受)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그 감수마저 초월한 사람, 그는 <베에다에 통달한 사람>입니다."

(530)

안팎으로 병의 근원이 되는 망상의 명칭과 형태를 알아서, 온갖 병의 근원인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 그런 사람은 바로 그 때문에 <달관한 사람>이라 불리웁니다."

(531)

이 세상에서 모든 죄악을 떠나 지옥의 고통을 초월하고 경책하는 사람, 힘을 다해 정진하는 현자, 그런 사람이 <경책하는 사람>이라 불립니다.

(532)

안팎으로 집착의 근원인 모든 속박을 잘라 버리고, 온갖 집착의 근원인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 그러한 사람은 바로 그 때문에 <태생이 좋은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533)

그 때 편력의 행자 사비야는 스승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가득 찬 마음으로 다시 스승께 질문했다. 사비야가 물었다.

"무엇을 얻은 사람을 박식(博識)한 사람이라 부릅니까? 무엇에 의해 거룩하게 됩니까? 또 어떻게 해야만 행(行)이 갖추어진 사람이 됩니까? 편력의 행자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스승이시여, 저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534)

스승께서는 말씀하셨다.

"사비야여, 가르침을 듣고 나서는, 세상의 옳고 그른 모든 이치를 잘 알고, 모든 일의 정복자, 의혹이 없는 사람, 해탈한 사람, 괴로움이 없는 사람을 <박식한 사람>이라 부릅니다.

(535)

모든 더러움과 장애를 끊고 지혜로운 이는 모태(母胎)에 들지 않습니다. 세 가지 생각과 더러움을 털어 버리고 망상 분별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성인>이라 부릅니다.

(536)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할 일을 다 하고 뛰어나 항상 이치를 알며, 어떤 일에도 집착하지 않고, 해탈하여 성냄이 없는 사람, 그를 <행이 갖추어진 사람>이라 부릅니다.

(537)

위로나 아래로, 또는 옆으로나 가운데로 모름지기 괴로움의 과보가 생기는 행위를 피하여, 잘 알아 행하고 거짓과 교만한 마음과 탐욕과 성냄과 명칭과 형태를 없애 버리고, 얻을 것을 얻은 사람, 그를 <편력의 행자>라 부릅니다."

(538)

그 때 편력의 행자 사비야는 스승의 말씀을 듣고 몹시 기뻐하면서 환희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옷옷을 한편 어깨에 걸치고, 스승께 합장하며 알맞은 시로써 스승을 찬탄하였다.

"사문들의 논쟁에 휘말린 명칭과 문자와 표상(表象)에 의해 일어난 예순 세 가지 이설(異說)을 이기고, 지혜 많은 분은 거센 흐름을 건너셨습니다.

(539)

당신은 괴로움을 모두 없애고 피안(彼岸)에 이른 분입니다. 당신은 참 사람이시고 깨달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번뇌의 때를 씻어버린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신은 빛이 있고, 이해 있고, 지혜가 많습니다. 괴로움을 없앤 분이시여, 당신은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540)

당신은 저에게 의혹이 있는 것을 아시고, 저를 의혹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저는 당신께 예배드립니다. 성인이지여, 성인의 길을 다하신 분이여, 마음이 거칠지 않은 태양의 후예지여, 당신은 인자하십니다.

(541)

제가 예전에 품었던 의문을 당신께서는 똑똑히 밝혀 주셨습니다. 눈이 있는 이여, 성인이지여, 참으로 당신은 깨달으신 분입니다. 당신에게는 장애되는 것이 없습니다.

(542)

당신의 번민은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당신은 청량(淸涼)하고 몸을 절제하고 견고하며 성실하게 사시는 분입니다.

(543)

코끼리 중에 왕이시며 위대한 영웅이신 당신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모든 신들은 나아라다와 팜바타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544)

존귀하신 분이시여, 당신께 예배드립니다. 가장 뛰어난 분이시여, 당신께 예배드립니다. 신들을 포함한 온 세상에서 당신에게 견줄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545)

당신을 깨달은 분입니다. 당신은 스승이십니다. 당신은 악마를 정복한 분이여 현자이십니다. 당신은 번뇌의 숨을 힘을 끊고 스스로 건너섰고, 또 사람들을 건너 주십니다.

(546)

당신은 속박을 넘어섰고, 모든 번뇌의 더러움을 없앴습니다. 당신은 집착하는 일이 없는 사자입니다. 두려워 떠는 일이 없으십니다.

(547)

아름다운 흰 연꽃이 더러운 물에 물들지 않듯이, 당신은 선악의 어느 것에도 물들지 않습니다. 용감한 분이시여, 두발을 뻗으십시오. 사비야는 스승께 예배드립니다."

(548)

편력의 행자 사비야는 거룩하신 스승의 두 발에 머리를 대고 절을 하며 말했다.

"훌륭한 일입니다, 거룩한 스승이지여. 훌륭한 일입니다, 거룩한 스승이지여. 마치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주듯이, 덮인 것을 열어 보이듯이, 길 잃은 이에게 길을 가리켜 주듯이, 또는 `눈

있는 사람은 빛을 보리라'하며 암흑 속에서 등불을 비추어 주듯이, 거룩하신 스승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을 밝혀 주셨습니다. 저는 당신 고오타마께 귀의합니다. 그리고 진리와 수행승의 모임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승이시여, 저는 스승께 출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계율을 받고 싶습니다."

"사비야여, 과거에 이교도이었던 자가 내 가르침과 계율에 따라 출가하여 완전한 계율을 받고자 한다면, 그는 너 달 동안 따로 살아야 합니다. 너 달이 지난 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여러 수행자는 그를 출가시키고, 완전한 계율을 받게 해서 수행승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사람에 따라 그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스승이시여, 그러시다면 저는 너 달이 아니라 네 해 동안이라도 따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사년이 지나 이제는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 수행승들은 저를 출가시키고 완전한 계율을 받게 하여 수행승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편력의 행자 사비야는 그 때 바로 스승 앞에 서 출가하여 완전한 계율을 받았다. 그 후 얼마 안 가서 이 장로 사비야는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홀로 살며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정진하다가, 마침내 다시없는 깨끗한 행의 궁극-모든 선남자들은 그것을 얻고자 집을 나와 집 없는 상태에 이르렀지만-을 현세에서 스스로 깨달아 증명하고 구현하며 세월을 보냈다. '태어나는 일은 끝났다. 청정한 행은 이미 완성됐다. 할 일을 다 했다. 이제 다시 이러한 생존을 받지는 않는다' 함을 깨달았다. 그리고 사비야 장로는 성인의 한 사람이 되었다.

- 나는 위없는 진리의 왕이다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어느 때 스승께서는 수행승 천 이백 오십 인과 함께 앙굿타라아파를 두루 다니시다가 아아파나라고 하는 앙굿타라아파의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머리 탄(結髮) 행자 케니야는 생각했다. '석가 족의 아들인 사문 고오타마는 석가 족의 집에서 출가하여, 수행승 천 이백 오십 인의 큰 무리를 이끌고 앙굿타라아파를 편력하다가 아아파나에 이르렀다. 그 고오타마에게는 다음과 같은 좋은 소문이 있다. 즉 그는 참사람, 깨달은 사람, 지혜와 행을 갖춘 사람, 행복한 사람, 세상을 알아버린 사람, 위없는 사람, 사람들을 길들이는 이(御者), 신과 인간의 스승, 눈 뜬 사람, 거룩한 스승이라고 불린다. 그는 스스로 깨닫고 증명하여 신, 악마, 범천을 포함한 이 세계와 사문, 바라문, 신, 인간을 포함하는 모든 살아 있는 것들에게 가르침을 베푼다. 그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고, 글과 뜻이 잘 갖추어진 가르침과 원만하고 청정한 행을 설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토록 훌륭하고 존경받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머리 탄 행자 케니야는 스승이 계신 곳으로 가서 인사를 드렸다. 기쁘고 기억할만한 인사를 나눈 후에 한편에 가 앉았다. 스승께서는 머리 탄 행자 케니야에게 법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지도하시고, 용기를 주어 기쁘게 해 주셨다. 케니야는 스승께 이같이 말씀드렸다.

"고오타마께서는 수행승의 무리와 함께 내일 제가 올리는 음식을 받아 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스승은 케니야에게 말씀하셨다.

"케니야여, 수행승의 무리는 많아서 천 이백 오십 인이나 됩니다. 또 당신은 바라문들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케니야는 거듭 스승께 여쭙었다.

"고오타마시여, 수행승의 무리는 천 이백 오십 인이나 되고, 또 저는 바라문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오타마께서는 수행승들과 함께 내일 제가 올리는 음식을 받아 주십시오."

스승은 케니야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케니야여, 수행승의 무리는 많아서 천 이백 오십 인이나 되며, 당신은 바라문들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케니야는 세 번째 스승께 여쭙었다.

"고오타마시여, 수행승의 무리는 많아서 천 이백 오십 인이나 되며, 또 저는 바라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오타마께서는 그들과 함께 오셔서 제가 올리는 음식을 받아 주십시오."

스승께서는 침묵으로써 승낙하셨다. 케니야는 스승께서 승낙하신 것을 알고, 자리에서 떠나 자기의 암자로 갔다. 그리고는 친구와 친척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나는 사문 고오타마를 그 수행승의 무리와 함께 내일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나를 도와주십시오."

케니야의 친구와 친척들은 승낙하고, 어떤 이는 술을 걸고 나무를 쪼개며, 어떤 이는 그릇을 씻고 독에 물을 길어다 붓고 혹은 자리를 준비했다. 그리고 케니야 자신은 흰 막을 친 원당(圓堂)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 때 세에라 바라문은 아아파나에 살고 있었는데, 그는 3베에다의 깊은 뜻을 깨달아 어휘, 활용론, 음운론, 어원론과 제4의 아타르바 베에다와 제5 고담(古譚)의 어귀(語句)와 문법에 통달하고, 순세론(順世論)과 위인의 관상에 통달했으며, 삼백 명의 소년에게 베에다를 가르치고 있었다. 케니야는 세에라 바라문을 신봉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 그 때 세에라 바라문은 삼백 명의 소년들에게 둘러 싸여 있었다. 오래 앉아 있었기 때문에 생긴 피로를 풀기 위해 여기저기 산책을 하다가 케니야의 암자에 가까이 갔었다. 세에라 바라문은 케니야의 암자에 사는 머리 땅은 행자들이, 어떤 이는 술을 걸고 나무를 쪼개며, 어떤 이는 그릇을 씻고 독에 물을 길어다 붓고 혹은 자리를 준비하며, 케니야는 몸소 원당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는 케니야에게 물었다.

"케니야, 당신 아들이 장가라도 가는 것입니까? 혹은 딸이 시집이라도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큰 제사가 있습니까? 또는 마가다왕 세니야 빔비사아라가 군대를 이끌고 내일 식사라도 하러 오게 돼 있습니까?"

"세에라시여, 저는 아들을 장가보내지도 않고 딸을 시집보내지도 않으며, 또 마가다왕 세니야 빔비사아라를 초대하지도 않았습시다. 다름이 아니라, 제게는 머지않아 큰 제사가 있습니다. 석가 족의 아들인 사문 고오타마가 석가 족의 집에서 출가하여 양곳타라야 파나라를 두루 다니다가 그를 따르는 수행승 천 이백 오십 인과 함께 아아파나에 오셨습니다. 그 고오타마에게는 이런 좋은 소문이 따르고 있습니다. 즉, 그 스승은 참사람, 깨달은 사람, 지혜와 행을 갖춘 사람, 행복한 사람, 사람을 길들이는 이, 신과 인간의 스승, 눈뜬 사람, 거룩한 스승이라고들 합니다. 저는 그분을 수행승과 함께 내일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케니야여, 당신은 그를 눈 뜬 사람이라 부릅니까?"

"세에라여, 나는 그를 <눈뜬 사람>이라 부릅니다."

"케니야여, 당신은 그를 <눈뜬 사람>이라 부릅니까?"

"세에라여, 나는 그를 <눈뜬 사람>이라 부릅니다."

그 때 세에라 바라문은 생각했다. `눈 뜬 사람이란, 이 세상에서 그 목소리를 듣기조차 힘든 일이다. 그런데 우리들 성전(聖典)속에 위인의 상(相)이 서른 두 개가 전해지고 있다. 그것을 갖추고 있는 위인에게는 단 두 가지 길이 있을 뿐 다른 길은 있을 수 없다. 만일 그가 재가(在家)의 생활을 한다면, 그는 전륜왕(轉輪王)이 되어 정의를 지키는 법왕, 사방의 정복자로서 국토백성을 안정시키고 칠보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바퀴(輪)라는 보배, 코끼

리, 말, 구슬, 여자, 재산 그리고 지휘자라는 보배가 따를 것이다. 또 그에게는 천 명 이상의 아들이 있어 모두가 용감무쌍하며 외적을 쳐부순다. 그는 이 대지(大地)를 사해(四海)의 끝에 이르기까지 무력을 쓰지 않고 정의로써 정복하고 지배한다. 그러나 그가 만일 집을 떠나 출가자가 된다면 참사람, 깨달은 사람이 되어 이 세상 온갖 번뇌의 가림을 없앨 것이다."

세에라는 케니야에게 물었다.

"케니야여, 그럼 그 참사람, 깨달은 사람인 고오타마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케니야는 바른 팔을 들어 세에라 바라문에게 말했다.

"세에라여, 저쪽으로 가면 푸른 숲이 있습니다. 그 곳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리하여 세에라 바라문은 삼백 명의 소년들과 함께 스승이 계신 곳으로 갔다. 그 때 세에라 바라문은 같이 온 바라문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천천히 걸어 소리를 내지 말고 따라 오너라. 모든 스승은 사자처럼 홀로 거니는 분이며, 가까이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사문 고오타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너희들은 중간에 참견을 해서는 안 된다. 내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세에라 바라문은 거룩하신 스승이 계신 곳으로 갔다. 스승께 절을 하고 나서 기쁘고 기억할 만한 인사를 나눈 뒤 한편에 가 앉았다. 그리고 세에라 바라문은 스승의 몸에 서른두 가지 위인의 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폈다. 그는 스승의 몸에서 단 두 가지 상을 내놓고 서른 두 가지 위인의 상이 거의 갖추어져 있음을 보았다. 그 두 가지 상은 그것이 과연 스승께 있는지 없는지 의심되어 <눈뜩 사람>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 두 가지란 몸의 막(膜) 속에 들어있는 음부(隱部)와 광장설상(廣長舌相)이었다. 그 때 스승은 생각했다. '이 세에라 바라문은 내 몸에 있는 서른두 가지 위인의 상을 거의 보았지만, 단 두 가지는 보지 못했다. 몸의 막 속에 들어 있는 음부와 광장설의 두 위인상은 그것이 과연 내게 있는지 없는지 의심하고, 눈뜩 사람임을 믿지 않는구나.' 그래서 스승께서는 세에라 바라문이 몸의 막 속에 들어 있는 음부를 볼 수 있도록神通(神通)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혀를 내밀어 헛바닥으로 양쪽 귓속을 아래위로 훑으시고, 양쪽 콧구멍을 아래위로 훑으시며, 또 이마를 혀로 훑으시었다. 세에라 바라문은 이렇게 생각했다. '사문 고오타마는 서른 두 가지 위인 상을 완전히 갖추고 계시다. 그러나 나는 그가 부처님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겠다. 다만 나는 늙고 나이가 많아, 스승이나 또는 그의 스승인 바라문들이 <모든 존경받을 사람, 깨친 사람은 자기가 칭찬받을 때는 자신을 나타낸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럼, 나는 적당한 시로써 사문 고오타마를 그 앞에서 찬탄하리라.' 그래서 세에라 바라문은 적당한 시로써 스승의 면전에서 찬탄하였다.

"스승이시여, 정력이 있는 분이시여, 당신은 몸이 완전하고 빛이 나며 태생도 좋고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금빛으로 빛나며 이는 아주 희니다."

(549)

그리고 태생이 좋은 사람이 갖추는 용모는 모두 위인의 상으로서 당신 몸에 있습니다.

(550)

당신은 눈이 맑고 얼굴도 보기 좋으며, 신체는 크고 단정하며 빛나 사문들 속에서도 태양처럼 빛납니다.

(551)

당신은 보기에 아름다운 수행자(비구)로 그 살갗은 황금빛입니다. 이렇듯 용모가 훌륭한데

어찌 사문될 필요가 있습니까?

(552)

당신은 전륜왕이 되어 군대를 거느리고 사방을 정복하여 잠부주(인도)의 지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553)

왕족이나 시골의 왕들은 당신께 충성을 맹세할 것입니다. 고오타마시여, 왕 중의 왕으로서, 인류의 제왕으로서 통치를 하십시오."

(554)

스승은 대답했다.

"세에라여, 나는 왕이로되 위없는 진리의 왕입니다. 진리로써 바퀴(輪)를 굴리는 것입니다. 거꾸로 돌 수 없는 바퀴를."

(555)

세에라 바라문이 말했다.

"당신은 정각자(正覺者)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오타마시여, 당신은 위없는 진리의 왕이고, 진리로써 바퀴를 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556)

그렇다면 누가 당신의 장군입니까? 스승의 상속자인 제자는 누구입니까? 이 굴러진 법 바퀴(法輪)를 누가 당신의 뒤를 이어 굴릴 것입니까?"

(557)

스승은 대답했다.

"세에라여, 내가 굴린 위없는 법 바퀴를 사아리풋타(舍利佛)가 굴릴 것입니다. 그는 완전한 사람을 따라 나타난 사람입니다.

(558)

나는 알아야 할 것을 이미 알았고, 닦아야 할 것을 이미 닦았으며, 끊어야 할 것을 이미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처입니다. 바라문이여.

(559)

내게 대한 의혹을 푸십시오. 바라문이여. 그리고 나를 믿으십시오. 깨달은 사람들을 만나기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560)

그들(눈뜬 사람)이 가끔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그대들에게는 만나보기 어려운 일인데, 나는 바로 그 정각자입니다. 바라문이여, 나는 번뇌의 화살을 꺾어 버린 위없는 사람입니다.

(561)

나는 신성한 사람이며, 비길 데 없고, 악마의 군대를 때려 부숴으며, 모든 적을 항복시켰고, 아무것에도 두려움 없이 기뻐합니다."

(562)

세에라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눈이 있는 이의 말씀을 들어라. 그는 번뇌의 화살을 꺾어 버린 사람이며 위대한 영웅이시다. 마치 사자가 숲속에서 포효하는 것과 같다.

(563)

신성한 분, 비길 데 없고 악마의 군대를 쳐부순 이를 보고, 누가 믿지 않을 것인가? 이를테면, 살갓이 검은 종족 출신이라도 믿으리라.

(564)

따르고자 하는 자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따르고 싶지 않은 자는 떠나 가거라. 나는 뛰어난 지혜 있는 분에게 출가하겠다."

(565)

세에라의 제자들이 말했다.

"만일 스승님께서 바로 깨달은 이의 가르침을 기뻐하신다면, 저희들도 또한 뛰어난 지혜 있는 분에게 출가하겠습니다."

(566)

세에라가 스승께 말했다.

"저희들 삼백 명의 바라문은 합장하고 청합니다. 스승이시여, 우리들은 당신 곁에서 깨끗한 행을 닦겠습니다."

(567)

스승이 말했다.

"세에라여, 깨끗한 행이 잘 설했어 있습니다. 그것은 눈앞에 당장 과보를 가져 옵니다. 도를 닦는 사람이 게으르지 않고 출가하여 청정행을 닦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568)

세에라 바라문은 제자들과 함께 스승 곁에 출가하여 완전한 계율을 받았다. 그때 머리 땀은 행자 케니야는 그날 밤이 지나자 자기 암자에서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차려 놓고 스승께 시간이 된 것을 알렸다.

"고오타마시여, 시간이 되었습니다. 공양 준비가 되었습니다."

스승은 오전 중에 속옷(內衣)과 겹옷(重衣)을 입고 바리때를 드시고 머리 땀은 행자 케니야의 암자로 가셨다. 그리고 수행승의 무리와 함께 미리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케니야는 부처님을 비롯하여 수행승들에게 손수 맛있는 음식을 나르면서 마음껏 들도록 권했다. 그리고 케니야는 스승께서 공양을 마치시고 바리때에서 손을 떼시자 한층 낮은 자리에 앉았다. 스승은 다 음과 같은 시로써 케니야에게 감사의 말씀을 하셨다.

"불에 대한 공양은 제사 중에도 가장 으뜸입니다. 사아비트리이는 베에다의 시구(詩句)중에서

으뜸이고, 왕은 사람 중에서 으뜸이며, 큰 바다(大洋)는 모든 강 중에서도 으뜸이듯이."

(569)

달은 못별 중에서 으뜸이며, 태양은 빛나는 것 중에서 으뜸이고, 스님들은 공덕을 바라고 공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으뜸인 것입니다."

(570)

스승은 이러한 시를 읊어 케니야에게 감사의 뜻을 말씀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가시었다. 세에라 장로는 자기를 따르던 무리들을 떠나 홀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여 얼마 안 가서-여러 선남자들이 그것을 얻으려고 땀땀하게 집을 나와 집 없이 사는 것인데- 위없는 청정행의 궁극을 현세에서 스스로 깨닫고 증명하고 구현하며 세월을 보냈다. `태어나는 일은 끝났다. 청정한 행은 이미 완성됐다. 할 일을 다 마쳤다. 이제 다시는 이러한 생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함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세에라 장로는 그의 무리와 함께 성인의 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다. 그 후 세에라 장로는 그의 무리들과 함께 스승이 계신 곳으로 갔었다. 그리고 옷을 한 쪽 어깨에 걸치고, 스승께 합장하여 다음의 시로써 여쭙었다.

"스승이시여, 눈이 있는 분이시여, 오늘부터 여드레 전에 우리는 당신께 귀의했습니다만, 일곱 밤을 지나 우리는 당신의 가르침 속에서 안정을 얻었습니다.

(571)

당신은 깨달으신 분입니다. 당신은 스승이십니다. 당신은 악마의 정복자이며 현자이십니다. 당신은 번뇌의 잠재적 가능성을 끊고, 몸소 건너시고 또 이 사람들을 건네주십니다.

(572)

당신은 장애를 넘어서고 모든 번뇌의 더러움을 없애버렸습니다. 당신은 짐착 없는 사자이십니다. 무서워 떠는 일이 없으십니다.

(573)

이들 삼백 명의 수행승은 합장하고 서 있습니다. 영웅이시여, 발을 뻗쳐 주십시오. 여러 용(龍=行者)들로 하여금 스승께 예배드리게 하렵니다."

- 번뇌의 화살을 뽑으라.

이 세상에서 사람의 명은 정해 있지 않아 얼마 사는지 모른다. 애처롭고 짧아 고뇌로 엉켜 있는 것이다.

(575)

태어난 것은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 늙으면 죽음이 온다. 실로 생이 있는 자의 운명은 이런 것이다.

(576)

익은 과일은 빨리 떨어질 위험이 있다. 그와 같이 태어난 자는 죽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에게는 항상 죽음의 두려움이 있다.

(577)

이를테면, 웅기장이가 만든 질그릇이 마침내는 모두 깨어지고 마는 것과 같이 사람의 목숨도 또한 그렇다.

(578)

젊은이도 장년도 어리석은 이도 지혜로운 이도 모두 죽음에는 굴복해 버린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579)

그들은 죽음에 붙잡혀 저 세상으로 가지만, 아버도 그 자식을 구하지 못하고 친척도 그 친척을 구하지 못한다.

(580)

보라. 친척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보지만, 사람은 하나씩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사라져 간다.

(581)

이렇듯 세상 사람들은 죽음과 늙음으로 인해서 해를 입는다. 그러나 슬기로운 이는 세상의 참 모습(實相)을 알고 슬퍼하지 않는다.

(582)

그대는 온 사람의 길을 모르고, 또 간 사람의 길을 모른다. 그대는 생과 사 양극을 보지 않고 부질없이 슬피 운다.

(583)

미망(迷妄)에 붙들려 자기를 해치고 있는 사람이 울고불고해서 무슨 이익이라도 생긴다면 현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584)

울고 슬퍼하는 것으로서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다. 다만 그에게는 더욱더 괴로움이 생기고 몸만 여윌 따름이다.

(585)

스스로 자신을 해치면서 몸은 여위고 추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울고 슬퍼하는 것은 무익한 일이다.

(586)

근심을 버리지 않은 사람은 점점 더 고뇌를 받게 된다. 죽은 사람 때문에 운다는 것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이다.

(587)

또한 자신이 지은 업으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라. 살아 있는 자는 죽음에 붙잡혀 떨고 있지 않은가?

(588)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염원할지라도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기대에 어긋나는 것도 이와 같으니라. 보라, 세상의 저 모습을!

(589)

가령 사람이 백년을 살거나 그 이상을 산다 할지라도 마침내는 친족들을 떠나 이 세상의 생명을 버리게 된다.

(590)

그러므로 존경하는 사람의 말씀을 듣고, 죽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는 `그는 이미 내 힘이 미치지 못하게 되었구나.'라고 깨달아 슬퍼하거나 탄식하지 마라.

(591)

이를테면, 집에 불이 난 것을 물로 꺼버리듯이,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은 걱정이 생겼을 때는 이내 지워 버린다. 마치 바람이 숨을 날려 버리는 것과 같이.

(592)

자신의 즐거움을 구하는 사람은 슬픔과 욕심과 걱정을 버리라. 자기 번뇌의 화살을 뽑으라.

(593)

번뇌의 화살을 뽑아 버리고 거리낌 없이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면 모든 걱정을 초월하고, 근심 없는 자, 평안에 돌아간 자가 될 것이다.

- 행위로 인해 바라문이 된다

(594)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어느 때 거룩한 스승께서는 잇차아낭갈라 숲에 살고 계시었다. 그 때 재산이 많고 저명한 바라문들이 그곳에 많이 살고 있었다. 즉, 찬킨 바라문, 타아룻카 바라문, 포옥카라사아치 바라문, 자아눛소오니 바라문, 토오데야 바라문, 이밖에 저명한 바라문들이었다. 그때 바아셋타와 바아라드바아자라고 하는 두 젊은이가 오랫동안 앉아 있었기 때문에 생긴 피로를 없애기 위해, 여기저기 거닐면서 논쟁을 벌였다.

"도대체 바라문이란 어떤 것인가?"

바아라드바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부계(父系)와 모계(母系) 양쪽이 다 유서 깊은 순결한 모태에 깃들기를 칠대(7代)의 조상에 이르기까지 혈통에 대해서 지탄이나 비난 받은 일이 없는 이런 사람을 바라문이라 합니다."

바아셋타는 말했다.

"사람이 계율을 지키며 덕행을 갖추고 있다면, 바로 이 사람이 바라문입니다."

바아라드바아자는 바아셋타를 설득할 수 없었고, 바아셋타도 바아라드바아자를 설득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바아셋타는 바아라드바아자에게 말했다.

"바아라드바아자여, 석가 족의 아들인 사문 고오타마는 출가하여 이곳 잇차아낭갈라 숲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고오타마에게는 이러한 좋은 명성이 떠돌고 있습니다. 즉, 그 스승은 존경할 만한 사람, 눈뜬 사람, 지혜와 덕행을 갖춘 사람, 행복한 사람, 세상을 안 사람, 위없는 사람, 사람들을 길들이는 이, 신과 인간의 스승, 눈이 열린 부처님, 거룩한 스승이라고 합니다. 바아라드바아자여, 사문 고오타마에게로 가 봅시다. 거기 가서 그분에게 이것을 물어 봅시다. 그의 대답에 따라 우리는 그것을 믿읍시다."

그들은 스승이 계신 곳으로 찾아 갔다. 스승께 절을 하고 나서, 기쁘고 잊을 수 없는 말들로 인사를 나눈 뒤 한쪽에 앉았다. 바아셋타 바라문은 다음과 같은 시로써 스승께 여쭙었다.

"우리 두 사람은 3베에다의 학자라고 스승께서도 인정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포옥카라사아치의 제자이고 이 사람은 타아루카의 제자입니다.

(595)

3베에다에 쓰여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완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에다의 어귀(語句)와 문법에 통달했고 독송도 스승에게 견줄 만합니다.

(596)

고오타마시여, 그러한 우리가 태생에 대한 논쟁을 했습니다. '태생에 따라 바라문이 된다.'고 바아라드바아자는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행위에 따라 바라문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눈이 있는 분이시여, 이런 사정임을 알아주십시오.

(597)

우리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뜬 사람으로 널리 알려진 스승께 물으러 온 것입니다.

(598)

사람들이 보름달을 향해 합장하고 예배하며 공경하듯이, 세상 사람들은 고오타마를 예배하고 공경합니다.

(599)

세상의 눈으로 출현하신 고오타마에게 우리는 묻습니다. 태생에 따라 바라문이 됩니까? 행위에 따라 바라문이 됩니까?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바라문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600)

스승은 대답하셨다.

"바아셋타여, 그대들을 위해 모든 생물에 대한 태생의 구별을 차례대로 설명해 주리라. 그들의 태생이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이다.

(601)

풀이나 나무에도 종류의 구별이 있는 줄을 알아라. 그러나 그들은, '우리는 풀이다.'라든가, '

우리는 나무다.'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들의 특징은 태생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태생은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이다.

(602)

또 구더기나 귀뚜라미로부터 개미에 이르는 것들에게도 종류의 구별이 있음을 알아라. 그들의 특징은 태생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태생은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이다.

(603)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네발 달린 짐승에게도 종류의 구별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들의 특징은 태생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태생은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이다.

(604)

배로 기어 다니는 길이가 긴 것들에게도 종류의 구별이 있음을 알아라. 그들의 특징은 태생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태생은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이다.

(605)

물속에 태어나 물에서 사는 물고기들도 종류의 구별이 있음을 알아라. 그들의 특징은 태생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태생은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이다.

(606)

그리고 날개를 펴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도 종류의 구별이 있음을 알아라. 그들의 특징은 태생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태생은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이다.

(607)

이와 같은 생물에 있어서는 태생에 기인한 특징이 여러 가지로 다르지만, 인류에게는 태생에 기인한 특징이 다를 수 없다.

(608)

머리카락이나 머리, 귀, 눈, 입, 코, 입술이나 눈썹에 대해서도.

(609)

목이나 어깨, 배, 등, 궁둥이, 가슴, 음부나 성교에 대해서도.

(610)

손이나 발, 손가락, 손톱, 종아리, 넓적다리, 얼굴색이나 음성에 대해서도, 다른 생물처럼 태생에 기인한 특징의 구별이 인류에게는 결코 없다.

(611)

몸을 받은 생물 사이에는 각기 구별이 있지만, 인간에게는 그런 구별이 없다. 인간 사이에서 구별이 나타나는 것은 다만 그 명칭뿐이다.

(612)

인간 가운데서 소를 치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농부이지 바라문이 아님을 알아라. 바아셋타여.

(613)

인간 가운데서 여러 가지 기능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기능인이자 바라문이 아님을 알아라. 바아셋타여.

(614)

인간 가운데서 사고파는 것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장사치이지 바라문이 아님을 알아라. 바아셋타여.

(615)

인간 가운데서 남의 일을 해주고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고용인이자 바라문이 아님을 알아라. 바아셋타여.

(616)

인간 가운데서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도둑이지 바라문이 아님을 알아라. 바아셋타여.

(617)

인간 가운데서 무술(武術)에 의해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무사이자 바라문이 아님을 알아라. 바아셋타여.

(618)

인간 가운데서 사제직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제관(祭官)이지 바라문이 아님을 알아라. 바아셋타여.

(619)

인간 가운데서 고을이나 나라를 차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왕이지 바라문이 아님을 알아라. 바아셋타여.

(620)

나는 바라문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사람을 바라문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그는 `그대여, 라고 불리는 사람'이라 부른다. 그는 무엇인가 소유물에 걸려 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집착이 없는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621))

모든 속박을 끊고 겁내지 않으며, 집착을 초월해 붙잡혀 있지 않은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622)

가죽 끈과 가죽 줄을 고삐와 함께 끊어 버리고 장애를 없애 눈 뜬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623)

죄 없이 욕을 먹고 구타나 구속을 참고 견디며, 인내력이 있고 마음이 용맹한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624)

성내지 않고 도덕을 지키며, 계율에 따라 욕심을 부리지 않고, 몸을 안정시켜 <최후의 몸>에 이른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625)

연꽃잎에 이슬처럼, 송곳 끝에 겨자씨처럼, 온갖 욕정에 더럽히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626)

현세에서 이미 자기의 고뇌가 소멸된 것을 알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결림이 없는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627)

지혜 깊고 총명하며 온갖 길에 통달해 최고의 목적에 도달 한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628)

재가자나 출가자 아무하고도 섞이지 않고, 집 없이 편력하며 욕심이 없는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629)

힘세거나 약한 어느 생물에게도 폭력을 쓰지 않고, 또 죽이거나 죽이도록 하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630)

적의를 품은 자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대적하는 마음이 없고, 폭력을 휘두르는 자와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이 온화하며, 집착하는 자들과 같이 있으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631)

겨자씨가 송곳 끝에서 떨어지듯이, 애착과 증오와 거만과 거짓을 털어 버린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632)

거칠지 않고 사연을 전하는데 진실한 말을 하며, 말로써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633)

이 세상에서 길고 짧거나, 가늘고 굵거나,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막론하고, 주지 않은 것은 어떤 물건이라도 갖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634)

현세도 내세도 바라지 않고, 욕심도 걸림도 없는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635)

집착이 없고 완전히 깨달아 의혹이 없이 불사(不死)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636)

이 세상의 재앙이나 복덕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근심과 티가 없이 깨끗한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637)

구름에 가려 있지 않은 달처럼, 깨끗하고 맑아 환락의 생활이 끝난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638)

이 힘들고 어려운 길, 윤회, 헤맴을 넘고 피안에 이르러 정신을 안정시키고, 욕망도 의욕도 집착도 없이 마음이 평안한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639)

이 세상의 욕망을 끊고 집을 떠나 편력하며, 욕망의 생활을 끝낸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640)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끊고 집을 떠나 편력하며 애착의 생활을 끝낸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641)

인간의 인연을 끊어 버리고 천상의 인연도 벗어나 모든 굴레를 벗어난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642)

쾌락도 쾌락 아닌 것도 버리고, 맑고 깨끗해져 얽매임 없이 온 세상을 이겨낸 영웅, 그를 나

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643)

모든 살아 있는 생물의 생사를 알고, 집착 없이 행복한 사람, 깨달은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644)

신도 귀신(간다르바)도 인간도 그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번뇌의 더러움을 멀해 버린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645)

앞에도 뒤에도 중간에도 한 물건도 가지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646)

황소처럼 늠름하고 기품 있는, 영웅, 대선인(大仙人), 승리자, 욕망없는 사람, 목욕자, 깨달은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647)

전생 일을 알고, 천국과 지옥을 보며, 생존을 멸(滅)해버린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648)

세상에서 쓰는 이름이나 성은 통칭(通稱)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이 태어난 그 때마다 임시로 붙여져 전해지는 것이다.

(649)

성명이 임시로 붙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릇된 선입견을 오래 가지게 된다. 모르는 사람은 말한다. '태생에 의해서 바라문이 된다.'고.

(650)

태생에 의해 바라문이 되는 것은 아니다. 태생에 의해 바라문이 안 되는 것도 아니다. 행위로 인해 바라문이 되고, 행위로 인해 바라문이 안 되기도 하는 것이다.

(651)

행위에 의해 농부가 되고, 행위에 의해 기능인이 되며, 행위에 의해 장사치가 되고, 또한 행위에 의해 고용인이 된다.

(652)

행위에 의해 도둑이 되고, 행위에 의해 무사가 되며, 행위에 의해 제관이 되고, 행위에 의해 왕이 된다.

(653)

현자(賢者)는 이와 같이 행위를 사실 그대로 본다. 그들은 <연기(緣起)>를 보는 자이며, 행위와 그 과보를 잘 알고 있다.

(654)

세상은 행위로 말미암아 존재하며, 사람들도 행위로 인해서 존재한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은 행위에 매어 있다. 마치 달리는 수레가 췌기에 의해 매어 있듯이.

(655)

고행과 청정한 행과 감관의 억제와 자제, 이것으로 바라문이 된다. 이것이 으뜸가는 바라문이다.

(656)

지식인들이 볼 때 3베에다를 갖추고 마음 편안하여 다시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범천이며 제석(帝釋)이다. 바아셋타여, 이러한 줄을 알아라."

(657)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바아셋타와 바아라드바아자 청년은 스승께 말씀드렸다.

"훌륭하십니다, 고오타마시여, 훌륭하십니다, 고오타마시여, 마치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듯이, 덮인 것을 벗겨 주듯이, 길 잃은 이에게 길을 가리켜 주듯이, 그리고 `눈이 있는 자는 빛을 볼 것이다'하면서 어두운 밤에 등불을 비춰 주듯이, 당신 고오타마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을 밝혀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고오타마와 진리와 승가에 귀의하겠습니다. 고오타마께서는 저희를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귀의한 재가신자로 받아 주십시오."

— 입안에 도끼를 조심하라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어느 날 거룩한 스승께서는 사아밧티이의 제타 숲, 고독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 주는 장자의 집에 계시었다. 그 때 수행승 코오카알리야는 스승이 계신 곳으로 갔다. 스승께 인사드린 후 한쪽으로 가서 앉아 말씀드렸다.

"거룩한 스승이시여, 사아리풋타와 모옥갈리아나는 삿된 생각을 가지고 나쁜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스승은 수행승 코오카알리야에게 일렀다.

"코오카알리야여, 그렇게 말하지 마라. 코오카알리야여, 그렇게 말하지 마라. 사아리풋타와 모옥갈리아나는 선량한 사람들이다."

코오카알리야는 거듭 말했다.

"거룩한 스승이시여, 저는 스승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만, 사아리풋타와 모옥갈리아나는 삿된 생각을 지니고 나쁜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스승은 다시 수행승 코오카알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코오카알리야여, 그렇게 말하지 마라. 사아리풋타와 모옥갈리아나를 믿고 사랑하여라, 그들은 선량한 사람들이다."

코오카알리야는 세 번째로 말씀드렸다.

"거룩하신 스승이시여, 저는 스승을 믿고 의지합니다만, 사아리풋타와 모옥갈라아나는 샛된 생각을 가지고 나쁜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스승께서도 세 번 같은 말씀을 하셨다.

"코오카알리야여,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들을 믿고 사랑하여라. 그들은 선량한 사람들이다." 그러자 수행승 코오카알리야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승께 절하고 바른쪽으로 돌아 나가버렸다. 그는 나가자마자 온 몸에 겨자씨만한 종기가 생겼다. 처음에는 겨자씨만 하던 것이 차츰 팔알만 해졌다. 팔알만 하던 것이 또 콩알만 해졌다. 그러더니 대추씨만 해지고 대추알만 해졌다. 이와 같이, 감자만 해지고, 덜익은 모과 열매만 해지고, 익은 모과만 하던 것이 마침내 터져서 고름과 피가 되어 흘렀다. 코오카알리야는 마침내 그 병고 때문에 죽고 말았다. 그리고 그는 사아리풋타와 모옥갈라아나에게 적의를 품었기 때문에 죽어서 홍련(紅蓮)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 그때 사바세계의 주인인 범천(梵天)은 한밤중이 지났을 무렵, 아름다운 얼굴로 제타 숲을 두루 비추면서 스승이 계신 곳으로 찾아갔다. 인사를 드린 뒤 한편에 서서 스승께 사죄했다.

"거룩하신 스승이시여, 수행승 코오카알리야는 죽었습니다. 거룩하신 스승이시여, 수행승 코오카알리야는 사아리풋타와 모옥갈라아나에게 적의를 품었기 때문에 죽어서 홍련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사바세계의 주인인 범천은 이렇게 말하며 스승께 절하고 바른쪽으로 돌아 사라졌다. 날이 밝자 스승께서는 여러 수행승에게, 어제 밤에 범천이 왔었던 일을 말씀하셨다. 그 때 한 수행승이 이렇게 말했다.

"거룩하신 스승이시여, 홍련지옥의 수명은 얼마나 됩니까?"

"수행승이여, 홍련지옥의 수명은 길다. 그것을 몇 년이라든가, 몇 백 년, 몇 천 년, 몇 십만 년이라고 헤아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거룩하신 스승이시여, 그렇지만 비유로써 설명하실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렇게는 말할 수 있다."

하시면서 스승께서는 말씀하셨다.

"수행승이여, 이를테면 코오살라 나라의 말(斗)로 된 스무 카아리카의 깨(한 수레분)가 있는데, 그것을 꺼낸다고 하자. 한 사람이 백년을 지날 때마다 한 알씩 꺼내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 스무 카아리카의 깨를 다 꺼낸다 하더라도 한 압부다지옥은 아직 끝나지 않는다. 그런데 스무 압부다지옥은 한 니랍부다지옥과 같다. 그리고 스무 니랍부다지옥은 한 아바바지옥이며, 스무 아바바지옥은 한 아하하지옥, 스무 아하하지옥은 한 아타타지옥이며, 스무 아타타지옥은 한 황련(黃蓮)지옥과 같고, 스무 황련지옥은 한 백수련(白睡蓮)지옥과 같으며, 스무 백수련지옥은 한 청련(靑蓮)지옥, 스무 청련지옥은 한 백련지옥과 같다. 그래서 스무 백련지옥은 한 홍련지옥에 해당된다. 수행승들이여, 그런데 코오카알리야는 사아리풋타와 모옥갈라아나에게 적의를 품었기 때문에 홍련지옥에 떨어진 것이다."

행복한 사람인 스승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신 뒤, 다시 말씀을 이으셨다.

(657)

사람이 태어날 때에는 그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 어리석은 자는 욕설을 함으로써, 그 도끼로 자신을 찌고 마는 것이다.

(658)

비난받을 사람을 칭찬하고, 또 칭찬해야 할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 그는 입으로 죄를 더하고 그 죄 때문에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

(659)

도박으로 재산을 잃는 자는 가령 자신까지를 포함해 모든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 불행은 오히려 적은 것이다. 그러나 완전한 경지에 이른 사람에게 악의를 품은 사람의 죄(불행)는 아주 무거운 것이다.

(660)

악담 또는 악의를 가지고 성인을 비방하는 사람은, 십만과 삼십 육 니랍부다지옥과 다섯 압부다지옥에 떨어진다.

(661)

거짓말을 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 또 했으면서 안 했다고 하는 자도 마찬가지다. 둘 다 똑같이 행동이 비열한 사람들이라, 죽은 후에는 같은 내세(來世)를 갖는다.(지옥에 떨어진다)

(662)

남을 해칠 마음 없이 깨끗하고 더럽히지 않은 사람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러한 악이 돌아온다. 바람을 거슬러서 먼지를 날리는 것처럼.

(663)

여러 가지 탐욕의 대상에 빠져, 신앙심도 없고 인색하며, 불친절하고 이기적이며 이간질을 하는 사람은 말로써 남을 때린다.

(664)

입이 더럽고 부실하며 천한 자여, 산 것을 죽이고 사특하여 악한 행위를 하는 자여, 야비하고 불량하며 덜된 자여, 이 세상에서 말을 너무 마라. 그대는 지옥에 떨어지라.

(665)

그대는 먼지를 뿌려서 해(害)를 끌어 들이고, 착한 사람들을 비난하여 죄를 지으며, 온갖 나쁜 일을 하여 오랫동안 깊은 구렁(지옥)에 빠진다.

(666)

그 어떤 업(業)도 멸하지 않는다. 그것은 반드시 되돌아와 그 임자가 그것을 받는다. 어리석은 자는 죄를 짓고 내세에서 그 괴로운 과보를 받는다.

(667)

지옥에 떨어진 자는 쇠꼬챙이로 꿰이고, 날카로운 칼이 달린 철창에 찢린다. 또한 불에 달은 췌덩이를 전에 지은 업에 알맞은 음식으로써 먹어야 한다.

(668)

지옥의 옥졸들은 `잡아라!`, `때려라!` 할 뿐 부드러운 말을 걸어 주지 않으며, 상냥한 얼굴로 대해 주지 않고, 의지가 되어 주지 않는다. 지옥에 떨어진 자는 깔려진 숯불 위에 앉아 불불는 화염 속에 들어간다.

(669)

또한 그곳에서 지옥의 옥졸들은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을 철망으로 몰아넣어 쇠망치로 내려친다. 그리고는 새까만 암흑 속에 두는데, 그 어둠은 안개처럼 끝없이 퍼져 있다.

(670)

또 다음에는 그 화염이 타오르는 구리 술에 들어간다. 오랫동안 그 끓는 가마솥 안에서 익혀지면서 뒹다 가라앉았다 한다.

(671)

고름과 피로 가득 찬 술이 있어, 죄를 범한 자는 그 속에서 끓게 된다. 그는 그곳에서 어느 쪽으로 가든지 피고름 때문에 더럽혀진다.

(672)

구더기가 사는 물솥이 있어, 죄를 범한 자는 그 안에서 익어 간다. 나오려 해도 붙잡을 것이 없다. 그 솥은 안으로 굽고 둘레가 모두 한결같이 때문이다.

(673)

날카로운 칼날로 된 숲이 있어,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면 팔다리가 잘린다. 옥졸들은 꼬챙이로 허를 꿰어 잡아 다니면서 괴롭힌다.

(674)

또 지옥에 떨어진 자는 예리한 면도칼이 있는 베다라니이 강에 이른다. 어리석은 무리들은 나쁜 일을 하고 죄를 범함으로써 그곳에 떨어진다.

(675)

그곳에는 검은 개, 점박이 개, 검은 까마귀 떼와 여우들이 있어, 울부짖는 사람들을 뜯어 먹는다. 또 독수리 까치들도 살을 찢아 먹는다.

(676)

죄를 범한 자가 받는 지옥의 생태는 실로 비참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명이 남아 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을 하고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677)

홍련지옥에 떨어진 자의 수명은 짐차에 실은 개알의 수만큼 된다고 지자(智者)들은 헤아렸다. 즉 그 햇수는 오조 년(5兆年)과 오천만 년인 것이다.

(678)

여기 말한 지옥의 고통이 아무리 오래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 동안은 지옥에 머물러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인간은 청정하고 어질고 착한 미덕을 위해 항상 말과 마음을 지켜야 한다.

- 아시타 선인의 눈물

(679)

아시타 선인(仙人)은 한낮의 휴식 때에, 정결한 옷을 입은 서른 명의 신들이 기뻐하고 즐거워 하면서, 옷을 벗어 들고 공손히 제석천(帝釋天)을 극구 찬탄하는 것을 보았다.

(680)

기뻐서 뛰노는 신들을 보고 선인은 조심스레 물었다.

"신들이 기쁨에 넘쳐 있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왜 당신들은 옷을 벗어 흔들고 있는 것입니까?"

(681)

만일 아수라와의 싸움에서 신들이 이기고 아수라가 졌다 할지라도 몸의 털을 곤두세울 만큼 그토록 기뻐할 수는 없을 터인데, 어떤 희귀한 일이 있기로 이처럼 기뻐하는 것입니까?

(682)

그들은 소리치고 노래하며 악기를 연주하고 손뼉을 치면서 춤을 춥니다. 나는 수미산 꼭대기에 살고 있는 당신들께 묻습니다. 존경하는 분들이여, 제 궁금증을 어서 풀어 주십시오."

(683)

신들은 대답했다.

"비할 데 없이 묘한 보배인 저 보살(미래의 부처님)은 모든 사람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인간세계에 태어 났습니다. 석가 족 마을 룸비니의 동산에. 그래서 우리는 만족해하고 기쁨에 넘쳐 있는 것입니다.

(684)

무릇 살고 있는 자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사람, 가장 높은 사람, 황소 같은 사람, 살아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높은 분은, 머지않아 선인들이 모이는 숲에서 법바퀴(法輪)를 굴릴 것입니다. 용맹스런 사자가 못 짐승들을 이기고 포효를 하듯이."

(685)

선인은 그 말을 듣자 급히 인간세계로 내려 왔다. 그리고 숫도오다나왕의 궁전에 가까이 가서 석가 족에게 이렇게 말했다.

"왕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도 한 번 뵙고 싶습니다."

(686)

그리하여 석가 족들은 숨씨 있는 금공(金工)이 만든 황금처럼 반짝이며 행복에 빛나는 거룩한 아기의 얼굴을 아시타 선인에게 보였다.

(687)

불꽃처럼 빛나고 하늘의 달처럼 맑으며, 구름을 헤치고 비치는 가을 태양처럼 환한 아기를 보고 환희에 넘쳐 몹시 기뻐했다.

(688)

신들은 뼈가 있고 천개의 둥근 고리가 달린 산개(傘蓋)를 공중에 펼쳤다. 또 황금 자루가 달린 불자(拂子)를 위 아래로 흔들었다. 그러나 불자나 양산을 손에 쥔 자는 눈에 띄지 않았다.

(689)

칸히시리(아시타)라는 머리 땀 선인은, 머리 위에 흰 양산을 가리고 빨간 모포에 싸여 있는 황금 패물 같은 악기를 보고 기뻐서 가슴에 안았다.

(690)

용모와 신주(神呪 = 베에다)를 환히 알고 있는 그는 황소같이 훌륭한 석가 족의 아기를 안고 그 유다른 상(相)을 살피더니 환성을 질렀다.

"이 아기는 위없는 사람, 인간 중에서 가장 뛰어났습니다!"

(691)

그러더니, 선인은 자기의 얼마 남지 않는 생애를 생각하고, 말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다. 선인이 우는 것을 보고 석가 족들은 물었다.

"우리 왕자에게 무슨 장애라도 있단 말인가?"

(692)

석가 족들이 걱정하는 것을 보고 선인은 말했다.

"왕자에게 어떤 불길한 상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평범한 상이 아닙니다. 주의해서 길러 주십시오."

(693)

이 왕자는 깨달음의 궁극에 이를 것입니다. 이 아기는 가장 으뜸가는 청정을 보고, 많은 사람 들에게 이익을 주고 불쌍히 여긴 나머지 범바퀴를 굴릴 것입니다. 그의 청정한 행은 널리 펼쳐질 것입니다.

(694)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 내 수명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도중에서 내게는 죽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나는 비할 데 없이 큰 힘을 가진 사람의 가르침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695)

청정한 수행자 아시타 선인은 석가 족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 주고 궁중을 떠나갔다. 그는 자기의 조카 나아라카를 불러 비할 데 없이 큰 힘을 가진 사람의 교법을 따르도록 하였다.

(696)

"만일 네가 나중에 '눈뜬 사람이 깨달음을 펴고 진리의 길을 간다.'는 말을 듣거든, 그 때 그 곳으로 가서 그 분의 가르침을 따라 그 밑에서 청정행을 닦아라."

(697)

남을 위해 걱정하고 미래에 있어서 최상의 청정행을 예견한 그 성인에게 가르침을 받고 온갖 착한 일을 쌓을 나아라카는 승자(勝者 = 부처님)를 기다리면서 스스로의 감관을 지키고 살아갔다.

(698)

훌륭한 승자가 <법바퀴>를 굴린다는 소문을 듣고, 아시타 선인이 일러 준 대로 으뜸가는 선인(부처님)을 보고 기뻐하며 거룩한 성인에게 행을 물었다.

- 서문의 첫귀(詩句)는 끝났다 -

(699)

나아라카가 말했다.

"아시타가 알려 준 말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하오니 고오타마시여, 모든 것에 통달하신 당신께 묻겠습니다.

(700)

저는 출가하여 탁발(托鉢)의 행을 쌓으려 하오니, 성스러운 행과 으뜸가는 길을 말씀해 주십시오."

(701)

스승(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그대에게 성스러운 행을 일러 주리라. 이것은 행하기 어렵고 이루기 힘들다. 이제 그대에게 그것을 알려 줄 것이니, 마음을 굳건히 하라.

(702)

마을에서 욕을 먹든지 절을 받든지 한결 같은 태도로 대하여라. 욕을 먹더라도 성내지 말며, 절을 받더라도 우쭐거리지 말고 냉정하여라.

(703)

가령 동산의 숲속에 있더라도 불꽃처럼 여러 가지가 나타난다. 아낙네는 성자를 유혹한다. 아낙네로 하여금 유혹하도록 하지 마라.

(704)

성행위(性行爲)에서 떠나 온갖 욕망을 버리고, 약하고 강한 모든 생명 있는 것에 대해 적대시 말고, 애착하지도 마라.

(705)

그들은 나와 같고 나도 그들과 같다고 생각하여, 생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또한 남들로 하여금 죽이게 해서도 안 된다.

(706)

범부가 집착하는 욕망과 욕심을 떠나 눈 있는 사람은 길을 가라. 지옥을 벗어나라.

(707)

배를 주리고 음식을 절제하여 욕심을 없애고 탐내지 마라. 욕망을 버리면 욕심이 없어 평안하다.

(708)

그 성자는 탁발을 끝내고 숲에 돌아와 나무 아래 머물러 앉아야 한다.

(709)

그 현자는 전신의 안정에 전념하고 숲에서 즐기며 나무 아래서 명상함으로써 스스로 만족해야 한다.

(710)

날이 새면 마을로 가야 한다. 신도에게서 초대를 받거나 마을에서 음식을 가져 올지라도 결코 반겨서는 안 된다.

(711)

성자는 마을에 이르러 집들을 조금하게 돌아다니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끊고 음식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말을 꺼내서는 안 된다.

(712)

‘음식을 얻어서 잘 됐다.’, ‘얻지 못한 것도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 완전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라도 태연히 돌아온다. 마치 과일을 얻으려고 나무 밑에 간 사람이 과일을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태연히 돌아오는 것처럼.

(713)

그는 바리때를 손에 들고 돌아다니며, 병어리는 아닌데 병어리처럼 보이는 것이다. 시물(施物)이 적다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시주를 업신여겨서도 안 된다.

(714)

사문(부처님)은 높고 낮은 여러 가지 도(道)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거듭 피안에 이르는 일은 없으나 한 번에 이르는 일도 없다.

(715)

윤회의 흐름을 끊은 수행승에게는 집착이 없다. 해야 할 선(善)도, 하지 말아야 할 악도 버렸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것이다."

(716)

스승은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그대에게 성자의 길을 말하리라. 음식을 얻을 때에는 먼도날의 비유처럼 하여라. 혀를 입 천정에 붙이고 스스로 배를 주리라.

(717)

마음이 침체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쓸데없이 많은 것을 생각해서도 안 된다. 비린내가 없이, 결림이 없이, 청정한 행을 궁극의 의지처로 삼아라.

(718)

홀로 앉는 일과 도인에게 봉사하는 일을 배우라. 성인의 길은 홀로 있는 것이다. 홀로 있어야만 즐거울 수 있다.

(719)

그렇게 하면 그는十方(十方)에 빛이 나리라. 욕망을 버리고 명상하고 있는 여러 현자들의 명성을 들으면, 내 제자는 더욱더 부끄러움과 믿음을 일으켜야 한다.

(720)

이 일을 깊은 늪과 얇은 개울물의 비유로 알아라. 바닥이 얇은 개울물은 소리 내 흐르지만, 큰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르는 법이다.

(721)

모자라는 것은 소리를 내지만, 가득 찬 것은 아주 조용하다. 어리석은 자는 반쯤 물을 채운 항아리 같고, 지혜로운 이는 물이 가득 찬 연못과 같다.

(722)

사문이 의미 있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스스로 알고 법을 설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알고서 많은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723)

그러나 스스로 알고 자제하여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성인으로서 성인의 행에 알맞다. 그는 성인으로서 성인의 행을 체득한 것이다."

— 성스러운 행과 성자의 길

(699)

나아라카가 말했다.

"아시타가 알려 준 말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하오니 고오타마시여, 모든 것에 통달하신 당신께 묻겠습니다.

(700)

저는 출가하여 탁발(托鉢)의 행을 쌓으려 하오니, 성스러운 행과 으뜸가는 길을 말씀해 주십시오."

(701)

스승(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그대에게 성스러운 행을 일러 주리라. 이것은 행하기 어렵고 이루기 힘들다. 이제 그대에게 그것을 알려 줄 것이니, 마음을 굳건히 하라.

(702)

마을에서 욕을 먹든지 절을 받든지 한결 같은 태도로 대하여라. 욕을 먹더라도 성내지 말며, 절을 받더라도 우쭐거리지 말고 냉정하여라.

(703)

가령 동산의 숲속에 있더라도 불꽃처럼 여러 가지가 나타난다. 아낙네는 성자를 유혹한다. 아낙네로 하여금 유혹하도록 하지 마라.

(704)

성행위(性行爲)에서 떠나 온갖 욕망을 버리고, 약하고 강한 모든 생명 있는 것에 대해 적대시 말고, 애착하지도 마라.

(705)

그들은 나와 같고 나도 그들과 같다고 생각하여, 생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또한 남들로 하여금 죽이게 해서도 안 된다.

(706)

범부가 집착하는 욕망과 욕심을 떠나 눈 있는 사람은 길을 가라. 지옥을 벗어나라.

(707)

배를 주리고 음식을 절제하여 욕심을 없애고 탐내지마라. 욕망을 버리면 욕심이 없어 평안하다.

(708)

그 성자는 탁발을 끝내고 숲에 돌아와 나무 아래 머물러 앉아야 한다.

(709)

그 현자는 전신의 안정에 전념하고 숲에서 즐기며 나무 아래서 명상함으로써 스스로 만족해야 한다.

(710)

날이 새면 마을로 가야 한다. 신도에게서 초대를 받거나 마을에서 음식을 가져 올지라도 결코 반겨서는 안 된다.

(711)

성자는 마을에 이르러 집들을 조금하계 돌아다니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끊고 음식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말을 꺼내서는 안 된다.

(712)

‘음식을 얻어서 잘 됐다.’, ‘얻지 못한 것도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 완전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라도 태연히 돌아온다. 마치 과일을 얻으려고 나무 밑에 간 사람이 과일을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태연히 돌아오는 것처럼.

(713)

그는 바리때를 손에 들고 돌아다니며, 병어리는 아닌데 병어리처럼 보이는 것이다. 시물(施物)이 적다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시주를 업신여겨서도 안 된다.

(714)

사문(부처님)은 높고 낮은 여러 가지 도(道)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거둬 피안에 이르는 일은 없으나 한 번에 이르는 일도 없다.

(715)

윤회의 흐름을 끊은 수행승에게는 집착이 없다. 해야 할 선(善)도, 하지 말아야 할 악도 버리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것이다."

(716)

스승은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그대에게 성자의 길을 말하리라. 음식을 얻을 때에는 먼도날의 비유처럼 하여라. 혀를 입 천정에 붙이고 스스로 배를 주리라.

(717)

마음이 침체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쓸데없이 많은 것을 생각해서도 안 된다. 비린내가 없이, 결림이 없이, 청정한 행을 궁극의 의지처로 삼아라.

(718)

홀로 앓는 일과 도인에게 봉사하는 일을 배우라. 성인의 길은 홀로 있는 것이다. 홀로 있어야만 즐거울 수 있다.

(719)

그렇게 하면 그는十方(十方)에 빛이 나리라. 욕망을 버리고 명상하고 있는 여러 현자들의 명성을 들으면, 내 제자는 더욱더 부끄러움과 믿음을 일으켜야 한다.

(720)

이 일을 깊은 늪과 얇은 개울물의 비유로 알아라. 바닥이 얇은 개울물은 소리 내 흐르지만,

큰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르는 법이다.

(721)

모자라는 것은 소리를 내지만, 가득 찬 것은 아주 조용하다. 어리석은 자는 반쯤 물을 채운 항아리 같고, 지혜로운 이는 물이 가득 찬 연못과 같다.

(722)

사문이 의미 있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스스로 알고 법을 설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알고서 많은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723)

그러나 스스로 알고 자제하여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성인으로서 성인의 행에 알맞다. 그는 성인으로서 성인의 행을 체득한 것이다."

-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

(724)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어느 날 부처님께서 사아밧티의 동원(東園)에 있는 미가아라 장자 어머니의 누각(鹿子母講堂) 안에 계시었다. 그 때 거룩하신 스승은 정기적인 집회(布薩) 날인 달 밝은 보름밤에 수행승(비구)의 무리에 둘러 싸여 집밖에 계시었다. 거룩하신 스승께서는 묵묵히 앉아 있는 수행승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었다.

"여러 수행승들이여, 착하고 거룩하게 집을 나와 깨달음에 이르는 여러 가지 진리가 있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이 착하고 거룩하게 집을 나와 깨닫게 하는 여러 가지 진리를 듣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고 누가 그대들에게 묻거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두 가지 진리를 있는 그대로 알기 위해서'라고. 그렇다면 그대들이 말하는 두 가지란 무엇이나고 한다면, '이것은 괴로움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원인이다'하는 것이 하나의 관찰이고, '이것은 괴로움의 그침이다. 이것은 괴로움을 그치게 하는 길이다'하는 것이 둘째 관찰이다. 수행승들이여, 이렇게 두 가지를 바르게 관찰하여 게으르지 않고 정진하는 수행승에게는 두 가지 과보 중에서 어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즉, 현세에서 지혜를 증득(證得)하든가, 혹은 번뇌의 남음이 있는 이 해 때는 생존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일이다."

거룩한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행복한 스승께서는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괴로움을 모르고, 또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을 모르며, 괴로움을 남김없이 없애는 방법도, 괴로움을 그치게 하는 길도 모르는 사람들.

(725)

그들은 마음의 해탈을 얻지 못하고, 지혜의 해탈도 얻지 못한다. 그들은 윤회를 끊어 버릴 수가 없다. 그들은 생과 늙음을 받는다.

(726)

그러나 괴로움을 알고,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을 알고, 괴로움을 남김없이 없애는 방법을 알고, 또한 괴로움을 그치게 하는 길을 안 사람들.

(727)

그들은 마음의 해탈을 이루고, 지혜의 해탈도 구현한다. 그들은 윤회를 끊어 버릴 수가 있다. 그들은 생과 늙음을 받지 않는다."

(728)

"수행승들이여,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두 가지 일을 바르게 관찰할 수가 있는가 하고 묻는 이가 있거든, '있다'고 대답해라. 무슨 까닭인가? 어떤 괴로움이라도 모두 업(業)에 따라 생기는 것이라고 함이 하나의 관찰이고, 그러나 업을 남김없이 끊어 버린다면 괴로움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둘째 관찰이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두 가지를 바르게 관찰하여 게으르지 않고 정진하는 수행승에게는, 두 가지 과보 중에서 어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즉, 현세에서 지혜를 증득하든가, 혹은 번뇌가 남아있는 이 해매는 생존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일이다."

거룩한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행복한 스승께서는 다시 다음같이 말씀하셨다.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괴로움은 생존의 업에 따라 일어난다. 참으로 알지 못하고 그 생존의 업을 짓는 어리석은 자는 되풀이해서 괴로움을 받는다. 그러므로 똑똑히 알고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을 관찰해 업을 짓지 마라."

(729)

"수행승들이여, 또 '두 가지 일을 바르게 관찰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라고 그대들에게 묻는 이가 있거든, '있다'고 대답해라. 어째서 그런가? 어떠한 괴로움이든 무명(無明)으로 인해서 생긴다고 함이 하나의 관찰이다. 그러나 무명을 남김없이 없애 버린다면 괴로움은 생기지 않는다 함이 둘째 관찰이다. 이와 같이 두 가지를 바르게 관찰하여 게으르지 않고 정진하는 수행승에게는 두 가지 과보 중에서 어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즉, 현세에서 지혜를 증득하든가, 또는 번뇌의 남음이 있는 해매는 이 생존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일이다."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다음같이 말씀하셨다.

"이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되풀이하여 윤회를 받는 사람들은 그 귀취가 무명에만 있다."

(730)

이 무명이란 커다란 해매인데, 이로 말미암아 오랜 윤회가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밝은 지혜에 이른 중생들은 다시 생존을 받는 일이 없다."

(731)

"수행승들이여, 또 '두 가지 일을 바르게 관찰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라고 누가 그대들에게 묻거든 '있다'고 대답해라. 어째서 그런가? 어떠한 괴로움이든 모두 형성력(形成力)으로 인해 생긴다 함이 하나의 관찰이다. 그러나 형성력을 남김없이 없애 버린다면 괴로움은 생기지 않는다 함이 둘째 관찰이다. 이와 같이 두 가지를 바르게 관찰하여 게으르지 않고 정진하는 수행승에게는 두 가지 과보 중에 어느 한 가지를 기대할 수 있다. 즉, 현세에서 지혜를 증득하든가, 또는 번뇌의 남음이 있는 이 해매는 생존에 돌아오지 않는 일이다."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다음같이 말씀하셨다.

"어떠한 괴로움이든 모두 형성력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다. 모든 형성력이 없어진다면 괴로움이 생기지도 않는다."

(732)

괴로움은 형성력으로 인해 일어난다고 알아서, 모든 형성력을 없애고 욕심을 끊는다면, 괴로움은 없어지고 만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라.

(733)

바르게 보고, 바르게 안 현자나 베에다에 통달한 사람들은, 악마의 속박에서 벗어나 다시는 생존을 받지 않는다."

(734)

"수행승들이여, 또 `다른 두 가지 일을 바르게 관찰하는 방법은 없는가?'라고 그대들에게 누가 묻거든 `있다'고 대답해라. 어째서 그런가? 어떤 괴로움이든 식별(識)로 인해서 일어난다 함이 하나의 관찰이다. 그러나 식별작용을 남김없이 없앤다면 괴로움도 생기지 않는다 함이 둘째 관찰이다. 이와 같이 두 가지를 관찰하여 게으르지 않고 정진하는 수행승에게는 두 가지 과보 중 어느 하나가 기대된다. 즉, 현세에서 지혜를 증득하든가, 또는 번뇌의 마음이 있는 이 해매는 미망의 생존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일이다."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어떠한 괴로움이 생길지라도 그것은 모두 식별작용으로 인해 일어난다. 식별작용이 소멸된다면 괴로움이 생길 수 없다.

(735)

괴로움은 식별작용에 의해 일어난다고 알아 식별작용을 고요히 가라앉힌 수행승은, 쾌락을 탐하지 않고 평안에 돌아가 있다."

(736)

"수행승들이여, 또 `두 가지 일을 바르게 관찰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라고 그대들에게 누가 묻거든 `있다'고 대답해라. 어째서 그런가? 어떤 괴로움도 모두 접촉으로 인해서 일어난다 함이 그 하나의 관찰이다. 그러나 접촉을 남김없이 아주 없애 버린다면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함이 둘째 관찰이다. 이와 같이 두 가지로 바르게 관찰하여 게으르지 않고 정진하는 수행승에게는 두 가지 과보 중에 어느 하나가 기대된다. 즉, 현세에서 지혜를 증득하든가, 또는 번뇌의 남음이 있는 이 해매는 생존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일이다."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접촉에 얽매이고, 생존의 물결에 밀리며, 사특한 길에 든 사람은 속박을 끊기 어렵다.

(737)

그러나 접촉을 잘 알아 평안을 즐기는 사람은, 실로 접촉을 없애 버렸기 때문에 쾌락을 느끼지 않고 평안에 돌아가 있다."

(738)

"수행승들이여, 또 `두 가지 일을 바르게 관찰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라고 누가 그대들에게 묻거든 `있다'고 대답해라. 어째서 그런가? 어떤 괴로움도 모두 감수(感受)로 인해서 일어난다

함이 하나의 관찰이다. 모든 감수를 남김없이 없애 버린다면 괴로움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둘째 관찰이다. 이와 같이 두 가지로 바르게 관찰하여 게으르지 않고 정진하는 수행승에게는 두 개의 과보 중에 어느 하나가 기대된다. 즉, 현세에서 지혜를 증득하거나, 또는 번뇌의 남음이 있다면, 이 해매는(迷妄) 생존에 다시 는 돌아오지 않는 일이다."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다음같이 말씀하셨다.

"즐겁든 괴롭든,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간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감수된 것은 모두

(739)

괴로움이라 알고, 없어지고 말 허망한 사물에 접촉할 때마다 소멸을 인정하고야 그에 대한 집착을 버린다. 온갖 감수가 소멸하기 때문에 수행승은 쾌락을 느끼지 않고 평안에 돌아가 있다."

(740)

"수행승들이여, 또 `두 가지 일을 바르게 관찰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라고 누가 그대들에게 묻거든 `있다'고 대답해라. 어째서 그런가? 어떤 괴로움도 모두 애착으로 인해 일어난다 함이 하나의 관찰이다. 그러나 애착을 남김없이 없애 버린다면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함이 둘째 관찰이다. 이와 같이 두 가지를 바르게 관찰하고 게으르지 않고 정진하는 수행승들에게는 두 과보 중에 어느 하나가 기대된다. 즉, 현세에서 지혜를 증득하거나, 또는 번뇌의 남음이 있는 이 해매는 생존에 돌아오지 않는 일이다."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애착을 벗 삼는 사람은 이 상태에서 저 상태로 영원히 굴러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

(741)

애착은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이라는 이 우환을 알아, 수행승은 애착을 버리고 집착 없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편력해야 한다."

(742)

"수행승들이여, 또 `두 가지 일을 바르게 관찰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라고 누가 그대들에게 묻거든 `있다'고 대답해라. 어째서 그런가? 어떤 괴로움도 모두 집착으로 인해 일어난다 함이 하나의 관찰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집착을 남김없이 없애 버린다면 괴로움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둘째 관찰이다. 이와 같이 두 가지 일을 바르게 관찰하여 게으르지 않고 정진하는 수행승에게는, 두 가지 과보 중 어느 하나가 기대된다. 즉, 현세에서 지혜를 증득하거나, 번뇌가 남아있는 이 해매는 생존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일이다."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집착으로 인해 생존이 생긴다. 생존하는 자는 괴로움을 받는다. 태어난 자에게는 죽음이 있다. 이것이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이다.

(743)

그러므로 현자들은 집착이 소멸되는 까닭을 바르게 알고, 태어남의 소멸을 잘 알아 다시는 생존을 받지 않는다."

(744)

"수행승들이여, 또 `두 가지 일을 바르게 관찰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라고 누가 그대들에게 묻거든 `있다'고 대답해라. 어째서 그런가? 어떤 괴로움이든 모두 기동(起動)에 의해서 일어난다 함이 하나의 관찰이다. 그러나 기동을 남김없이 없애 버린다면 괴로움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둘째 관찰이다. 이와 같이 두 가지 일을 바르게 관찰하여 게으르지 않고 정진하는 수행승들에게는, 두 가지 과보 중 어느 하나가 기대된다. 즉, 현세에서 지혜를 증득하거나, 번뇌가 남아있는 이 해매는 생존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일이다."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어떠한 괴로움도 모두 기동(起動)으로 인하여 생긴다. 모든 기동이 소멸되면 괴로움도 생기지 않는다."

(745)

괴로움은 기동으로 인해 생긴다는 것을 알아 모든 기동을 버리고, 기동이 없는 상태에서 해탈하여,

(746)

생존에 대한 애착을 끊고 마음이 고요한 수행승은 생의 윤회를 벗어난다. 그는 다시는 생존을 받지 않는다."

(747)

"수행승들이여, 또 `두 가지 일을 바르게 관찰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라고 누가 그대들에게 묻거든 `있다'고 대답해라. 어째서 그런가? 어떠한 괴로움이든 모두 음식으로 인해 일어난다 함이 하나의 관찰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음식을 남김없이 없애 버린다면 괴로움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둘째 관찰이다. 이와 같이 두 가지 일을 바르게 관찰하여 게으르지 않고 정진하는 수행승들에게는, 두 가지 과보 중 어느 하나가 기대된다. 즉, 현세에서 지혜를 증득하거나 또는 번뇌가 남아있는 이 해매는 생존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일이다."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어떠한 괴로움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은 모두 음식으로 인해 생긴다. 모든 음식이 소멸되면 괴로움도 생기지 않는다."

(748)

괴로움은 음식으로 인해 생긴다는 이 우환을 알아, 모든 음식을 잘 알고 모든 음식에 의지하지 않는다.

(749)

모든 번뇌의 때를 없애 버림으로써 병이 나지 않음을 바르게 알고 반성하여 음식을 애용하고, 이치에 사는 베에다의 달인(達人)은 어리석은 생존자의 수에 들지 않는다."

(750)

"수행승들이여, 또 `두 가지 일을 바르게 관찰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라고 누가 그대들에게 묻거든 `있다'고 대답해라. 어째서 그런가? 어떤 괴로움이든 모두 동요(動搖)로 인해 일어난다

함이 하나의 관찰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동요를 남김없이 없애 버린다면 괴로움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둘째 관찰이다. 이와 같이 두 가지 일을 바르게 관찰하여 게으르지 않고 정진하는 수행승에게는 두 가지 과보 중 어느 하나가 기대된다. 즉, 현세에서 지혜를 증득하거나, 번뇌가 남아있는 이 해매는 생존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일이다."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어떠한 괴로움이 일어날지라도 모두 동요로 인해서 일어난다. 모든 동요가 그치게 되면 괴로움도 생기지 않는다.

(751)

괴로움은 동요로 인해 일어난다고 알아서, 그 때문에 수행승은 애착의 동요를 버리고, 모든 형성력을 종식시켜, 무동요 무집착으로 바른 생각을 가지고 편력해야 한다."

(752)

"수행승들이여, 또 `두 가지 일을 바르게 관찰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라고 누가 그대들에게 묻거든 `있다'고 대답해라. 어째서 그런가? 결립이 있는 사람은 주저한다는 것이 하나의 관찰이다. 결립이 없는 사람은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이 둘째 관찰이다. 이와 같이 두 가지를 바르게 관찰하여 게으르지 않고 정진하는 수행승에게는, 두 가지 과보 중 어느 하나가 기대된다. 즉, 현세에서 지혜를 증득하거나, 번뇌가 남아있는 이 해매는 생존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일이다."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결립이 없는 사람은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결립이 있는 사람은 이 상태에서 저 상태로 집착하고 있어 윤회를 벗어날 수 없다.

(753)

여러 가지 결립 속에 커다란 두려움이 있다는 이 우환을 알아, 수행승은 결립 없고 집착 없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편력해야 한다.

(754)

"수행승들이여, 또 `두 가지 일을 바르게 관찰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라고 누가 그대들에게 묻거든 `있다'고 대답해라. 어째서 그런가? 물질적 영역보다도 비물질적 영역이 더욱더 고요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관찰이다. 비물질적 영역보다 소멸의 편이 더욱 고요하다 하는 것이 둘째 관찰이다. 이와 같이 두 가지를 바르게 관찰하여, 게으르지 않고 정진하는 수행승들에게는 두 가지 과보 중 어느 하나가 기대된다. 즉, 현세에서 지혜를 증득하거나, 번뇌가 남아있는 이 해매는 생존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일이다."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물질적 영역에 태어나는 모든 생물과 비물질적 영역에 사는 모든 생물들은 소멸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난다.

(755)

그러나 물질적 영역을 잘 알고, 비물질적 영역에 안주하여 소멸에서 해탈한 사람들은 죽음을 버린 것이다."

(756)

"수행승들이여, 또 `두 가지 일을 바르게 관찰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라고 누가 그대들에게 묻거든 `있다'고 대답해라. 어째서 그런가? 수행승들이여, 신과 악마가 공존하는 세계, 사문, 바라문, 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존자가 `이것은 진리다.'고 생각한 것을, 성자들은 `이것은 허망하다'고 사실대로 바른 지혜를 가지고 본다. 이것이 하나의 관찰이다. 신과 악마가 공존하는 세계, 사문, 바라문, 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존자가 `이것은 허망하다'고 생각한 것을, 성자들은 `이것은 진리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써 보는 것이 둘째 관찰이다. 이와 같이 두 가지를 바르게 보아 게으르지 않고 정진하는 수행승에게는 두 가지 과보 중 어느 하나가 기대된다. 즉, 현세에서 지혜를 증득하거나, 번뇌가 남아있는 이 해매는 생존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일이다."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보라. 신과 세상 사람들은 내가 아닌 것을 나(我)라고 생각하고 명칭(名)과 형태(色)에 집착해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757)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이 사실과는 다르다. 왜냐 하면, 어리석은 자의 생각은 허망하기 때문이다. 지나가 버리는 것은 허망한 것이므로.

(758)

그러나 안정은 허망한 것이 아니다. 성자들은 이것을 진리로 안다. 그들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쾌락을 탐하지 않고 평안에 돌아간 것이다."

(759)

"수행승들이여, 또 `두 가지 일을 바르게 관찰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라고 누가 묻거든 `있다'고 대답해라. 어째서 그런가? 수행승들이여, 신과 악마가 공존하는 세계, 사문, 바라문, 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존자가 `이것은 안락이다.'라고 생각한 것을, 성자들은 `이것은 고뇌다.'라고 사실대로 바른 지혜로써 살핀다. 이것이 하나의 관찰이다. 신과 악마가 공존하는 세계, 사문, 바라문, 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존자가 `이것은 고뇌다.'고 생각한 것을, 성자들은 `이것은 안락이다.'고 사실대로 바른 지혜로써 살핀다. 이것이 둘째 관찰이다. 이와 같이 두 가지를 가지고 바르게 살피며, 게으르지 않고 정진하는 수행승에게는, 두 가지 과보 중 어느 하나가 기대된다. 즉, 현세에서 지혜를 증득하거나, 번뇌가 남아있는 이 해매는 생존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일이다."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있다고 할 수 있는 빛깔, 음성, 향기, 맛, 만져지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한결같이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것.

(760)

그것들은 실로 신이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같이 <안락>이라 인정되고 있다. 또한 그것이 멸할 때에는 그들은 그것을 <고뇌>라고 생각한다.

(761)

그러나 성인들은 자기의 신체를 단멸(斷滅)하는 것이 안락이라고 생각한다. 바르게 보는 사람들의 생각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정반대다.

(762)

다른 사람들이 <안락>이라 하는 것을 성자들은 <고뇌>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이 <고뇌>라고 하는 것을 성자들은 <안락>이라고 생각한다. 알기 어려운 진리를 보라. 무지한 사람들은 여기서 헤매게 된다.

(763)

덮여 있는 사람에게는 어둠이 있다. 바르게 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암흑이 있다. 선량한 사람에게는 펼쳐 보임(開顯)이 있다. 마치 볼 수 있는 사람에게 광명이 있는 것처럼. 이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짐승 같은 치인(痴人)은 안락의 곁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른다.

(764)

생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히고 생존의 흐름에 떠내려가, 악마의 영토에서 사는 사람은 이 진리를 깨닫기 힘들다.

(765)

성자들 말고 누가 이 경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 이 경지를 바르게 알면, 번뇌의 때가 묻지 않은 이가 되어 원만한 평안에 들어가리라."
스승(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은 기뻐하면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이 설법이 있을 때 육십 명의 수행승들은 집착이 없어져 마음이 더러움에서 해탈되었다.

제4장 의품(義品)

－ 뱀의 머리를 피하듯 욕망을 피하라

(766)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잘 될 때에는, 그는 참으로 인간이 갖고자 하는 것을 얻어서 기뻐한다.

(767)

욕망을 이루고자 탐욕이 생긴 사람이, 만일 욕망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그는 화살에 맞은 사람처럼 괴로워 번민한다.

(768)

뱀의 머리를 밟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것처럼, 모든 욕망을 피하는 사람은 바른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의 애착을 넘어서나.

(769)

농토, 집터, 황금, 마소(牛馬), 노비, 고용인, 부녀, 친척, 그밖에 여러 가지를 탐내는 사람이

있다면,

(770)

무력한 것(온갖 번뇌)이 그를 이기고 위험과 재난이 그를 짓밟는다. 그러므로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마치 파손된 배에 물이 새어들 듯이.

(771)

그래서 사람은 항상 바른 생각을 지키고, 모든 욕망을 회피해야 한다. 배에 스며든 물을 퍼내듯이, 그와 같은 욕망을 버리고 강을 건너 피안에 도달한 사람이 되라.

— 욕신의 동굴

(772)

동굴(욕신)속에 머물러 집착하고, 온갖 번뇌에 쌓여 미망(迷妄) 속에 빠져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집착에서 벗어날 수 없다. 참으로 이 세상 욕망을 버리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773)

욕구에 따라 생존의 쾌락에 붙잡힌 사람들은 해탈하기 어렵다. 남이 해탈을 시켜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미래와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러한 현재의 욕망, 또는 과거의 욕망에 탐착한다.

(774)

그들은 욕망을 탐하고 구하고 빠지고, 인식하고 부정(不正)에 친근하지만, 죽을 때에는 괴로움에 짓눌려 슬퍼한다. 여기서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하고.

(775)

그러므로 사람들은 여기서 배워야 한다. 세상에서 부정이라고 알려진 그 어떤 일에도 휩쓸려서는 안 된다. 사람의 목숨은 짧은 것이라고 현자(賢者)는 말하지 않았던가.

(776)

여러 가지 생존에 대한 집착에 붙들려 이 세상 사람들이 떨고 있는 것을 나는 본다. 못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존에 대한 애착을 떠나지 못한 채 죽음에 직면하여 울고 있다.

(777)

무엇인가를 내 것이노라고 집착해 동요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라. 그들의 모습은 메말라, 물이 적은 개울에서 허덕이는 물고기와 같다. 이 꼴을 보고 <내 것>이라는 생각을 말아야 한다. 여러 가지 생존에 대해 집착을 버리고.

(778)

현자는 양극단에 대한 욕망을 억제하고, 감각과 대상의 접촉을 잘 알아서 탐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조차 비난할 나쁜 짓을 하지 않고, 보고 듣는 일에 팔리지 않는다.

(779)

생각을 정리해 강을 건너라. 성인은 소유하고자 하는 집착에 더럽히지 않으며, 번뇌의 화살을 빼고 애써 정진하여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바라지 않는다.

- 성인은 비방에 동하지 않는다.

(780)

마음으로부터 화를 내고 남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 또한 마음이 진실한 사람이라도 남을 비방하는 일이 있다. 비방하는 말을 들을지라도 성인은 그것에 동하지 않는다. 성인은 무슨 일이나 마음이 거칠어지지 않는다.

(781)

욕심에 끌리고 소망에 붙들린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견해를 초월할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한 바를 그대로 행한다. 그는 또한 아는 대로 떠들어댈 것이다.

(782)

누가 묻지도 않는데 남에게 자기의 계율과 도덕을 선진하는 사람, 스스로 자기 일을 떠들고 다니는 사람은, 거룩한 진리를 갖지 못한 사람이라고, 진리에 도달한 사람들은 말한다.

(783)

편안하고 마음이 안정해진 수행승이 계율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노라 하면서 뽐내지 않고, 이 세상 어디에 있더라도 번뇌가 불타지 않는다면, 그는 거룩한 진리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진리에 도달한 사람들은 말한다.

(784)

때 묻은 교법을 미리 만들고 고치며, 치우쳐서 자기 안에서만 훌륭한 열매를 보는 사람은 <흔들리는 평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785)

모든 사물에 대한 고집을 확실히 알고 자기 견해에 대한 집착을 초월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비좁은 견해의 울타리 안에 갇혀 법을 등지고 또 집착한다.

(786)

사악(邪惡)을 끌어 없애버린 사람은, 이 세상 어디를 가든 모든 생존에 대해 미리 가지고 있는 편견이 없다. 사악을 물리친 사람은 허위와 교만을 버렸거늘, 어찌 윤회에 떨어질 것인가? 그에게는 이미 의지하고 가까이할 아무것도 없다.

(787)

모든 일에 기대고 의지하는 사람은 비난을 받는다. 그러나 기대고 의지함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비난할 수 있겠는가. 그는 집착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그는 이 세상에서 모든 편견을 끌어버린 것이다.

- 깨끗해지는 것은 견해에 달려 있다

(788)

‘으뜸가고 병(病)이 없는 청정을 나는 본다. 사람이 아주 깨끗해지는 것은 견해에 달려 있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을 으뜸으로 알고 청정을 생각하는 사람은, 견해(見解)를 가장 높은 경지에 도달해서 얻는 지혜로 생각한다.

(789)

만일 사람이 견해로 인해서 청정해질 수 있는 것이라면, 또 사람이 지식에 의해 괴로움을 버릴 수 있는 것이라면, 번뇌에 얽매인 사람이 바른 길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깨끗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편견이 있는 사람>이라 부른다.

(790)

바라문은 바른 길 말고는 본 것, 학문, 계율, 도덕, 사색 중 어느 것도 청정하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그는 재앙과 복에 때 묻지 않고 자아(自我)를 버려, 이 세상에서 재앙과 복의 원인을 만들지 않는다.

(791)

옛 스승을 버리고 다른 스승을 의지하며, 번뇌의 동요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집착을 뛰어넘을 수 없다. 그들은 잡았다가는 또 버린다. 원숭이가 나뭇가지를 잡았다가 다시 놓아 버리듯이.

(792)

스스로 맹세와 계율을 가진 사람은 생각에 잠겨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베에다에 의해 알고 진리를 이해하며, 잡다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793)

그는 모든 사물에 대해서 보고 배우고 생각한 것을 자제하고 지배한다. 이렇게 관찰하고 덮인 것 없이 행동하는 사람을, 어찌 이 세상에서 망상 분별할 수 있겠는가.

(794)

그들은 망상 분별하지 않고, 어떤 것을 유달리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으며, <궁극의 청정>을 말하지도 않는다. 결박되어 있는 집착을 버리고 어떠한 세상 사물에 대해서도 바라는 것이 없다.

(795)

바라문은 번뇌의 범위를 초월해 있다. 그가 무엇을 보거나 알아서 집착하는 일은 없다. 그는 욕심을 부리지도 않고, 또 욕심에서 떠나려고 애쓰지도 않는다. 그는 이 세상에서는 이것이 으뜸이라고 부질없이 집착하지 않는다.

- 자신의 생각이 으뜸이라는 아집

(796)

세상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보는 것들을 <으뜸가는 것>이라 생각하고, 여러 가지 견해에 붙들려 그밖에 다른 것들은 다 <뒤떨어졌다>고 한다. 그러므로 그는 여러 가지 논쟁을 넘어설 수가 없다.

(797)

그는 본 것, 배운 것, 계율이나 도덕, 사색한 것에 대해서 자신 안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서, 그것만을 집착한 나머지, 그 밖에 다른 것은 모두 뒤떨어진 것으로 안다.

(798)

사람이 어떤 일에만 치중한 나머지, 그 밖에 다른 것은 모두 유치하다고 본다면, 그것은 대단한 장애라고, 진리에 도달한 사람들은 말한다. 그러기 때문에 수행승은 본 것, 배운 것, 사색한 것, 또는 계율이나 도덕에 구애를 받아서는 안 된다.

(799)

지혜에 대해서도, 계율이나 도덕에 대해서도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자기를 남과 동등하거나 남보다 못하다거나 또는 뛰어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800)

그는 이미 가지고 있던 견해를 버리고 집착하지 않으며, 지혜에 대해서도 특별히 의존하지 않는다. 그는 실로 여러 가지 다른 견해로 분열된 사람들 틈에 있으면서 당파에 맹종하지 않고, 어떤 견해일지라도 그대로 믿는 일이 없다.

(801)

그는 양극단에 대해서, 여러 생존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원하는 바가 없다. 모든 사물에 대해 단정할 만한 고집이 그에게는 조금도 없다.

(802)

그는 이 세상에서 본 것, 배운 것, 또는 사색한 것에 대해서 티끌만한 망상도 갖지 않는다. 어떠한 견해에도 집착하지 않는 바라문이, 이 세상에서 어찌 망상 분별하겠는가.

(803)

그들은 망령된 생각으로 분별하지 않고, 그 어느 한 가지 견해만을 유달리 존중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모든 가르침을 원하지도 않는다. 바라문은 계율이나 도덕에 이끌리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람은 피안(彼岸)에 이르러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 모든 것은 변하고 없어진다.

(804)

아, 짧도다. 인간의 생명이며. 백 살도 못되어 죽어버리는가.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결국은 늙어서 죽는 것을.

(805)

사람들은 내 것이라고 집착한 물건 때문에 근심한다. 자기가 소유한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세상 것은 모두 변하고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집에 머물러 있지 마라.

(806)

사람이 '이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물건, 그것은 그 사람의 죽음으로 잃게 된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현명하게 이 이치를 깨닫고, 내 것이라는 관념에 사로잡히지 마라.

(807)

이를테면, 눈을 뜬 사람은 꿈속에서 만난 사람을 다시 볼 수 없듯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 이 세상을 떠나면 다시는 만날 수가 없다.

(808)

누구누구라고 하던 사람들도 한번 죽은 후에는 그 이름만이 남을 뿐이다.

(809)

내 것이라고 집착하여 욕심 부리는 사람은, 걱정과 슬픔과 인색함을 버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안온함을 얻은 성인들은 소유를 버리고 떠난 것이다.

(810)

싫어하고 물러나 행을 닦는 수행승은 멀리 떨어진 곳을 즐겨 찾는다. 그가 생존의 영역 속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에게 어울리는 일이다.

(811)

성인은 아무것에도 머무르지 않고,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다. 또 슬픔도 인색함도 그를 더럽히지 않는다. 마치 연꽃잎에 물이 묻지 않는 것처럼.

(812)

이를테면, 연꽃잎에 물방울이 묻지 않듯이, 성인은 보고 배우고 사색한 어떤 것에도 더럽혀지지 않는다.

(813)

사특한 악을 털어버린 사람은 보고 배우고 생각한 어떤 일에도 유달리 집착하거나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다른 것에 의해서 깨끗해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탐내지 않고 탐욕에서 떠나려 하지도 않는다.

- 성교에 탐닉하는 자

(814)

장로 텃사 멧테야가 말했다.

"스승이시여, 성교에 탐닉하는 자의 과멸을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의 가르침을 듣고 우리도 멀리할 것을 배우겠습니다."

(815)

스승께서는 대답하셨다.

"멧테야여, 성교에 탐닉하는 자는 가르침을 잃고, 그 행은 사특하고 악하다. 이것은 그들 안에 있는 천한 요소이다.

(816)

여태까지는 독신으로 살다가 나중에 성교에 빠지는 자는, 수레가 길에서 벗어난 것과 같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천한 범부라 부른다.

(817)

지금껏 그가 가졌던 명예와 명성을 다 잃게 된다. 이 일을 보고 성교를 끊도록 힘쓰라.

(818)

그는 온갖 욕심에 사로잡혀 가난뱅이처럼 생각만 한다. 이런 사람은 남의 좋은 평판을 듣고 부끄러워한다.

(819)

남에게 욕을 먹으면 칼날을 세우고 거짓말을 한다. 이것이 그에게 커다란 난점이다.

(820)

독신을 지키고 있을 때에는 여러 사람에게서 지혜로운 분이라고 인정받던 사람도, 성교에 빠지기 때문에 마침내 어리석은 사람처럼 괴로워한다.

(821)

성인은 이 세상에서 앞뒤로 이러한 재난이 있음을 알아, 굳게 독신을 지키고 성교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822)

속된 일에서 떠나는 것을 배우라. 이것은 모든 성인에게 있어 으뜸가는 일이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 자기가 최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다만 평안에 가까워졌을 뿐이다.

(823)

성인은 온갖 욕망을 거들떠보지 않으며, 이를 떠나 행하고 흐름을 건넜기 때문에, 온갖 욕망에 속박되어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한다."

- 논쟁을 삼가라

(824)

그들은 '이것만이 청정하다'고 고집하면서, 다른 가르침은 청정하지 않다고 말한다. 자기가 따르고 있는 것만이 선(善)이라 하면서, 서로 다른 진리를 고집하고 있다.

(825)

그들은 토론을 좋아하고, 집회에 나가 서로 상대방을 어리석은 자라고 낙인하며, 스승을 업고서 논쟁을 벌인다. 자신이 칭찬을 받고자 스스로를 진리에 도달했다고 하면서.

(826)

집회에서 논쟁에 참가한 사람은 칭찬을 받고자 애를 쓴다. 그리고 패배하면 풀이 죽어 논적(論敵)의 결점을 찾다가 남한테서 비난을 받고 화를 낸다.

(827)

모든 심판자들이 그가 말한 바에 대해서 `그대는 패배했다. 논파 당했다.'고 하면, 논쟁에 패배한 자는 슬피 울고, `그는 나를 이겼노라.'고 비탄에 잠긴다.

(828)

이러한 논쟁이 수행자들 사이에 일어나면, 이들 가운데에 득의(得意)와 실의가 엇갈린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논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칭찬을 받는 것 이외에 아무런 이익도 없기 때문이다.

(829)

또는 집회에서 의견을 말하여 그로 인해 칭찬을 받고, 속으로 기대했던 이익을 얻어, 그 때문에 기뻐 우쭐해진다.

(830)

우쭐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를 해치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교만하고 허세를 부린다. 이것으로 미루어 논쟁을 해서는 안 된다. 모든 통달한 사람들은 그로 인해 청정이 얻어진다고는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831)

이들테면, 국왕의 녹을 먹고 사는 용사가 상대편 용사를 찾아 환성을 지르며 뛰어나는 것과 같다. 용사여, 그 토론자가 있는 곳으로 가라. 상대가 되어 싸울 자는 이전에도 거의 없었다.

(832)

특수한 철학적 견해를 가지고 논쟁하여 `이것만이 진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대는 그들에게 말하라. `논쟁이 일어나도 그대와 상대할 사람은 여기에는 없다.'고.

(833)

또 그들은 번뇌의 군대를 쳐부수고, 바른 견해가 모든 편견과 모순되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서 그대는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파수우라여, 오랫동안 <으뜸가는 것>이라 해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다.

(834)

그런데 그대는 `나야말로 승리를 거두리라'고 생각하며, 마음속에 여러 가지 편견을 가지고, 사특한 악을 물리친 사람(부처님)과 보조를 같이 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진리에 이르지 못한

다.

- 생각을 떠난 사람에게는 결박이 없다

(835)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예전에 도를 닦을 때에 애착과 혐오와 탐욕이라는 세 마녀(魔女)를 보고도 그녀들과 어울리고 싶다는 욕망조차 일어나지 않았다. 오줌똥으로 가득 찬 그 여자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그녀들에게 발을 대기조차 싫었다."

(836)

마아간디야가 말했다.

"만약 당신이 여러 왕들이 구했던 여자, 그와 같은 보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신은 어떠한 견해를 어떠한 계율, 도덕, 생활, 법 그리고 어떠한 생존 상태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837)

스승께서 대답하셨다.

"마아간디야여, 나는 이런 것을 말한다고 정해진 것이 없다. 모든 사물에 대한 집착이라 분명히 알고, 모든 견해에서 과오를 보고 고집하는 일이 없어, 살피면서 마음의 평안을 알았노라."

(838)

마아간디야가 말했다.

"성인이시여, 당신께서는 생각해서 구성한 정설(定說)을 고집함이 없이 <마음의 평안>이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다른 현인(賢人)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839)

스승은 대답하셨다.

"마아간디야여, 견해에 의해서나 학문에 의해서나, 지식이나 계율, 혹은 도덕에 의해서 청정해질 수 있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견해와 학문과 지식이 없어도, 계율과 도덕을 지키지 않고도 청정해질 수 있다고 하지 않는다. 그것들을 버리고 고집하지 않고 걸려 있지 않으며, 평안하고 덧없는 생존을 원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마음의 평안이다."

(840)

마아간디야가 말했다.

"만약 견해와 학문과 지식과 계율이나 도덕에 의해서도 청정해질 수 없다 하고, 또한 무견해, 무학, 무식에 의해서도, 계율과 도덕을 지키지 않는 것에 의해서도, 청정해질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을 혼미케 하는 가르침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견해에 의해 청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841)

스승은 대답하셨다.

"마아간디야여, 그대는 자기 소견에 의해서 물어 보기 때문에 집착된 일에 빠진 것이다. 그대는 이 마음의 평안에 대해서도 조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래서 그대는 나를 보고 사람을 미혹케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842)

`같다'든가 `뛰어났다'든가 혹은 `뒤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는 그런 생각 때문에 다툼 것이다. 그러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에게는 `같다'든가 `뛰어났다', `뒤떨어졌다'는 생각이 없다.

(843)

그 바라문은 어째서 `내 말은 진실하다.'고 하는가? 또 그는 `네 말은 허위다.'라고 해서 누구와 논쟁하겠는가? 같다든가 같지 않다든가 하는分別이 없어진 사람이 누구와 논쟁을 벌이겠는가?

(844)

집을 버리고 거처도 없이 방황하며, 마을에서 친교(親交)를 갖지 않는 성인은 온갖 욕망을 떠나 미래에 희망을 두지도 않으며, 또한 군중에게 이론(異論)을 내세워 논란을 벌여서도 안 된다.

(845)

용(수행의 완성자)은 모든 편견을 떠나 세상을 편력하기 때문에, 고집을 부려 논쟁해서는 안 된다. 이를테면, 수련이나 가시돋힌 연꽃이 물이나 진흙에 더럽히지 않듯이, 성인은 평안을 말하는 사람이므로 탐내지도 않고 욕망에도 세속에도 더럽히지 않는다.

(846)

베에다에 통달한 사람은 견해나 사색에 있어서 교만하지 않다. 그의 본성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업에 의해서도 학문에 의해서도 이끌리지 않는다. 그는 집착하는 곳에도 끌려 들지 않는다.

(847)

생각을 떠난 사람에게는 결박이 없다. 지혜에 의해서 해탈한 사람에게는 미혹(迷惑)이 없다. 생각과 견해를 고집한 사람들은 남과 충돌하면서 세상을 방황한다."

- 죽기 전에 애착을 떠나라.

(848)

"어떻게 보고, 어떤 계율을 지키는 사람을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고오타마시여, 그 가장 뛰어난 사람을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849)

스승은 대답하셨다.

"죽기 전에 애착을 떠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는 미래에 대해서도 별로 걱정할 바가 없다."

(850)

그 성인은 화내지 않고, 두려워 떨지 않고, 우쭐거리지 않고, 후회하지 않으며, 주문을 외우고 허둥거리지 않고 말을 삼간다.

(851)

미래를 원하지도 않고, 과거를 추억하며 우울해 하지도 않는다. 감관에 닿는 모든 대상에서 멀리 떨어질 것을 생각하며, 여러 견해에 이끌리는 일이 없다.

(852)

탐욕에서 멀리 떠나 거짓 없고 욕심 내지 않으며, 인색하거나 거만하지 않으며, 미움 받지 않고 두 가지 말(兩舌)을 하지 않는다.

(853)

유쾌한 일에 빠지지 않고 거만하지도 않으며, 부드럽고 상냥하게 말하며, 믿는 일도 없고 욕심을 버리는 일도 없다.

(854)

이익을 바라서 배우는 것이 아니다. 이익이 없을지라도 성내지 않는다. 애착 때문에 남을 거역하지 않으며, 맛있는 음식을 탐닉하지도 않는다.

(855)

평온해 있고, 항상 바른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서 남을 자기와 같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또 자기가 뛰어났거나 못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에게는 번뇌의 불이 타오르지 않는다.

(856)

걸림이 없는 사람은 이치를 알아 걸림이 없는 것이다. 그에게는 생존을 위한 애착이나 생존을 끊어 없애려는 애착이 없다.

(857)

모든 욕망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그야말로 <평안한 사람>이라고 나는 말한다. 그에게는 얽매임의 매듭이 없고, 이미 모든 집착을 뛰어 넘었다.

(858)

그에게는 자식도 가축도 논밭도 주택도 없다. 이미 얻은 것도 아직 얻지 못한 것도 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다.

(859)

범부와 사문 또는 바라문들이 그를 비난하여 탐욕의 허물이 있다고 하겠지만, 그는 욕심 같은 것을 생각 해 본 적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여러 가지 논의를 받고도 동요하지 않는다.

(860)

성인은 탐욕을 떠나 인색하지 않으며 `자기는 잘났다.'든가 `자기는 동등하다.'든가 `자기는 못났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분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망상분별에 따르지도 않는다.

(861)

그는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다. 또 무소유를 걱정하지도 않는다. 그는 모든 사물에 이끌리지 않는다. 그야말로 참으로 <평안한 사람>이라 할 만하다.

- 투쟁과 슬픔은 사랑에서 비롯된다.

(862)

"투쟁, 논쟁, 근심, 슬픔, 인색, 만심(慢心), 오만, 악구(惡口)는 어디서 나타난 것인지, 어디서 일어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863)

"투쟁, 논쟁, 근심, 슬픔, 인색, 만심, 오만, 악구는 사랑하고 좋아하는 데에서 일어난다. 투쟁과 논쟁에는 인색이 따르고, 논쟁이 일어나면 악구가 나온다."

(864)

"세상에서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 인연이 되어 일어납니까? 또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욕심은 무슨 인연으로 생기며, 사람이 내세에 대해서 가지는 희망과 그 성취는 무슨 인연으로 생깁니까?"

(865)

"세상에서 사랑하고 좋아하는 일과 욕심은 욕망이 인연이 되어 생긴다. 또 사람들이 내세에 대해 갖는 희망과 성취도 이것을 인연으로 하여 일어난다."

(866)

"그러면 세상에서 욕망은 무엇을 인연으로 일어납니까? 또 형이상학적인 단정은 무엇에서 생깁니까? 분노와 거짓말과 의혹과 사문이 말하는 일들은 무엇에서 일어납니까?"

(867)

"세상에서 쾌(快) 불쾌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욕망이 일어난다. 모든 물질적 존재에 있어 생기고 소멸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외적인 사물에 사로잡혔다고 단정을 내린다.

(868)

분노와 거짓말과 의혹, 이런 것도 쾌 불쾌의 두 가지가 있을 때 나타난다. 의혹이 있는 자는 지혜의 길에서 배우라. 사문은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말한 것이다."

(869)

"쾌 불쾌는 무엇을 인연으로 일어납니까? 또 무엇이 없을 때 이것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생기

고 소멸하는 뜻과 그 인연이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870)

"왜 불쾌는 접촉을 인연으로 해서 일어난다. 접촉이 없을 때에는 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생기고 소멸한다는 뜻과 그 인연이 되어 있는 접촉을 나는 너에게 말한다."

(871)

"세상에서 접촉은 무엇을 인연으로 일어납니까? 집착은 무엇에서 생깁니까? 무엇이 없을 때 아집(我執)이 없어집니까? 또 무엇이 소멸했을 때 접촉을 없앨 수 있습니까?"

(872)

"명칭과 형태로 인해서 접촉이 일어난다. 모든 집착은 요구에 의해서 생긴다. 요구가 없을 때는 아집도 없으며, 형태가 소멸했을 때는 접촉도 없어지고 만다."

(873)

"어떻게 행하는 자에게 형태가 소멸됩니까? 소멸되는 모습을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나는 이같이 생각했습니다."

(874)

"있는 그대로 생각하는 자도 아니고, 잘못 생각하는 자도 아니며, 생각이 없는 자, 생각을 소멸한 자도 아니다. 이렇게 행하는 자의 형태는 소멸한다. 그러나 넓혀지는 의식은 생각을 인연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875)

"우리가 당신께 묻은 것을 당신께서는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것을 당신께 묻겠으니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어떤 현자들은 이 상태야말로 사람의 으뜸가는 청정한 경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청정한 경지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876)

"이 세상의 어떤 현자들은 이 상태야말로 최상의 청정한 경지라고 말한다. 또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단멸(斷滅)을 말하고, 정신도 육체도 남김없이 소멸하는 데에 으뜸가는 청정한 경지가 있다고 말한다."

(877)

그러나 생각이 깊은 성인은, 이 사람들은 '결림이 없다.'는 것, 여러 가지 결림을 알고 '현자는 여러 가지 덧없는 생존을 받지 않는다.'고 알아, 해탈된 사람은 논쟁에 끼어들지 않는다."

- 진리를 안 사람은 다투지 않는다.

(878)

세상 학자들은 저마다 견해를 가지고, 서로 다른 편견을 가지고, 자기야말로 진리에 통달한

사람이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주장한다. '이렇게 아는 사람은 진리를 알고 있다. 이것을 비난하는 사람은 아직 완전한 사람(如來)이 아니다.'라고.

(879)

그들은 이렇듯 다른 편견을 가지고 논쟁하며 '저 사람은 어리석어 진리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한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자기야말로 진리에 이른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들 중에 누구의 말이 진실한 것일까?

(880)

만약 남의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고 저속하며 지혜가 뒤떨어진 자라면, 그들은 모두 각자의 견해만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고 지혜가 뒤떨어진 사람인 것이다.

(881)

또 만약 자기의 견해로 인해 깨끗해지고 완전히 청정한 지혜를 가진 자, 진리를 터득한 자, 밝은 지혜를 지닌 자가 된다면, 그들의 견해는 그러한 점에서 똑같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지혜가 뒤떨어진 자는 없을 것이다.

(882)

어리석은 사람들이 서로 남의 말만 하는 것을 듣고, 나는 '이것은 진실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각자의 견해를 진실이라 생각한다. 그러기 때문에 남을 <어리석은 자>라고 보는 것이다.

(883)

어떤 사람들이 '진리다, 진실하다'고 말하는 그 견해를 다른 사람들은 '허위다, 허망하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서로 다른 편견을 가지고 논쟁한다. 어째서 사문들은 동일하게 말하지 않는 것일까?

(884)

진리는 하나뿐, 둘은 없다. 그 진리를 안 사람은 다투는 일이 없다. 그들은 각기 다른 진리를 찬양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문들은 동일한 것을 말하지 않는다.

(885)

스스로 진리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은, 어째서 여러 가지 다른 진리를 내세우는 것일까? 그들은 여러 가지 다른 진리를 남에게서 들은 것일까? 아니면, 자기의 사색만을 따르고 있는 것일까?

(886)

세상에 다른 영원한 진리는 없다. 다만 영원한 것으로 상상할 따름이다. 그들은 여러 가지 견해에 대해서 사색하고 탐구하여 '내 말은 진리다.', '다른 사람의 말은 허망하다.'고 두 가지로 말하는 것이다.

(887)

견해나 견해 내려오는 학문이나 계율, 서원, 사색 등에 의존하여 남의 말을 의존하고, 자기 학설의 단정을 기빠하면서 '반대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진리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한다.

(888)

반대자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보는 동시에, 자기는 진리에 이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스스로 자기는 진리에 이른 사람이라 하면서 남을 멸시한다.

(889)

그는 그릇된 망견(妄見)으로 차 있고, 교만에 넘쳐 있다. 자기는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제일인자(第1人者)라 자만한다. 그의 견해는 자신이 볼 때 것처럼 완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890)

만약 남이 자기를 어리석다고 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자신도 상대와 함께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다. 또한 자기를 베에다의 달인(達人), 현자라 부를 수 있다면, 여러 사문 중에 어리석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891)

'내 학설 이외의 가르침을 말하는 사람들은, 청정을 등지고 완전한 사람(如來)이 아니다.'라고 일반 외도(外道)들은 말한다. 그들은 자기의 견해에 빠져 때가 끼어 있기 때문이다.

(892)

자기 학설만을 청정하다 말하고, 남의 가르침에는 청정이 없다고 한다. 이설(異說)의 무리들은 이와 같이 집착하여 자기의 길만을 완고히 내세운다.

(893)

자기의 도(道)를 완고히 내세우고 있지만, 어느 누구를 어리석은 사람이라 볼 수 있을 것인가? 남의 말을 우매하다거나 부정(不淨)하다고 한다면, 그는 스스로 옹고집이 되고 말 것이다.

(894)

학설의 결정에 있어서 스스로 잘 헤아리면서도 다시 그는 세상에서 논쟁하게 된다. 모든 철학적 단정(斷定)을 버렸다면 사람들은 고집을 부리지 않을 것이다.

- 논쟁의 결과는 칭찬과 비난

(895)

이러한 견해를 고집하면서 '이것만이 진리다.'라고 논쟁하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남의 비난을 받는다. 다만 일부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뿐.

(896)

가령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보잘 것 없는 것이어서 평안을 얻을 수는 없다. 논쟁의 결과는 칭찬과 비난 두 가지라고 나는 말한다. 이 도리를 보더라도 그대들은 논쟁이 없는 경지를 안온하게 알아 논쟁을 하지 마라.

(897)

대개 범속한 무리들이 갖는 이러한 세속적인 견해를 지자(知者)들은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는 보고 듣는 일에 대해 '이것이다'라고 단정하지 않기 때문에 걸리는 일이 없다. 그는 무엇 때문에 걸릴 것인가?

(898)

계율을 최상의 것으로 받드는 사람들은 '계를 지킴으로써 청정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며 계를 받는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따르자. 그러면 청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하면서, 진리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덧없는 생존에 유혹되고 있는 것이다.

(899)

만약 그가 계율이나 도덕을 깨뜨렸다면 그는 두려워 떤다. 그는 '이곳에만 청정이 있다.'라고 갈망한다. 이를테면, 카라반(隊商)에서 이탈된 장사치가 카라반을 찾고, 집을 떠난 나그네가 집을 찾는 것처럼.

(900)

모든 계율과 맹세도 저버리고, 세상에서 죄과가 있든 없든 이 행위를 다 버리고, 청정하다든가 부정하다든가 하면서 무엇을 구하는 바도 없이, 그것들에게 얽매이지 말고 행하여라. 물론 평안을 고집하지도 말고.

(901)

하기 싫은 고행을 하며, 혹은 보고 배우고 생각한 것으로 인해 음성을 높여 청정을 찬탄하는 이는, 덧없는 생존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한 것이다.

(902)

원하고 구하는 이에게는 욕심이 있다. 또 계략이 있을 때는 두려움이 있다. 이 세상에서 생도 사도 없는 사람, 그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갖고자 할 것인가?

(903)

어떤 사람이 <가장 뛰어난 것>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은 <천한 것>이라고 한다. 이 중에서 어느 것이 참다운 주장일 것인가? 그들은 저마다 자기야말로 진리에 이른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904)

그들은 자기의 가르침을 완전하다 하고, 남의 가르침을 천박하다고 한다. 그들은 이렇게 서로 다른 편견을 가지고 논쟁하며, 저마다 자기 가설(假說)을 진리라고 말한다.

(905)

만약 남에게 비난받고 있기 때문에 천박하다고 한다면 모든 가르침 가운데서 뛰어난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주장만을 고집하고, 남의 가르침은 덜 됐다고 하기 때문이다.

(906)

그들은 자기의 도(道)를 자찬하는 것처럼, 자기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있다. 그렇다면 모든 논의(論議)는 진실하다고 했어야 할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논의는 모두가 청정하기 때문이다.

(907)

바라문들은 남에게 이끌리지 않는다. 또한 여러 가르침에 대해서 단정을 내리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논쟁을 초월해 있다. 남의 가르침을 가장 훌륭하다고 보지도 않기 때문이다.

(908)

'우리는 안다. 우리는 본다. 이것은 사실이다.'라는 견해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청정을 알고 있다. 비록 그가 보았다 하더라도 그 자신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그들은 바른 길에서 벗어나 다른 일에 의해 청정이 있다고 말한다.

(909)

보는 사람은 명칭과 형태를 보는 것이다. 보고 나서는 그것들을 상주(常住), 안락, 실아(實我)라고 인정한다. 보고 싶은 사람은 많은 적든 그렇게 볼 것이다. 진리에 통달한 사람들은 그렇게 봄으로써 청정해진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910)

집착하여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견해를 존중하므로 그를 이끌기란 매우 어렵다. 자기가 믿고 있는 것만이 옳다고 하며, 그것에서만 청정을 인정하는 논자(論者)는 그와 같이 일방적으로만 본 것이다.

(911)

바라문은 바르게 알고 망상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다. 자기 소견에 흐르지 않고 지식에도 기대지 않는다. 그는 범속한 모든 견해를 알고 마음에 두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집착하고 있지만.

(912)

성자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속박을 버리고, 논쟁이 벌어졌을 때에도 어느 한쪽에 가담하지 않는다. 그는 불안한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평안하고 태연하며 집착이 없다.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집착하고 있지만.

(913)

지나간 허물은 버리고 새로운 허물을 만들지 않으며 욕심 버리지 않고 논쟁에 집착하는 일도

없다. 현자는 모든 견해를 벗어나 세상에 물들지 않으며, 자책할 일도 없다.

(914)

현자는 보고 배우고 생각한 어떤 일에 대해서도 맞서지 않는다. 그는 부담에서 해방되어 있다. 그는 계락을 꾸미지 않고, 쾌락에 빠지지 않으며, 구하는 일도 없다.

- 밖에서 고요함을 찾지도 말라

(915)

"태양의 후예이신 위대한 선인(仙人=부처님)께 세속에서 멀리 떠나는 일과 평안의 경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행자는 어떻게 보아야 세상의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평안에 들 수 있겠습니까?"

(916)

스승께서는 대답하셨다.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의식의 근본을 모두 제지(制止)하고, 안에 도사리고 있는 온갖 애착까지도 눌러 버리도록 항상 명심하여 배우라.

(917)

안팎으로 될 수 있는 한, 이치를 알아 버려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만한 마음을 내서는 안 된다. 진리에 도달한 사람은 그것이 평안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918)

이로 말미암아 `나는 뛰어나다.'든가 `나는 뒤떨어졌다.'든가 혹은 `나는 대등하다.'라고 생각하는 안 된다. 여러 가지 질문을 받더라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망령되이 생각하지 마라.

(919)

수행자는 마음이 평안해야 한다. 밖에서 고요함을 찾지도 마라. 안으로 평안하게 된 사람은 고집할 것이 없다. 하물며 어찌 버릴 것이 있으랴?

(920)

바다 속에는 파도가 일지 않고 잔잔하듯이, 고요히 멎어 움직이지 마라. 수행자는 무슨 일이나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

(921)

"눈을 뜨신 분께서는 몸소 체험하신 법, 위험과 재난의 극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바라옵건대, 바른 길을 일러 주십시오. 계율규정(戒律規定)이나 정신안정의 법도 말씀해 주십시오."

(922)

"눈으로 보는 것에 탐내지 마라. 저속한 이야기에서 귀를 멀리 하라. 맛에 탐착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마라.

(923)

고통을 겪을 때라도 수행자는 결코 비탄에 빠져서는 안 된다. 생존을 탐내서는 안 된다. 무서운 것을 만났을 때도 떨어서는 안 된다.

(924)

음식이나 옷을 얻더라도 목히거나 쌓아 두어서는 안 된다. 또 그런 것을 얻을 수 없다 해서 걱정해서도 안 된다.

(925)

마음을 안정시켜라. 당황해서는 안 된다. 후회하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그리고 수행자는 한가하고 고요한 앓을 자리와 누울 곳에서 살아야 한다.

(926)

잠을 많이 자서는 안 된다. 부지런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게으름과 거짓과 담소(淡笑)와 유희와 이성간의 교제와 걸치레를 버려라.

(927)

내 제자는 아타르바 베에다의 주법(呪法)과 해몽과 관상과 점(占星)을 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새 짐승의 소리를 듣고 점치거나, 임신술(妊娠術)이나 의술(醫術)을 행해서도 안 된다.

(928)

수행자는 비난을 받더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칭찬을 받더라도 우쭐거리지 마라. 탐욕과 인색과 성냄과 욕설을 멀리해야 한다.

(929)

수행자는 장사해서는 안 된다. 결코 남을 비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가까이 교제해서도 안 된다.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만나지 마라.

(930)

또 수행자는 거만해서는 안 된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책략적인 언사를 써서도 안 된다. 오만 불손하거나 불화를 가져 올 말을 해서는 안 된다.

(931)

거짓말을 피하라. 조심해서 속이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생활에 대해서나 지혜에 대해서, 혹은 계율이나 도덕에 대해서, 자기가 남보다 뛰어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932)

출가 수행자나 말 많은 세속인들한테서 욕을 먹거나 불쾌한 말을 많이 듣더라도 거친 말로 대꾸해서는 안 된다. 선한 사람들은 적대적인 대답을 하지 않는다.

(933)

수행자는 이 이치를 알아, 잘 분별하고 늘 조심해서 배우라. 모든 번뇌의 소멸된 상태가 <평안>임을 알고, 고오타마의 가르침에 게을리 하지 마라.

(934)

그는 스스로 이기고 남에게 지는 일이 없다. 남에게서 전해 들은 것이 아니고 스스로 증득(證得)하는 이치를 보았다. 그러므로 여래의 가르침에 게으르지 말고, 항상 예배하고 따라 배우라."

(935)

이와 같이 스승(부처님)은 말씀하셨다.

— 아름다운 모양에 애착하지 말라

(935)

말다툼하는 사람들을 보라. 몽둥이를 드는 데서 공포가 생긴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해서 그것을 멀리했는지, 멀리한 일에 대해서 말하리라.

(936)

물이 적은 곳에 있는 물고기처럼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또 서로 반목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나는 두려워졌다.

(937)

이 세상 어디나 굳건하지는 않다. 어느 곳이나 모두 흔들리고 있다. 나는 내가 의지해야 할 곳을 찾았지만, 이미 죽음과 고통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 곳은 없었다.

(938)

온갖 살아 있는 것이 결국 장애에 부딪치는 것을 보고 나는 불쾌해졌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마음속에 차마 볼 수 없는 번뇌의 화살이 박혀 있는 것을 보았다.

(939)

이 화살에 쏘인 자는 사방을 헤맨다. 이 화살을 뽑아 버리면 헤매지도 않고 가라앉지도 않는다.

(940)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학문을 배운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속박의 굴레에 빠져서는 안 된다. 모든 욕망을 완전히 알고 나서 자기의 평안을 배우라.

(941)

성자는 성실해야 한다. 오만하지 않고 사특한 탐욕과 인색을 초월해야 한다.

(942)

마음을 편안히 갖는 사람은 잠과 권태와 우울을 이겨내야 한다. 게을러서는 안 된다. 교만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된다.

(943)

거짓말을 피하라. 아름다운 모양에 애착을 주지 마라. 또 교만한 마음을 잘 알아라. 포악하지 마라.

(944)

낡은 것을 좋아하지 마라. 새로운 것에 매혹당하지도 마라. 사라져 가는 것을 슬퍼하지 마라. 잡아끄는 것(애착)에 붙잡히지 마라.

(945)

나는 이끄는 자를 탐욕, 거센 흐름, 빨아들이는 욕구라고 하며, 계략, 포착, 넘기 힘든 욕망의 진흙탕이라고도 한다.

(946)

성자는 진실에서 떠나지 않고, 바라문은 욕지(평안)에 서 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평안에 이른 사람>이라 불린다.

(947)

그는 지자(智者)이고 베에다의 달인(達人)이다. 그는 이치를 알아 걸림이 없다. 그는 세상에서 바르게 행동하고,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부러워하지 않는다.

(948)

이 세상에서 모든 욕망을 초월하고, 극복하기 어려운 집착을 넘어서는 사람은 떠내려가지 않고, 얽매이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고 사모하여 애태우지도 않는다.

(949)

과거에 있었던 것(번뇌)을 말려 버리라. 미래에는 그대에게 아무것도 없게 하라. 중간(현재)에도 아무 일이나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평안해지리라.

(950)

명칭과 형태에 대해서 내 것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 또는 무엇인가 없다고 해서 근심하지 않는 사람, 그는 참으로 늙지 않는다.

(951)

`이것은 내 것이다' 또는 `이것은 남의 것이다' 하는 생각이 없는 사람, 그는 내 것이라는 관념이 없으므로, 내게는 없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는다.

(952)

시기하지 않고, 탐내지 않으며, 흔들려 괴로워하지 않고, 만물에 대해 평등하다. 떨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 대해 묻는 이가 있거든, 나는 그의 아름다운 점을 이렇게 말하리라.

(953)

흔들려 괴로워하지 않고,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작위(作爲)도 있을 수 없다. 그는 노작(勞作)에서 벗어나 가는 곳마다 안온을 본다.

(954)

성자는 자기가 대등한 사람들 속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못난이들 속에 있다거나 잘난 사람들 속에 있다고도 하지 않는다. 그는 평안에 돌아가 인식하지 않고, 취(取)하거나 버리지 않는다.

- 수행자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

(955)

존자(尊者) 사아리뿔타는 여쭙었다.

"저는 아직 본 일도 없고 누구에게서 들은 일도 없습니다. 중생의 주인이신 스승께서 도솔천에서 내려오신, 그와 같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956)

눈 있는 사람은 신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모든 암흑을 벗겨 버리고 홀로 법의 즐거움을 받으셨습니다.

(957)

걸림 없이, 거짓 없이 오신 스승, 눈뜬 사람인 당신께, 속박된 많은 무리들을 위해 묻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958)

수행자는 세상이 싫어 사람이 없는 곳이나 나무 아래, 혹은 묘지를 사랑하고 산골짜기의 동굴 속에 거처합니다.

(959)

그리고 여러 곳에 있지만, 그곳에는 얼마나 무서운 일이 있을 것인가? 수행자는 소리 없는 곳(無聲處)에 기거하더라도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960)

아무도 가보지 않는 곳으로 갈 때에는 얼마간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행자는 외딴 곳에 기거하더라도 그러한 위험은 이겨내야 합니다.

(961)

부지런히 정진하는 수행자에게는 어떠한 변제가 있습니까? 그의 행동 범위는 어떠한 것입니까? 그가 지키는 계율이나 맹세는 어떠한 것입니까?

(962)

마음을 안정시켜 바르게 생각하는 어진 사람은 어떠한 학문을 몸에 지녀 자기에게 묻는 때를
씻어 버리는 것입니까? 마치 대장장이가 은(銀)의 때를 벗겨버리듯이."

(963)

스승께서 대답하셨다.

"사아리꽃타여, 세상이 싫어 인적이 끊어진 곳에 기거하고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들이 즐기는
경지와, 법을 때라 실천하는 차례를 내가 아는 대로 그대에게 말하리라.

(964)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분수를 지키는 슬기로운 수행자는 다섯 가지 공포에 떨어서는 안 된다.
즉, 말파리, 모기, 뱀, 도둑을 만나는 일과 네 발 가진 짐승들이다.

(965)

이교도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그들에게 두려워할 많은 것이 있을지라도. 또한 선
을 추구하여 다른 모든 위험과 재난을 이겨내라.

(966)

병이나 굶주림, 추위나 더위를 견디어야 한다. 집 없는 사람은 그런 것들의 침입을 받더라도
용기를 가지고 굳세게 살아야 한다.

(967)

도둑질을 하지 마라. 거짓말을 하지 마라. 약한 것이나 강한 것이나 모든 생물에게 자비한 마
음으로 대하라. 마음의 혼란을 느꼈을 때는 <악마의 무리>라 생각하고 이것을 제거하라.

(968)

분노와 교만에 지배되지 마라. 그 뿌리를 뽑아 버려라. 또 유쾌한 것이나 불쾌한 것이나 모두
극복해야 한다.

(969)

지혜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선(善)을 좋아하여 위험과 재난을 물리치라. 으스스한 곳에서 눕는
불쾌를 참으라. 다음 네 가지 걱정거리를 이겨야 한다.

(970)

즉, '나는 무엇을 먹을까?', '나는 어디서 먹을까?', '어제 밤 나는 잠을 못 잤다.', '오늘 나는
어디서 잘 것인가?' 집을 버리고 도를 배우는 사람은, 이러한 네 가지 걱정을 억제하여라.

(971)

적당한 때 음식과 옷을 얻고, 이 세상에서는 적은 양으로 만족하기 위해 옷과 음식의 양을 알
아라. 그는 옷과 음식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마을을 거닐 때는 조심하며, 욕을 먹더라도 나쁜
말로 대꾸해서는 안 된다.

(972)

눈을 아래로 뜨고, 여기 저기 기웃거리지 않으며, 일심으로 생각하고 똑똑하게 깨어 있으라. 마음을 고요히 하고 정신의 안정을 유지해 분별과 욕망과 회한(悔恨)을 끊어 버리라.

(973)

남에게 충고를 들었을 때에는 반성하고 감사하라. 함께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거친 마음을 버려라. 좋은 말을 하고, 때에 맞지 않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남을 헐뜯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

(974)

또 세상에는 다섯 가지 티끌이 있다. 주의 깊은 사람은 그것을 억제할 것을 배우라. 빗깔, 소리, 냄새, 맛, 감촉에 대한 탐욕을 이겨 내라.

(975)

수행승은 정신 차려 마음도 아주 해탈하고, 이런 것에 대한 욕심을 억제하여라. 그는 적당한 때에 법을 바르게 살피고, 마음을 통일하여 암흑을 없앤다."

(976)

이와 같이 스승(부처님)은 말씀하시었다.

제5장 피안

－ 머리가 떨어지는 일

(976)

베에다에 통달한 한 바라문(바아바린)은 무소유의 경지에 이르고자 코오사라 족의 아름다운 도시에서 남국(南國)으로 내려 왔다.

(977)

그는 앓사카와 아리카 두 나라의 중간을 흐르는 고오다아바리이 강변에 살고 있었다. 이삭을 줍고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978)

그 강변 가까이 커다란 마을이 하나 있었다. 그곳에서 얻은 것을 가지고 그는 큰 제사를 지냈다.

(979)

그가 제사를 끝내고 자기 암자로 돌아왔을 때 바라문 한 사람이 찾아 왔었다.

(980)

그의 발은 상하고 목은 타며, 이는 더러워지고 머리는 먼지로 뒤덮인 채 암자 속의 바아바린에게 가까이 와서 오백 금을 구걸하는 것이었다.

(981)

바아바린은 그를 보자 앉을 자리를 권하고, 그의 기분과 건강을 물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982)

"내가 가지고 있던 물건은 다 베풀어 주었습니다. 바라문이여, 용서해 주시오. 내게는 오백금이 없습니다."

(983)

"내가 구걸하는 데도 당신이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이제 후에 당신의 머리는 터져 일곱 조각이 날 것ियो."

(984)

거짓말을 한 그 바라문은 주문을 외우며 무서운 저주를 하였다. 그 말을 듣고 바아바린은 괴로워했다.

(985)

그는 걱정의 화살을 받고 나서 음식도 먹지 않고 풀이 죽어 있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은 정신의 안정을 누릴 수 없는 법이다.

(986)

바아바린이 두려워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자, 암자를 지키는 여신(女神)은 그의 곁에 와서 이렇게 말했다.

(987)

"그는 머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는 재물을 탐내는 사기꾼입니다. 그는 머리도, 머리가 떨어지는 일도 알지 못합니다."

(988)

"그럼 당신은 알고 있겠군요. 물론대, 머리와 머리가 떨어지는 일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

(989)

"나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것에 대한 지식은 내게는 없습니다. 머리와 머리가 떨어지는 일은 모든 승자(勝者=부처님)가 알고 계십니다."

(990)

"그럼 이 지상에서 머리와 머리가 떨어지는 일은 누가 알고 있습니까? 여신이여, 그것을 내게 말해 주십시오."

자

(991)

"카필라 성에서 나온 세계의 지도자(부처님)가 계십니다. 그는 감자왕(甘蔗王)의 후예이고 석가족의 아들이며,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992)

바라문이여, 그는 참으로 눈을 뜬 사람이고, 모든 사물에 통달했습니다. 모든 신통력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것에 대한 눈을 가졌습니다. 온갖 것을 소멸한 경지에 이르렀고, 번뇌를 멸해 해탈하였습니다.

(993)

그 눈뜬 사람, 거룩한 스승, 눈 있는 분은 세상에서 법을 설하십니다. 당신은 그분께 가서 물으십시오. 그분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994)

<눈뜬 사람>이란 말을 듣고 바아바린은 몹시 기뻐했다. 그의 근심은 가벼워졌다. 그는 많은 기쁨을 얻었다.

(995)

바아바린은 기뻐 감동하여 여신에게 물었다.

"세상의 주인은 어느 마을, 어느 거리, 어느 고을에 계십니까? 그곳에 가서 가장 뛰어나신 정각자(正覺者)에게 저는 예배드리겠습니다."

(996)

"승자, 지혜가 많은 사람, 티 없는 사람, 머리가 떨어지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우왕(牛王) 같은 분이신, 저 석가족의 아들은 코오사라의 서율인 사아밧티이에 계십니다."

(997)

그래서 그는 베에다의 신주(神呪)에 통달한 제자 바라문들에게 말하였다. "오너라. 학생들이여. 나는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 말을 들어라.

(998)

세상에 출현하기 어려운 희귀한 저 눈뜬 사람이 지금 세상에 나타나셨다. 너희들은 어서 사아밧티이로 가서 그 뛰어난 사람을 뵈어라."

(999)

"그러면 스승이시여, 우리가 그분을 보고 <눈 뜬 사람>이라고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1000)

"모든 베에다 가운데 설흔 두 가지 완전한 위인의 상(相)이 전해져 있고, 차례로 설명되어 있다.

(1001)

몸에 이런 서른두 가지 위인의 상이 있는 사람, 그에게는 두 가지 앞길이 있을 뿐, 셋째 길은 없다.

(1002)

만약 그가 집에 머문다면 이 대지를 정복하리라. 형벌에 의하거나 무기에 의하지 않고 법으로써 통치한다.

(1003)

또 그가 집을 나와 집 없는 사람이 된다면, 덮여 있는 것을 벗기고, 더 없이 높은 눈 뜬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된다.

(1004)

내가 태어난 해와 성씨와 상의 특징과 신주와 제자들과 머리와 머리가 떨어지는 것을 마음속으로만 그에게 물어라.

(1005)

만약 그가 보는 데에 아무 장애도 없는 부처님이라면, 마음속으로 물은 질문에 말로써 대답할 것이다."

(1006)

바아바린의 말을 듣고 제자인 열여섯 명의 바라문들, 아지타와 틱사, 멧테야, 폰나카 그리고 멧타구우

(1007)

도오타카, 우파시이바, 난다, 헤마카, 토오테야, 캄파, 현자 자투칸닌.

(1008)

바드라아브다, 우다야, 포오사아라 바라문과 지자(智者) 모오가라아자와 대선인 핑기야 등.

(1009)

그들은 저마다 그들의 무리들을 이끌고 있었으며, 온 세상에 이름을 떨치고, 정신을 안정한 자들이며, 평안한 마음을 즐기고, 현명하며, 전생에 온갖 선한 일을 심은 사람들이다.

(1010)

머리를 땅고 염소 가죽을 걸친 그들은 모두 타아바린에게 절하고, 또 바른편으로 도는 예를 갖추고, 북쪽으로 떠났다.

(1011)

무라카의 서울 파티타아나에 들어가 옛날의 마아히사티로, 또 우제니이, 고오낫다, 베디사, 바나사라는 곳으로.

(1012)

코오삼비이, 사아케다, 사아밧티이로 갔다. 다음 세타비야, 카필라밧투, 쿠시나아라아의 도시로 들어갔다.

(1013)

그리고 향락의 도시 파아바아, 베사아리이, 마가다의 서울 라아자그리하로, 아름답고 상쾌한 석묘(石廟)에 이르렀다.

(1014)

목마른 사람이 냉수를 찾듯이, 또 장사치가 큰 이익을 구하듯이, 더위에 지친 사람이 나무 그늘을 찾듯이, 그들은 서둘러 거룩한 스승이 계신 산으로 올라갔다.

(1015)

거룩한 스승께서는 그 때 여러 비구들 앞에서 사자가 숲속에서 외치듯이, 법을 설하고 계시었다.

(1016)

빛을 비치고 난 태양 같은, 둥근 보름달 같은 눈 뜬 사람을 아지타는 보았다.

(1017)

그 때 아지타는 부처님 몸에 원만한 상호가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한 곁에 서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물었다.

(1018)

"저의 스승 바아바린의 생년을 말하십시오. 성씨와 상을 말하십시오. 베에다에 통달해 있는 것을 말하십시오. 제자는 몇 명이나 가르치고 있는지 말해 보시오."

(1019)

"그의 나이는 백스무 살이다. 그의 성은 바아바린이고, 몸에는 세 가지 특상(特相)이 있으며, 그는 3베에다의 깊은 뜻에 통해 있다.

(1020)

위인의 특상과 전설과 어휘와 의례에 통달하고, 오백 명의 제자를 가르치며, 자기 진리의 궁극에 통달해 있다."

(1021)

`애착을 끊어 버린 으뜸가는 분이시여, 바아바린이 가진 모든 특상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의심을 갖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1022)

"그는 혀를 가지고 자기 얼굴을 덮는다. 그의 양미간에는 흰 털이 있고, 음부는 감추어져 있다. 학생이여, 그의 세 가지 특상은 이러하니라."

(1023)

질문자가 아무것도 묻지 않는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은 감격하여 합장하고 생각했다.

(1024)

“그는 누구일까? 신일까, 범천일까? 혹은 수자아의 남편인 제석천일까?” 마음속으로 이와 같이 생각하였다. “도대체 누구에게 대답을 하신 것일까?”

(1025)

바아바린은 머리와 머리가 떨어지는 일에 대해서 물었다.

"스승이시여,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선인이시여, 우리들의 의혹을 풀어 주십시오."

(1026)

고오타마 부처님은 대답하셨다.

"무명이 머리인 줄 알아라. 신앙과 생각과 선정(禪定)과 욕심과 노력에 연결되어 있는 밝은 지혜가 머리를 깨어 떨어뜨리는 것이다."

(1027)

그래서 그 학생은 크게 감동하여 미칠 듯이 기뻐하며, 염소 가죽으로 만든 옷을 한쪽 어깨에 걸치고, 부처님의 발밑에 꿇어 머리를 조아리며 절하였다.

(1028)

아지타가 물었다.

"거룩하신 분이여, 바아바린 바라문은 그의 여러 제자들과 함께 환희하여 거룩하신 스승의 발밑에 예배 드립니다. 눈이 있는 분이시여."

(1029)

고오타마는 대답했다.

"바아바린 바라문은 여러 제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학생이여, 그대도 또한 즐거워하라. 오래 살아라."

(1030)

바아바린이나 그대들에게서 모든 의문이 해소되었을 것이다. 마음속에 묻고자 하던 것이 있거든 다 물어라."

(1031)

눈뜬 분에게서 허락을 받았으므로 아지타는 합장하고 앉아서 완전한 사람(如來)에게 첫째 질문을 하였다.

- 세상은 무명에 덮여 있다

(1032)

존자 아지타가 물었다.

"세상은 무엇으로 덮여 있습니까? 세상은 무엇 때문에 빛나지 않습니까? 세상을 더럽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커다란 공포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1033)

스승께서 대답하셨다.

"아지타여, 세상은 무명에 덮여 있다. 세상은 탐욕과 게으름 때문에 빛나지 않는다. 욕심은 세상의 때이며, 고뇌는 세상의 커다란 공포라고 나는 말한다."

(1034)

존자 아지타가 말했다.

"번뇌의 흐름은 어느 곳에나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흐름을 막고 보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1035)

스승은 대답했다.

"아지타여, 세상에서 모든 번뇌의 흐름을 막아 내는 것은 조심하는 일이다. 그것이 번뇌의 흐름을 막고 보호한다. 그 흐름은 지혜로 막을 수 있는 것이다."

(1036)

존자 아지타가 말했다.

"지혜와 조심하는 일과 명칭과 형태는 어떠한 때 소멸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1037)

"아지타여, 그대의 질문에 답하리라. 식별(識別)작용이 없어짐으로써 명칭과 형태가 남김없이 멸했을 때에, 이 명칭과 형태가 없어진다."

(1038)

"이 세상에는 진리를 찾아 밝힌 사람도 있고, 배우고 있는 사람도 있으며, 범부도 있습니다. 바라건대 현자께서는 그들의 행동을 말씀해 주십시오."

(1039)

"수행승은 여러 가지 욕망에 빠져서는 안 된다. 마음이 혼탁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물의 진상에 숙달하여 정신을 차리고 편력하여라."

- 흔들리지 않는 사람

(1040)

존자 뒷사 멧테야가 물었다.

"이 세상에서 만족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양극단을 통달할 만큼 깊이 생각해 양극단이나 중간에도 때 묻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를 위인이라 부릅니까? 이 세상에서 만나는 여인(번뇌)을 초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1041)

스승은 대답했다.

"멧테야여, 모든 욕망에 대해서 청정한 행을 지키고, 애착을 떠나 항상 조심하고 구명(究明)하여 평안에 돌아간 수행자, 그에게는 흔들림이 없다."

(1042)

"그는 양 극단을 통달하고 깊이 생각해, 양 극단이나 중간에도 더럽혀지지 않는다. 그를 나는 위인이라 부른다. 그는 이 세상에서 만나는 여인(번뇌)을 초월해 있다."

— 욕망을 달성하고자 제사를 지내는 자

(1043)

존자 폰나카가 물었다.

"흔들리지 않는 근본을 달관하신 당신께 여쭙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선인(仙人)이나 상인(常人)이나, 왕족, 바라문은 무엇 때문에 널리 신들에게 희생(犧牲)을 바쳤습니까? 스승이시여, 당신께 묻사오니 나에게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1044)

스승은 대답했다.

"폰나카여, 대개 선인, 상인, 왕족, 바라문들이 세상에서 널리 신들에게 희생을 바친 것은 현재 우리들의 이러한 생존상태를 희망하여 노쇠에 걸리어 희생을 바친 것이다."

(1045)

존자 폰나카가 물었다.

"스승이시여, 대개 이 세상에서 선인, 상인, 왕족, 바라문들이 모두 신들에게 희생을 바쳤습니다만, 제사에 게으르지 않았던 그들은 생과 노쇠를 초월한 것입니까? 나의 사람이시여, 당신께 묻사오니 그것을 제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1046)

스승은 대답했다.

"폰나카여, 그들은 희망하고 칭찬하고 멸망하여 공양을 바친다. 이득에 의해 욕망을 달성하고자 희망하는 것이다. 제물을 바치기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생존에 대한 탐착을 버리지 않는다. 그들은 생과 노쇠를 초월하지 못했다고 나는 말한다."

(1047)

존자 폰나카가 말했다.

"만약 제물을 바치기에 몰두해 있는 그들이 제사로써도 생과 노쇠를 초월하지 못했다면, 나의

사람이여, 신과 인간의 세계에서 생과 노쇠를 초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스승이시여, 당신께 묻사오니 그것을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1048)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푼나카여, 세상에서 이런 저런 상태를 구명하여 아무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에 머물러 연기도 고뇌도 욕망도 없는 사람, 그는 생과 노쇠를 초월했다고 나는 말한다."

— 괴로움은 집착으로 인해 생긴다

(1049)

존자 뱃타구우가 물었다.

"스승이시여, 당신께 묻겠습니다. 이것을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베에다의 달인, 마음을 수양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갖가지 괴로움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것입니까?"

(1050)

스승은 대답했다.

"뱃타구우여, 그대는 내게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을 물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대에게 말하리라. 세상의 온갖 괴로움은 집착으로 인해 생긴다."

(1051)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집착을 만드는 사람은 어리석음으로 되풀이해 괴로움에 다가선다. 그러므로 아는 것이 있어 괴로움이 생기는 것을 본 사람은 집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1052)

"우리가 당신에게 물은 바를 당신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른 것을 또 묻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현자들은 번뇌의 흐름, 생과 노쇠, 근심과 슬픔을 초월할 수 있습니까? 성인이지요, 그것을 제게 설명해 주십시오. 당신은 이 법칙을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053)

스승이 대답했다.

"뱃타구우여, 현세에 전해 내려온 것이 아닌 이 법칙을 나는 내게 말하겠다. 그 법칙을 듣고 명심해서 행동하여 세상의 집착을 초월하여라."

(1054)

"위대한 선인이시여, 저는 그 으뜸가는 법칙을 받아 그지없이 기쁩니다. 그 법칙대로 행하여 세상의 집착을 넘어서겠습니다."

(1055)

스승이 대답했다.

"뱃타구우여, 상하 좌우 중앙에서 그대가 아는 어떤 것이라도 그것에 대한 기쁨과 집착과 식

별(識別)을 제거하고, 덧없는 생존상태에 머물지 마라.

(1056)

이렇게 해서 조심하고 게으르지 않는 수행자는 내 것이라 고집했던 것을 버리고, 생과 노쇠, 근심과 슬픔을 버리고, 지자(智者)가 되어 이 세상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리라."

(1057)

"위대하신 선인의 말씀을 듣고 저는 기쁩니다. 고오타마시여, 번뇌의 요소가 없는 경지가 잘 설명되었습니다. 확실히 스승께서는 괴로움을 버리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이 법칙을 있는 그대로 알고 계십니다.

(1058)

성인이시여, 당신께서 간절히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신 사람들은 곧 괴로움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용이시여, 그럼 당신 가까이 가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를 가르치고 이끌어 주십시오."

(1059)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욕망의 생존에 집착하지 않는 바라문, 베에다의 달인이라고 그대가 안 사람, 그는 확실히 이 번뇌의 흐름을 건넜다. 그는 피안에 이르러 마음이 거칠지 않고 의혹도 없다.

(1060)

또 그는 이 세상에서는 지자이고, 베에다의 달인이며, 여러 가지 생존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애착을 떠나 고뇌도 없고 희망도 없다. 그는 생과 노쇠를 뛰어 넘었다고 나는 말한다."

— 으뜸가는 진리로 번뇌의 강을 건너라

(1061)

존자 도오타카가 물었다.

"스승이시여, 당신께 묻겠습니다. 이 일을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대하신 선인이여, 저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당신의 음성을 듣고 저는 열반을 배우겠습니다."

(1062)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도오타카여, 그럼 이 세상에서 현명하게 정신 차려 정진하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자기의 평안을 배우라."

(1063)

"저는 신과 인간의 세계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행동하는 바라문을 봅니다. 널리 보시는 분이여, 저는 당신께 예배드립니다. 석가시여, 저로 하여금 온갖 의혹에서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1064)

"도오타카여,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의혹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해탈시켜 주지는 못한다. 다만 그대가 으뜸가는 진리를 안다면, 그것으로 인해 그대는 번뇌의 흐름을 건너게 되리라."

(1065)

"바라문이여, 자비를 베풀어 멀리 떨어지는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그것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저는 마치 허공처럼 여러 가지 모양을 나타내지 않고, 이 세상에서 고요하고 걸림 없이 행하겠습니다."

(1066)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도오타카여, 현세에서 전해 내려오지 않은 이 평안을 네게 말하겠다. 그것을 알아 정신 차려 행하고, 세상의 집착을 뛰어넘으라."

(1067)

"위대한 신이여, 저는 그 으뜸가는 평안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그지없이 기쁩니다. 그것을 알아 정신 차려 행하고, 세상의 집착을 끊겠습니다."

(1068)

스승께서 대답하셨다.

"도오타카여, 상하 좌우 중앙에서 그대가 알고 있는 무엇이건, 그것을 세상의 집착이라 알고, 이것저것 생존에 대한 애착을 가져서는 안 된다."

— 무소유로써 번뇌의 강을 건너라

(1069)

우파시이바 존자가 물었다.

"석가시여, 저는 아무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 큰 번뇌의 흐름을 건널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의지해 건널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널리 보시는 분이여."

(1070)

거룩한 스승은 대답했다.

"우파시이바여, 정신 차려 무소유를 기대하면서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써 번뇌의 흐름을 건너라. 모든 욕망을 버리고 의혹에서 벗어나 애착의 소멸을 밤낮으로 살피라."

(1071)

존자 우파시이바가 말했다.

"모든 욕망에 대한 탐착에서 벗어나 무소유에 의해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높은 <유상 해탈(有想解脫)>에서 해탈한 사람, 그는 게으르지 않고 거기에 편히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1072)

"우파시이바여, 모든 욕망에 대한 탐착에서 벗어나 무소유에 의해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높은 상념의 해탈에 도달한 사람, 그는 물러서지 않고 거기에 편히 머무르리라."

(1073)

"널리 보시는 분이여, 만약 그가 물러나지 않고 여러 해 동안 거기에 머문다면, 그는 해탈하여 청량(淸涼)하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사람의 식별작용은 있는 것입니까?"

(1074)

"우파시이바여, 가령 사나운 바람에 불린 불꽃은 꺼져 버려 불의 수에 들지 않는 것처럼, 성인은 명칭과 신체에서 해탈해 없어지고, 존재하는 수에 들지 않는다."

(1075)

"멸해버린 그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혹은 상주(常住)하고 무병한 것입니까? 성인이시여, 그것을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이 법칙을 있는 그대로 알고 계시니 말입니다."

(1076)

스승은 대답하였다.

"우파시이바여, 멸해 버린 자에게는 그것을 헤아릴 기준이 없다.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말할 만한 근거가 그에게는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이 깨끗이 끊어지면 논리의 길도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것이다."

- 번뇌의 마군을 깨뜨린 사람이 성자이다

(1077)

존자 난다가 물었다.

"세상에는 여러 성자가 있다고들 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혜가 갖추어진 사람을 성자라고 부릅니까, 혹은 생활이 갖추어진 사람을 성자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1078)

스승은 대답했다.

"난다여, 이 세상 진리를 통달한 사람은 견해로나 학문으로나 지식을 보고 성자라고 하지는 않는다. 번뇌인 마군을 깨뜨려 고뇌가 없고 욕망이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성자라고 나는 말한다."

(1079)

존자 난다가 물었다.

"대개 이런 사문인 바라문들은 견해나 학문에 의해서 청정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계율이나 서원에 의해서도 청정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청정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스승이시여, 그들은 거기에 의존하여 스스로 자제하고 있지만, 과연 생과 노쇠를 넘어선 것입니까? 존경하는 스승이시여, 당신께 묻사오니 그것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1080)

스승은 대답했다.

"난다여, 이들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모두 견해로 인해 청정해지고, 계승된 학문에 의해서도 청정해진다고 말한다. 그리고 계율이나 서원에 의해서도 청정해진다고 한다. 이밖에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청정해진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자제한다 할지라도, 생과 노쇠를 초월한 것은 아니라고 나는 말한다."

(1081)

존자 난다가 말했다.

"대개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견해나 학문에 의해서, 또는 계율이나 서원에 의해서 청정해진다고 합니다. 이밖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 청정해진다고 합니다. 성인이지여, 만일 당신께서 '그들은 아직도 번뇌의 흐름을 건너지 못했다'고 하신다면, 신과 인간의 세계에서 생과 노쇠를 초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스승이지여, 당신께 묻사오니 그것을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1082)

스승은 대답하셨다.

"난다여, 나는 모든 사문, 바라문들이 생과 노쇠에 싸여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견해나 학문, 사색이나 계율 혹은 서원을 다 버리고, 또 온갖 방법을 다 버리고, 애착을 깊이 살펴 마음에 때가 묻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참으로 <번뇌의 흐름을 건넌 사람들>이라고 나는 말한다."

(1083)

"위대하신 선인의 말씀을 듣고 저는 한없이 기쁩니다. 고오타마시여, 번뇌의 요소가 없는 경지를 훌륭하게 밝혀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견해, 학문, 사색, 계율, 서원을 모두 버리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버리고 그 애착을 깊이 살펴 마음에 때가 묻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참으로 <번뇌의 흐름을 건넌 사람들>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 탐욕을 없애는 것이 열반이다

(1084)

존자 헤마타가 물었다.

"고오타마 이전에 옛 사람들이 '이전에는 이러했다, 미래는 이렇게 되리라'하고 내게 말해 준 것은 모두 전해들은 바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모두 사색의 혼란을 더할 뿐입니다."

(1085)

저는 그들의 말을 즐겨 하지 않았습니다. 성인이지여, 애착을 끊어 버리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을 알아 명심하고 행해서 세상의 집착을 뛰어넘겠습니다."

(1086)

"헤마카여,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식별한 아름다운 사물에 대해서 탐욕을 없애는 것이 영원한 열반의 경지이다."

(1087)

이것을 잘 알고 명심해 현세에서 번뇌를 완전히 벗어 버린 사람은 항상 평안에 들어가 있다. 세상의 애착을 뛰어 넘은 것이다."

－ 욕망과 애착을 초월한 사람

(1088)

토오데야 존자가 물었다.

"모든 욕망에 머물지 않고, 애착이 없이 온갖 의혹을 초월한 사람, 그는 어떤 해탈을 구하면 좋겠습니까?"

(1089)

스승은 대답했다.

"토오데야여, 모든 욕망에 머물지 않고 애착이 없이 온갖 의혹을 초월한 사람, 그에게는 따로 해탈이 없다."

(1090)

"그는 소원이 없는 사람입니까? 또는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까? 또는 지혜로써 무엇인가를 계획하는 사람입니까? 석가이시여, 그가 성인임을 제가 알 수 있도록 말씀해주십시오. 널리 보시는 분이여."

(1091)

"그는 아무 소원도 없는 사람이다. 그는 아무것도 희망하지 않는다. 그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지만, 지혜로써 무엇을 꾸미지는 않는다. 토오데야여, 성인은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라. 그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며, 욕망의 생존에 집착하지도 않는다."

－ 호수가의 피난처

(1092)

캄파 존자가 물었다.

"무서운 폭류(暴流)가 밀려 왔을 때 호수 가에 있는 사람들, 노쇠와 죽음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을 위해 섬(피난처)을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이 괴로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피난처를 제게 보여 주십시오. 나의 사람이시여."

(1093)

스승은 대답하셨다.

"캄파여, 아주 무서운 폭류가 밀려 왔을 때 호수 가에 있는 사람들, 노쇠와 죽음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섬을 너에게 말해 주리라."

(1094)

어떠한 소유도 없고 집착하여 취할 일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피난처이다. 그것을 열반이라고 한다. 그것은 노쇠와 죽음의 소멸인 것이다.

(1095)

이것을 분명히 알고 명심하여 현세에서 번거로움을 완전히 떠난 사람들은 악마에게 쫓리지 않는다. 그들은 악마의 종이 되지 않는다."

- 명칭과 형태에 대한 탐착을 떠난 사람

(1096)

자투칸닌 존자가 물었다.

"저는 용사로 욕망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거센 흐름을 건넌 사람(부처님)에게 <욕심 없는 것>에 대해 묻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평안의 경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본래 눈이 있는 분이시여, 스승이시여, 그것을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1907)

거룩한 스승께서는 모든 욕망을 억제하고 사십니다. 마치 빛나는 태양이 빛으로 인해 대지를 이기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 많으신 분이여, 지혜가 적은 저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 저는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생과 노쇠를 버리는 일에 대해서."

(1098)

스승은 대답하셨다.

"자투칸닌이여, 모든 욕망에 대한 탐욕을 억제하여라. 떠남(出離)을 안온으로 보아라. 그대에게는 취할 것도 버릴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

(1099)

과거에 있었던 것(번뇌)을 말려 버려라. 미래에는 그대에게 아무것도 없게 하라. 중간에 있어서도 그대가 아무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평안해질 것이다.

(1100)

바라문이여, 명칭과 형태에 대한 탐착을 떠난 사람에게 여러 가지 번뇌는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는 죽음에 지배될 염려가 없다."

- 집착하는 곳에 악마가 따른다.

(1101)

바드라우다 존자가 물었다.

"집착의 주소를 버리고 애착을 끊어 괴롭거나 동요되는 일 없이, 환희를 버리고 거센 흐름을 건너 이미 해탈하고, 계략이 없는 현명한 당신께 원합니다. 용(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이곳에서 물러날 것입니다.

(1102)

용자(勇者)시여, 당신의 말씀을 듣고자 많은 사람이 여러 지방에서 모여 들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잘 설명해 주십시오. 당신께서는 법을 있는 그대로 알고 계시니 말입니다."

(1103)

거룩한 스승은 대답하셨다.

"바드라우다여, 상하 좌우 중간에 걸리는 애착을 모조리 없애라. 세상에 있는 어느 것이라도 집착하면, 그것 때문에 악마가 따라 다니게 된다.

(1104)

그러기 때문에 수행자는 바르게 알고 명심해서, 세상에 있는 어느 것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 죽음의 영역에 애착을 느끼는 이런 사람들을 <집착하는 사람들>이라 보고서."

- 무명을 깨뜨리는 일

(1105)

우다야 존자가 물었다.

"이 세상의 티끌과 때를 벗어나 명상에 잠겨 할 일을 다 마치고, 번뇌에 더럽힘 없이 모든 사물의 피안에 도달한 스승께 묻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무명(無明)을 깨뜨리는 일과 요해(了解)에 의한 해탈을 말씀해 주십시오."

(1106)

거룩한 스승은 대답하셨다.

"우다야여, 애욕과 근심, 이 두 가지를 버리는 일, 침울한 기분을 없애는 일, 후회하지 않는 일.

(1107)

고요한 마음과 깨끗한 생각과 진리에 대한 사색을 먼저 할 것, 이것이 무명을 깨뜨리는 일이며, 요해에 의한 해탈이라고 나는 말한다."

(1108)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인해 속박되어 있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끊어 버림으로써 평안(열반)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1109)

"세상 사람들은 환희에 속박되어 있다. 생각(思考)이 세상 사람들을 움직이게 한다. 애착을 끊어 버림으로써 평안이 있다고 말한다."

(1110)

"정신 차려 행하는 사람의 식별작용은 어떻게 없애는 것입니까? 그것을 스승께 묻고자 저는 온 것입니다. 당신의 그 말씀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1111)

"안팎으로 감각적 감수(感受)를 기빠하지 않는 사람, 이와 같이 정신 차려 행하는 사람의 식별작용은 없어지는 것이다."

- 안팎으로 <아무것도 없다>고 보는 이

(1112)

포오사아라 존자가 물었다.

"과거의 일들을 설명하고 괴로워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으며, 의혹을 끊고 모든 사물의 피안에 이른 스승께 묻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1113)

물질적인 형태의 생각을 떠나, 신체를 모두 버리고, 안팎으로 <아무것도 없다>고 보는 사람의 지혜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석가이시여, 그러한 사람은 다시 어떻게 인도되어야 합니까?"

(1114)

거룩한 스승은 대답하셨다.

"포오사아라여, 모든 식별작용이 머무는 상태를 알아 버린 완전한 사람(여래)은 그가 존재하는 모양도 알고 있다. 즉, 그는 해탈하여 거기에 의존하고 있음을 아는 것이다.

(1115)

무소유가 성립되는 까닭, 즉 '기쁨은 속박이다.'고 알아 그것에 대해 조용히 관찰한다. 안정된 바라문에게는 이와 같은 분명한 지혜가 있다."

-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것

(1116)

모오가라아자 존자가 물었다.

"저는 지난 날 두 번이나 석가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눈이 있는 분께서는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천(석가)은 세 번째에는 설명해 주신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1117)

이 세상도 저 세상도 신과 함께 있는 범천(梵天)의 세계로, 명망이 높은 고오타마의 견해는 모르고 있습니다.

(1118)

이렇듯 오묘한 분께 묻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보는 사람을, 죽음의 왕(염라대왕)은 보지 못합니까?"

(1119)

스승께서 대답하셨다.

"항상 정신 차려 자기를 고집하는 편견을 버리고, 세상을 빈 것(空)으로 보라. 그러면 죽음을 넘어설 수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세계를 보는 사람을 죽음의 왕은 보지 못한다."

- 삶과 늙어 쇠함을 버리는 길

(1120)

평기야 존자가 물었다.

"나는 나이를 먹어서 기력도 없고 빛도 바랬습니다. 눈도 똑똑히 보이지 않고 귀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해마다 그대처럼 죽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원컨대 진리를 말씀해 주십시오.

알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삶과 늙어 쇠함을 버리는 길을."

(1121)

스승은 대답하였다.

"평기야여, 물질적인 형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쇠퇴해 가는 것을 볼 수 있고, 물질적인 형태가 있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들은 병에 시달립니다. 평기야여, 그러므로 당신은 게으르지 말고 물질적인 형태를 버려, 다시는 생존의 상태로 돌아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1122)

"사방과 그 사이와 상하(上下) 등 이十方(十方)세계에서 당신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또 인식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컨대 법을 설해 주십시오. 그것을 저는 알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삶과 늙어 쇠함을 버리는 길을."

(1123)

스승께서 대답하였다.

"평기야여, 사람들은 애착에 빠져 고뇌하고, 늙음에 쫓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기야여, 당신은 게으르지 말고 애착을 끊어 다시는 생존 상태로 돌아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 피안에 이르는 길

(1124)

스승께서 마가다 나라 파아사아나카 사당에 계실 때에 위와 같은 설법을 하시고, 바아바린의 제자인 열여섯 바라문의 질문에 따라 대답하였다. 만약 그 질문의 낱말의 뜻과 이치를 알고 이치를 따라 실천한다면, 노쇠와 죽음의 피안에 이를 것이다. 이 가르침은 피안에 이르게 하는 것이므로, 이 법문을 <피안에 이르는 길>이라 부른다. 아지타와 틱사 멧테야, 폰나카, 멧타 구우, 도오타카, 우파시이바, 난다 그리고 헤마카

(1125)

토오데야와 캄파 두 사람과 현자 자투카닌, 바드라우다, 우다야, 포오사아라 바라문과 현명한 모오가라아자와 위대한 선인 평기야 등.

(1126)

이들은 행이 갖추어진 선인(仙人)이신 눈 뜬 사람(부처님)께 가까이 갔다. 미묘한 질문을 하면서 으뜸 가는 부처님께 다가갔다.

(1127)

그들의 질문에 따라 눈 뜬 분은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하였다. 성인은 모든 질문에 대해 시원스런 대답을 했기 때문에, 바라문들은 만족하였다.

(1128)

그들은 태양의 후예인 눈 뜬 사람, 눈이 있는 분에게 만족하여 뛰어난 지혜인 밑에서 청정한 수행을 하였다.

(1129)

날날의 질문에 대해서 눈 뜬 사람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차안(此岸)에서 피안(彼岸)에 이를 것이다.

(1130)

으뜸가는 길을 닦는 사람은 차안에서 피안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피안에 이르는 길이다. 그러므로 <피안에 이르는 길>이라고 한 것이다.

(1131)

평기야가 바아바린에게 돌아가 들은 대로 말했다.

"<피안에 이르는 길>을 외우겠습니다. 티가 없고 지혜가 많은 사람(부처님)은 스스로 본 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이 없고 번뇌의 숲이 없어진 분께서 어찌 허망한 말을 하시겠습니까?

(1132)

때와 미혹에서 벗어나 교만과 거짓을 버린 사람에 대한 찬사를 저는 말하겠습니다.

(1133)

바라문이시여, 암흑을 지워 버린 눈 뜬 사람, 널리 보시는 사람, 세상의 궁극에 이른 사람, 모든 생존 상태를 초월한 사람, 티 없는 사람, 모든 괴로움을 버린 사람, 그는 참으로 <눈 뜬 사람>이라고 불리기에 마땅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분을 가까이 모셨습니다.

(1134)

이를테면, 새들이 엉성한 숲을 떠나 열매가 풍성한 숲에 깃들 듯이, 저도 또한 소견이 좁은 사람들을 떠나 백조처럼 큰 바다에 이르렀습니다.

(1135)

고오타마 이전의 옛 사람들이 '이전에는 이러했다. 미래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하고 저에게 말한 것은 모두 전해진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두 사색의 혼란을 더할 뿐입니다.

(1136)

그는 홀로 번뇌의 암흑을 지워 버리고 앉아, 빛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고오타마는 지혜가 많으신 분입니다. 그는 지혜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1137)

그 즉시(卽時) 효과가 있는, 시간이 필요치 않는 법, 즉 번뇌가 없는 애착의 소멸을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에게 견줄 사람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1138)

바아바린이 말했다.

"평기야여, 그대는 지혜가 많은 고오타마, 지혜가 넘치는 고오타마 곁에서 잠시라도 떨어져 살

수 있겠는가?

(1139)

그 즉시 효과가 있는, 시간을 초월한 진리, 즉 번뇌가 없는 애착의 소멸을 내게 설해 주었다. 그에게 견줄 사람은 아무데도 없다고 했는데."

(1140)

평기야가 말했다.

"바라문이니여, 저는 지혜가 많은 고오타마, 지혜가 넘치는 고오타마 곁을 떠나서는 한 시라도 살 수가 없습니다.

(1141)

그 즉시 효과가 있는, 시간을 초월한 진리, 즉 번뇌가 없는 애착의 소멸을 저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분에게 견줄 사람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1142)

바라문이니여, 나는 게으르지 않게 밤낮으로 마음의 눈을 가지고 그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분을 예배하면서 밤을 보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을 떠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143)

내 신앙과 기쁨과 마음과 생각은 고오타마의 가르침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지혜 많으신 분이 어느 쪽으로 가시거나 그곳을 향해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1144)

나는 이제 늙어서 기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몸은 그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항상 그곳에 가 있습니다. 바라문이니여, 내 마음은 그와 맺어져 있습니다.

(1145)

나는 더러운 흙탕에 누워 여기 저기 떠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거센 흐름을 건넌, 티 없이 깨달은 분(正覺者)을 만났습니다."

(1146)

이 때 거룩하신 스승께서 나타나 말씀하셨다.

"박카리와 바드라우다 또는 아알라비 고오타마가 믿음에 의해서 깨달은 것처럼, 당신도 믿음에 의해서 깨달으십시오. 당신은 죽음의 영역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평기야여."

(1147)

평기야가 말했다.

"저는 성인의 말씀을 듣고 더욱 더 믿게 되었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번뇌의 덮임에서 벗어나 마음이 거칠지 않고, 말씀씨가 있는 분입니다.

(1148)

신들을 초월했다는 법을 잘 알아 이것저것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스승께서는 의심을 가지고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1149)

아무데도 비할 바 없고, 빼앗기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저는 틀림없이 도달할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제게는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제 마음이 이와 같이 믿고 알고 있는 것을 인정해 주십시오."